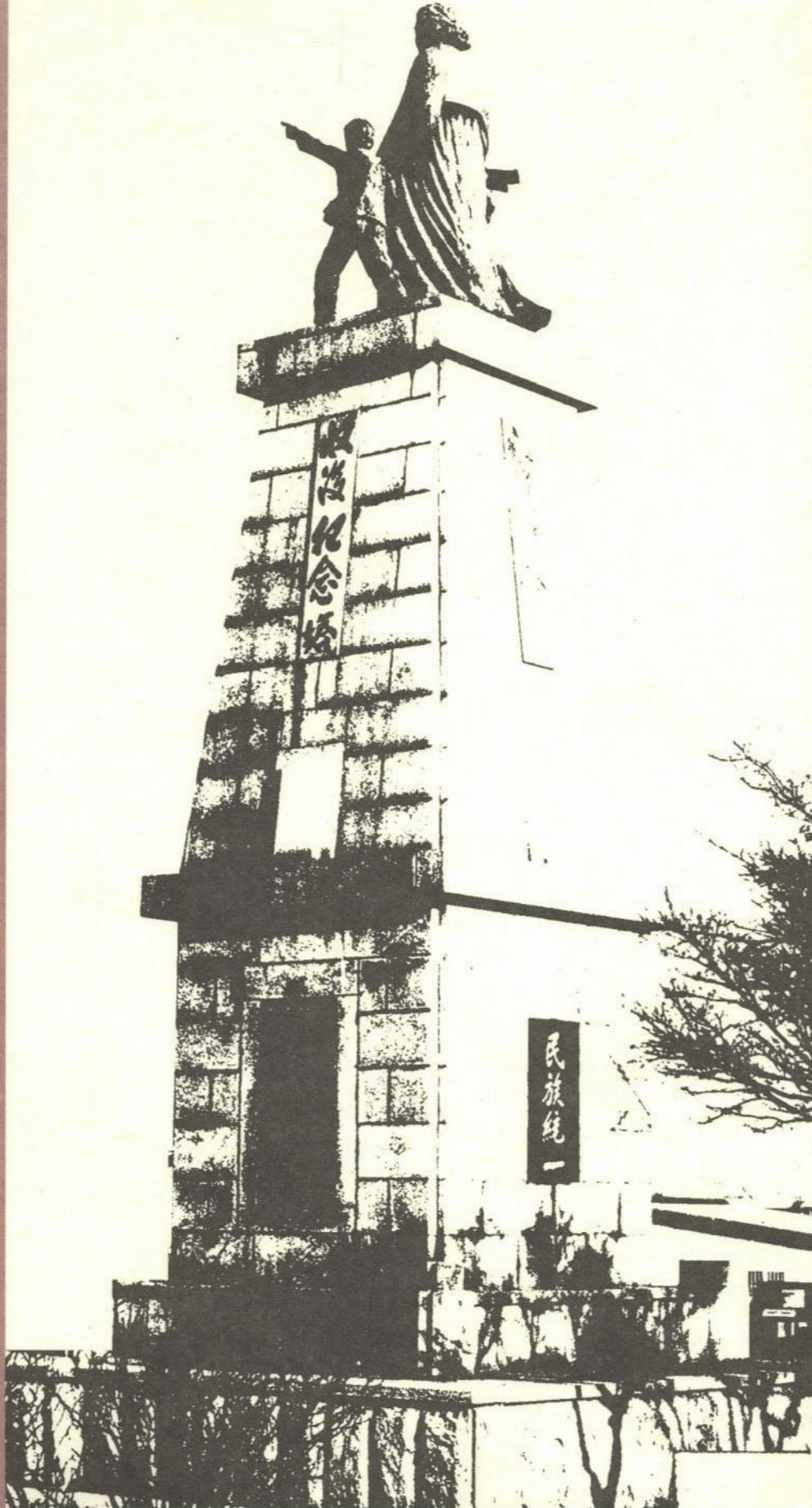


속초문화원

THE SOKCHO CULTURE JOURNAL

2001 · 제17호
ANNU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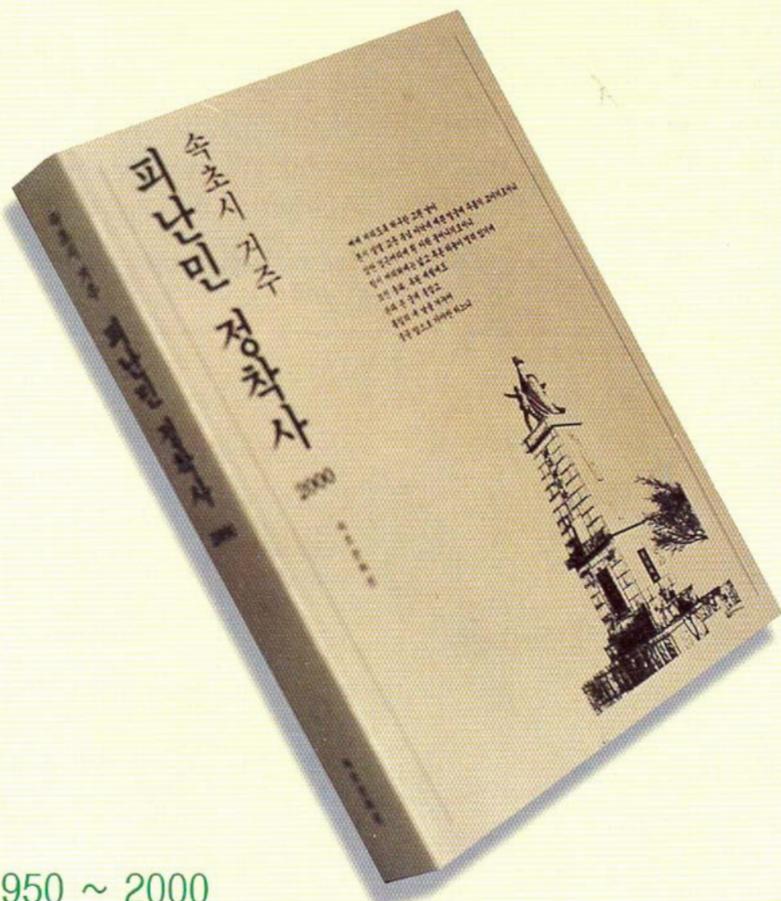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속초시 동명동 신항만 부두에 인접하여 세워진
흔히들 '수복탑'으로 불리는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 은
휴전 직후 1954년 5월 10일 건립된 것으로
북한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는 상징의 표상이다.
그러나 건립된 지 30년 세월—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 일대를 강타한 강풍으로 모자상母子像이 붕괴되어
이를 같은 해 11월 17일 속초 시민 성금으로 복원.
오늘에 이르고 있는 탑의 모습이다.
지난 해(2000년)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의 표지화로 선정하여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동기로 <<속초문화>>지가
올해로 17호를 펴내게 되기까지 한 번도 표지화로 삼은 적이 없었던 차에
속초 문화 경관 제1호—속초의 상징물에 대한 예우로
이번 17호 표지화로 선정하여 분단의 비극 6·25전쟁 발발 50여 년이 흐른 오늘
그 통한의 역사를 되새기며 북한 실향민의 애달픈 정조를 달래려고 한다.





1950 ~ 2000

6·25전쟁 발발
50여 년이
흐른 오늘
그 서사와 담론,
이 고장에
정착한 북한
피난민들의
애환을 담아

크라운판 626면
초판 2000년 12월

CONTENTS

5,60년대 피난민 생활사 화보 속초의 옛과 오늘의 생생한 기록 사진

제1부 ·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역사와 사회
한국 전쟁과 속초를 중심으로

제2부 ·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
속초의 향토 음식 / 북한 음식

제3부 · 속초시 거주 피난민과 속초 발전
피난민 정착이 속초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제4부 ·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증언
증언과 체험 / 고향과 피난과정

제5부 · 속초시 거주 피난민 사료 연표
편년체로 엮은 피난민의 사료와 연표

부록 · 1) 이북 오도민회 시 · 군민회 현황
2) 설문 조사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 2001 제17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033)632-1231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E-mail : sc1241@kornet.net

■ 발행인 / 최용문

■ 편집인 / 박영도

■ 권두휘호 /

이영주 · 5

■ 권두시 / 가을 호수

황금찬 · 6

■ 발간사 / 되어가는 것을 위한 새 지평

최용문 · 7

■ 문예중흥선언

· 8

■ 관광도시 속초(캐릭터)

· 9

■ 속초시가

· 10

■ 영북 3대 준령의 산악미

최낙민 · 11

■ 속초 장치기 옛터

· 14

■ 역사를 찾아서

· 15

■ 설악문화제

· 16

■ 문화원동정

· 23

■ 설악문화제 캐릭터와 심벌마크

· 49

■ 속초군정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김귀옥 · 50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배찬복 · 55

■ 해양문화의 개념과 영역

황을문 · 71

발행일 / 2001년 12월 20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 제작비 일부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음.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임의 전재·복제를 금함.

비매품

■ 편집위원 / 이인철. 노광복.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윤의구. 최현식

■ 문화의 열린 사회를 만드는 기초 기반 조성	한정규 • 75
■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충	장세호 • 78
■ 미국 민주주의 견습기	정영호 • 82
■ 일본 공민관 연수	최용문 • 87
■ 연변 조선족, 그들의 문화, 그리고 삶	장규호 • 94
■ 양양 낙산사 성보 조사 보고서	최현식 • 96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 101
■ 굽은 나무가 곧은 나무에게	박영도 • 106
■ 속초 시립 민속 박물관 건립	정종천 • 112
■ 2001년도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박종성 • 114
■ 2001년 속초민예총의 활동상	• 125
■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	• 130
■ 묵향	• 131
■ 2001년 속초문화원 '에필로그'	• 140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142

매섭게 먹이를 쏘아보는 ‘삼두매’의 상징성을 읽을 수 있어야…



삼두 일족매



대포동(외옹치리) 장승 ‘지하여장군’과 솟대

‘속초향토사료관’을 찾는 이들 가운데서 이 머리 세에 다리가 하나인 ‘삼두매三頭鷹’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 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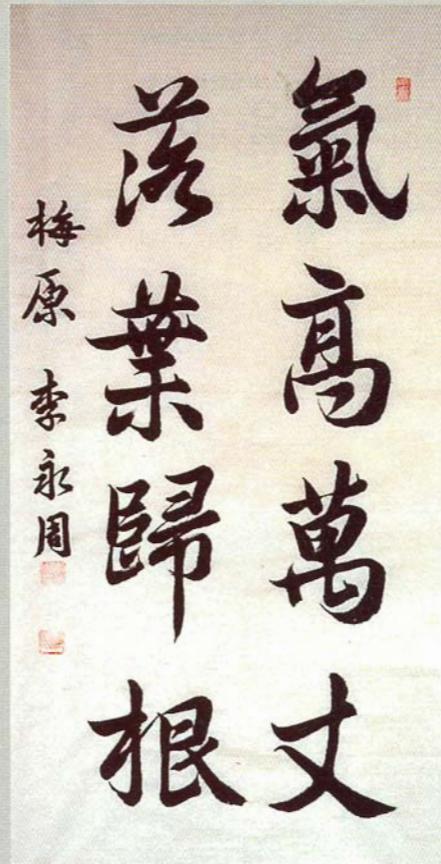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삼재설三才說’(천天·지地·인人)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三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수관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삼재법三災法’ 또는 ‘삼재년年’이라 일컫는 풍습도 이러한 수관념이 민간의 주술적 기복과 결합된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의 일생 중에서 삼재의 불운이 듣 해가 있으니, 뱈해·닭해·원숭이해·소해에 낳은 사람은 해년亥年·자년子年·축년丑年에, 원숭이해·쥐해·용해에 낳은 사람은 인년寅年·묘년卯年·진년辰年에, 데지해·토끼해·양해에 낳은 사람은 기년己年·오년午年·미년未年에, 호랑이해·말해·개해에 낳은 사람은 신년申年·유년酉年·술년戌年에 삼재가 듣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복설卜說’을 믿고 그 재앙을 막기 위하여 문설주에 그려 붙였던 것이 바로 ‘삼두매’인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부적符籍으로도 민가에 널리 퍼지게 되어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눈에 뜨이고 있다. 세 개의 머리에 달린 여섯의 눈으로 매섭게 먹이를 쏘아보는 ‘삼두매’의 모습은, 단순히 ‘삼재’를 막아내는 기능을 넘어서 당시 고통받던 민중들 스스로의 힘을 대신하는 상징물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글·사진 / 편집인

권두 휘호



풀어 주는 이야기

오뉴월 나무숲, 그 푸른 잎의 우쭐한 기세도
구시월이면 결국은 낙엽되어 뿌리로 돌아가야 하는
자연(自然 · It is so of itself)의 떨림,
그것은 뉘에 의함이 아니라
스스로 여여(如如)함에
인간사(人間事)인들 그러함이 없으랴.



이영주

- 향토문화학교 제6기 입교.
- 홍제미술대전 입선 (1999)
- 양양 현산문화제 입선 (2000)

권두시

가을 호수

황금찬 / 시인

고향에 가을이 오면
나는 언제나
호수를 찾아가 가을을 보곤 했다.
고향 속초엔
두 개의 호수가 있었다.
남쪽에 있는 호수는
물빛이 좀 검고
수심이 좀 깊다
그래 청초호라 했고
북쪽으로 있는 호수는
물빛이 희고
수심이 얕았다.
영랑호라 했다.

가을은 같은 모습으로
두 개의 호수를 찾지 않았다.
영랑호는 물든 가을 잎으로 옷을 입지만
청초호는 퇴색된 주름을 안고 있었다.
가을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 호수들의 안부를 물곤 한다.
나는 두 호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를
고향 사람들의 삶에 변화로 보고 있다.
언젠가?
서울 광화문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다.
이 가을에도 두 개의 호수는
짙은 가을 색으로 물들어 간다고 -.



- 1918년 속초 태생
- 1947년부터 월간지 '새사람'에 시 발표 시작
- 1953년 '문예'에 추천 '현대문학'에 등단.
- 시집 '현장'의 29집 발행.
- 수필집 '행복과 불행사이' 등 17집 발행.
- 월탄 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한국기독교 문학상, 서울시 문화상, 대만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문화보관 훈장 등 다수 수상.

발간사

되어가는 것을 위한 새 지평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문화계로서는 올 한 해를 '지역 문화의 해'로 정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았던 일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원에서도 상응하는 노력으로 '있음'과 '있어야 함'을 위해서 노력은 경주한 각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실향민의 정착으로 유입된 '북청사자놀음'의 디오라마diorama관 개관과 6·25전쟁 발발 50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를 늦게나마 펴낸 점은 '지역문화의 해'에 걸맞는 한 가지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의 해' 요체는 내 고장 알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국사와 신흥사로 예로 어느 사찰을 더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만치 내 고장 알기에 모자람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될 터입니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화의 첫걸음은 내 고장을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만인이 야만인이며, 문명인이 문명인인 것은 그의 태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여하고 있는 문화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 척도가 되는 것은 그 곳에 번영하는 문화와 예술로 평가되며 마련으로 바로 그 고장이 가지는 특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울러 얼마나 문화와 예술이 그 사회를 지배 하느냐에 따라 향수 향유함으로 문화도시, 예향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되어있는 것being' 보다는 '되어가는것becoming' 즉 있어야 함을 추구하는 새 지평을 향해서 들무새를 갖추어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충실한 문화의 전령으로서 새로운 지평에 서서 새 천년의 출발점에서 각오를 다짐하면서 발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特特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관광 도시 속초 Sokcho

이름 : 해오미

해오미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자연을 모체로

- ▶ 속초 관광자원인 청정자연을 녹색으로 표현하였으며
- ▶ 특산물인 오징어를 간접적으로 표현
- ▶ 머리는 설악산과 그 끝자락의 바다 이미지를 차용, 솟구치는 파도는 속초의 진취적 발전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일출을 상징하고
- ▶ 얼굴은 자연과 같은 때문지 않은 동심을 친근하고 자유로운 표정 변화와 다양한 테마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해가 떠오르는 속초의 강렬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속초의 이미지 구현



회	노	애	락	의문	사랑
걸기	뛰기	날기	앉아있기	점프	
환영1	환영2	환송1	환송2		
CI적용1	CI적용2	교육	속초경제	시정안내	
해수욕안내1	해수욕안내2	화장실안내	시청안내	관광안내1	관광안내2

속초시가

$\text{♩}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기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해 며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벽 잠깨 이 어

3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에 펼 치
천 - 불 동 꿀 - 짜 기에 흰 구름 몸 을 묻
이 슬 것 은 발 - 길 로 바 닷 가 거 넌 어 라

mp

정 성 파 보 - 랍 으로 다 저 은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 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아래 제 일 이 라
상 - 하 다 우 리 넋 이 그 - 육 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뮤 인 배 가 대 양 으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젓 - 자 산 으로 바다향 - 해

f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영북 3대 준령峻嶺의 산악미

彌矢嶺
미사령

글/편집부



최남민

- <천의 자태 설악산> 지은이
-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속초예총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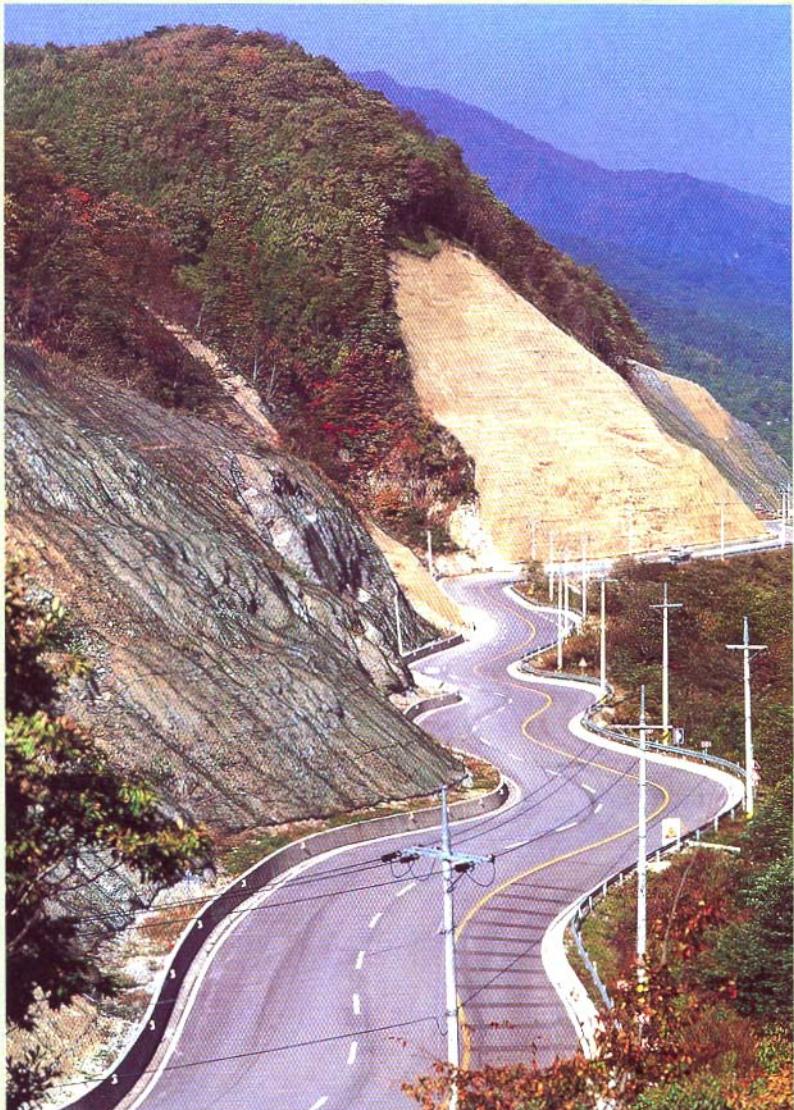
속초의 도로 표지판은 미시령으로 통한다

속초와 인제군 사이에 있는 해발 767m의 고개로 '여수파령' · '미시파령'이라고도 한다. 한때 폐하여졌으나 조선시대 성종成宗 24년(1493)에 양양의 '소동라령(지금 한계령)'이 험하여 그 통로를 폐하게 되자 다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의 관광 도로가 개통된 때는 1989년 6월 17일이다.

《속초 문화》 제16호 (2000년) 69쪽 참조.

영북 3대 준령峻嶺의 산악미

陳富嶺
진부령



백두대간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고개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간성읍 사이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고개로 해발 625m 높이에 길이 60km에 이른다. 이 고개를 넘으면 건봉사·화진포 등 동해안 명승지들이 펼쳐진다.

그러나 통일 전망대 앞에 짐짓 발길을 멈추어야 하는 허리 잘린 백두대간의 비극이여, 6.70년대만 하더라도 영북 지방에서 영서 지방을 넘는 유일한 고개이었다.

영북 3대 준령峻嶺의 산악미

한계령
한계령
한계령



영북 지방의 세 고개 중 제일 높다.

양양과 인제 사이에 있어 인제의 내설악과 오색 남설악을 연결하는 해발 935m의 고개로 설악산 주봉 '대청봉'을 오르는 등정길 중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마의 태자'의 전설을 품고 있는 빼어난 준령으로 영북 지방의 세 고개 중에 제일 높다.

현재의 관광 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1년 12월 27일의 일이다.

『속초 문화』 제16호 (2000년) 69~70쪽 참조.



속초 장치기 옛터

글 · 박영도 (이사 · 편집인)
사진 · 노광복 (부원장 소장)

장치기¹⁾는 공치기 운동의 한 가지 놀이로 편을 이루어 양편 각각 10명의 사람들이 공채²⁾를 가지고 장치기공³⁾을 쳐서 서로 한정한 금 밖으로 내보내기를 겨루는 경기로 '공치기'라고도 한다.

속초에서의 장치기는 1930년대까지 성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에 의해 금지되어 그 맥이 끊겼다. 일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면, 더욱 한국적인 것이라면 맥을 끊기에 혈안이 되었던 때이다.

속초에서 장치기터는 지금 공설 운동장 오거리, 우렁골 들머리 지역으로 낮은 산이 마주 보았던 우뚝한 지역은 지금도 예나 다름 없지만 당시는 장치기의 최적지였다고 한다.

바라건대 설악 문화제가 고장의 뛰어난 전통 민속 놀이의 재현을 위해 주목한다면 이를 권장하는 육성책을 펼칠 것을 기회에 제기提起해 봄이다.

1) 끌이 좀 구붓한 막대기로 하키채와 비슷한 형태

2) 나무로 둥글게 만듦.

사진 (위) 공설 운동장 오거리. (아래) 우렁골 들머리 장치기 터.





글·박영도 (이사·편집인)
사진·노광복 (부원장 소장)

역사(驛舍)를 찾아서



역사 동해 북부선은 북평~강릉 사이를 잇는 철도선을 말하지만 '63년 5월 철암, 영암, 황지 본선을 한데 묶어 영동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남북 분단 전에는 함남 안면에서 양양 사이를 잇던 208km의 철도선으로 1937년 12월 1일 양양까지 완전 개통되었다. 원래 경원선의 안면에서 동해안을 따라 포항까지 연장하고 동해 남부선과 접속해 부산까지 직접 연결시킬 계획으로 착수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8·15광복 후 남북 분단으로 완공되지 못하였다.

6·25 동란 후 휴전선에서 양양까지의 철도는 철거되었다.

지금 동명동 '코리아장'이 자리한 곳이 바로 속초역사이었으며 그 뒤로 중앙동에서 영랑동까지 있는 도로가 철길이었다.

남북 교류 협력으로 동해 북부선의 복원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사진 (위) 속초역사. (아래) 1) 옛 역사에 자리한 코리아장 2) 중앙동으로 이어진 철길.

제36회 설악문화제

- 기간 : 2001년 10월 12일(금) ~ 10월 14일(일)
- 장소 :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이벤트장, 설악산 일원



설악문화제의 기원과 약사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을 변화 발전시킨 향토축제로,
고대의 제천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金富軾의 三國史記 卷 32 雜志 第 1 祭祀條 三山五岳 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小祀... 霜岳守城郡...)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기록은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이며,
삼국통일 기원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설악문화제가 현재의 향토축제로 되살아난 것은,
1966년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이고
제17회 설악제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었고,
제24회 민간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1996년도에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문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여 현재에 이른다.



제36회 설악문화제

SEORAK CULTURE FESTIVAL



설악이여! 내 다시오리니

북녘에서 설악으로 번지는 단풍이 그 절정을 이루는 시월 상달 중순(10월 12~14)에
사흘 일정으로 청초호 유원지와 설악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속초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리는 서른여섯 번째 마당으로 무르익었다.
속초 문화의 색깔은 바로 산악과 해양, 북한 문화가 바탕색이랄 터이다.
여기에서 서사와 담론이 탄생될 때 참으로 속초만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할 터
- 관광 문화로 거듭 이어지는 향토 축제를 창출하기 위해
통일 염원 제전, 설악 산악 제전, 해양 문화 제전, 설악 예술 축전이 제례의식을 필두로
크게 여덟 개 부분으로 예순 여덟 종목이 다채롭게 이 고장 시월을 익혔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내 고장 익히기에 주목되는 통일 염원의 밤, 범선 노젓기,
오징어 할복 등과 함께 이번 축제에서 선보인 '갯배 끌기' 같은 종목은
주목 받을 만큼 향토적인 정서를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욱 이 고장에 숨겨진 향토놀이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고민이 필수 관건이랄 수 있으며,
속초 관광의 지평을 여는 진보의 발걸음일 것이다.
이럴 때 단풍 효과와 함께 관광 속초의 효를 이룰 수 있을 터이다.

Since 1988
두산교육센터



속초 두산 교육 센터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두산 교육 센터는 1988년 이래
교육의 역사적 전통과
최대원생의 배출, 교육의 다양한 모델과 방법 제시,
또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 허춘권 -

두산교육입시 · 두산교육속셈 · 속초간호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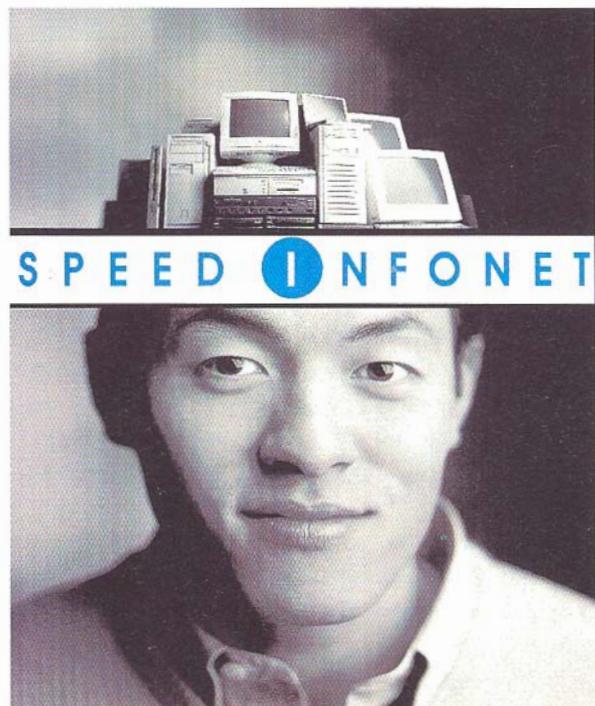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교동 908-10, 11번지
☎ 033) 635-5767, 636-5767

정보화, e-비즈니스의
모든 기반

IT Infra Builder
- 스피드 정보네트

www.nspeed.net

Tel 033-636-6172 / Fax 635-7655



les natures mortes

Expo

Entrée unique : 1000 francs - Entrée gratuite : Musée Anatole-France

Exhibit

Entrance one : 1000 francs - Free entrance : Anatole-France

Exp

Entrée unique : 1000 francs - Entrée gratuite : Musée Anatole-France

HWANG, KYUNG-JA

THE SOLO EXHIBITION HWANG, KYUNG-JA

2001. 11. 10(토) ~ 11. 19(월)

초대일시 : 2001. 11. 10(토)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TEL : 033-631-1170

황경자 HWANG, KYUNG-JA

속초출생

95~97 디다전(경인미술관)

1997 한국미술 오늘의 현장전(조형갤러리)

1998 창작미술협회 공모전 입선(서울시립미술관)

1999 중앙미술 대상전 입선(호암갤러리)

밀레니엄 기수전(동아갤러리)

제1회 개인전(단성갤러리)

2000 새천년 미의식의 확산전(서울무역전시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관)

미술세계대상전 입선(세종문화회관)

Image peinture전(프랑스 파리 오니바갤러리)

산불재해 테마전(한국전업 미술가협회 순회전시) 서울, 강릉, 속초

2001 회상전(경인미술관)

생활미술 축제(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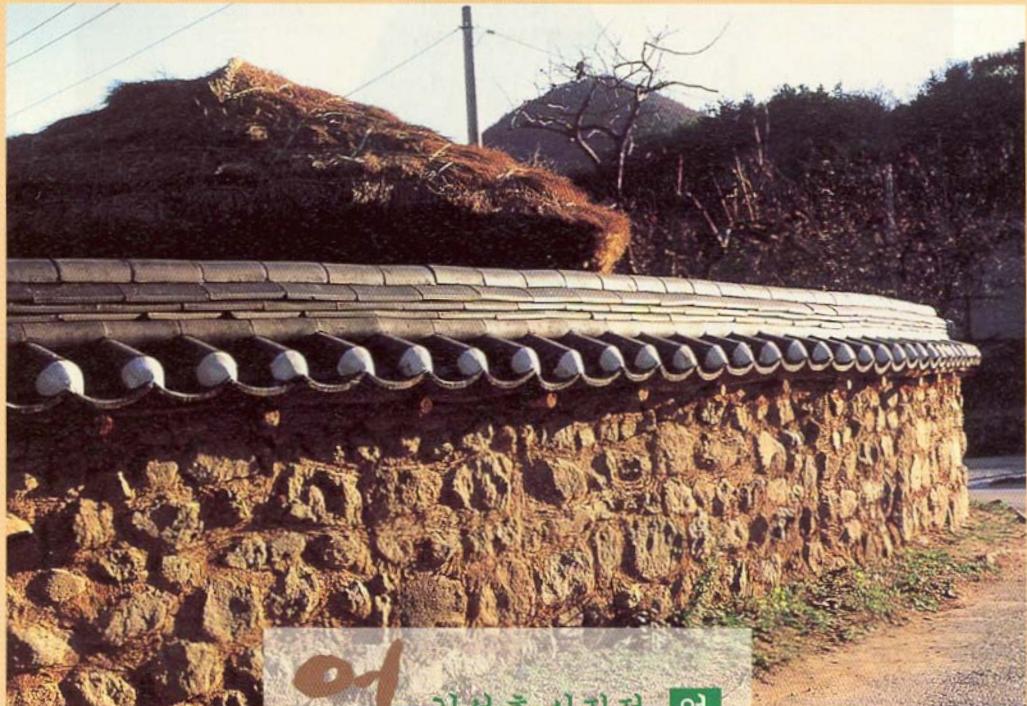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국립현대미술관)

제2회 개인전(속초문화회관)

현 재 한국전업작가회원 한국미술협회회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24-6 은성빌딩 6층

TEL : 459-1315 HP : 018-366-1315



여로

김성호 사진전 열

· 일시 : 2001년 11월 5일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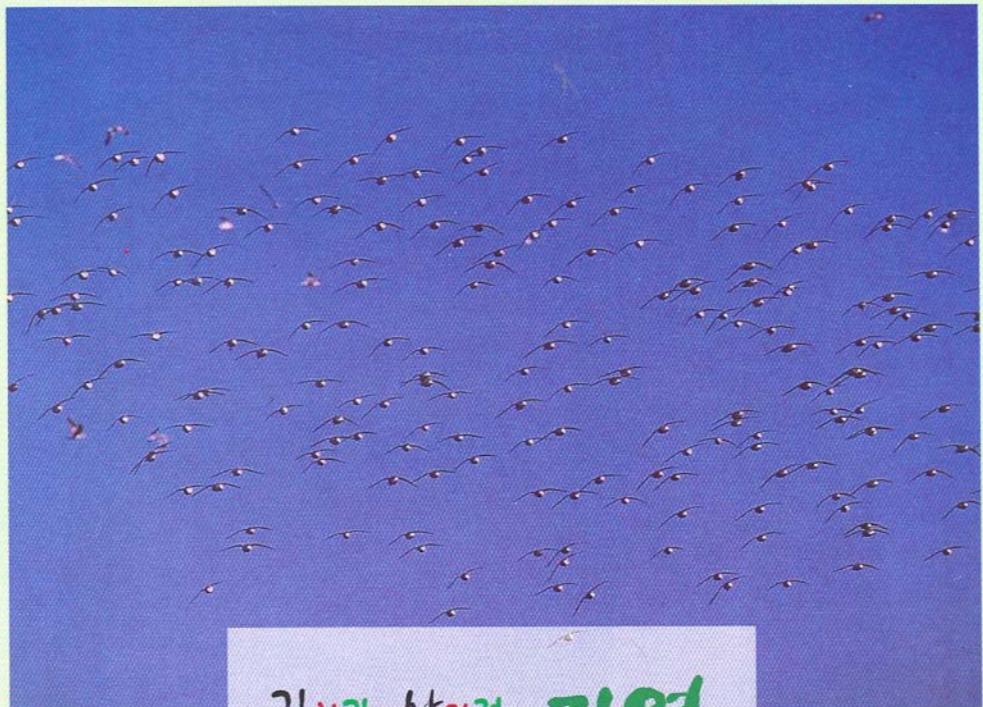
김 성 호

학력

- 1956 동광중학교 졸업
- 1961 삼척공고 졸업
- 1967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

- 1967. 3. 25 고성중고교사
서울대 사범대학 중등교사 양성소 수료
- 1970. 3. 1 속초여고 교사
- 1975. 3. 1 강원도 학생과학관 근무
- 1979. 3. 1 춘천 중학교 근무, 의원면직
- 1979. 9. 30 농기계 수리소 운영
- 1984. 11. 4 고성군 문화원 설립위원 및 초대 감사
현재 문화원 이사
- 2001 속초사진 동우회 운영 위원장
고성 사진 동우회 회장



자연과의
만남

김형관 사진전 자연

- 일시 : 2001년 11월 5일 ~ 7일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제2전시실
- 초대 : 2001. 11월 5일 오후 5시 30분



경력

속초사진동우회 총무
속초예총간사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회원

- 1956년 속초 출생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507-310
- TEL : 636-6561 / 017-371-1338

김형관

무대지원사업[국악]
겟마당 무료공연

3 소리날려 흘어지고

일시 : 2001년 11월 17일-(토) 저녁 7시

장소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문화관광부, 속초시
주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후원: (주)설악신문, 22세기 광고기획사

무대지원사업[국악]
겟마당 무료공연

2 소리날려 흘어지고

속초가 낳은 국제적인 풍물패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겟 마 당

www.getmadang.co.kr

2001 사진으로 / 보는

문화원 / 동정





2001년도 문화학교(제9기) 입교 2001년 3월 17일 문화사랑방

⑨ 217-010 속초시 영랑동 570-5
TEL : 632-1231 FAX : 632-1241

우리는 '빨리빨리' 와 '많이많이' 를 탐욕하는 사이에
버팀목이었던 지금까지의 정신적인 가치들이 기우뚱 기울어져 극히 황폐화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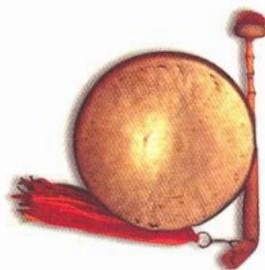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젊어가는 것을 찾아서 가꾸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에
본원은 '문화 사랑방' 을 통한 여가 선용의 활용으로 9년 동안 작지만 크게
전통 문화 전승과 향토 문화 발전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98년 문화 관광부로부터 한국 문화학교로 지정되면서 더욱 명실상부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함에 따라 본원은 새로운 지평에서 내 고장의 문화 전수의 책무를
'호시우행虎視牛行' 의 자세로 꾸준히 수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입교생 여러분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널리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 학교 장구 교실 고급반은 특히 지난 6월 8일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속초에 그 이름과 영예를 안겨 주어 본원으로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기예가 '일취월장日就月將' 하여 뜻을 성취함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명	요일 / 시간
장구교실 (초급)	월 · 목 / 10:00 ~ 12:00
장구교실 (고급)	목 / 13:00 ~ 15:00
서예교실	화 · 금 / 09:30 ~ 11:30
사군자교실	금 / 11:30 ~ 13:30
노래교실	화 · 금 / 14:00 ~ 16:00
꽃꽂이교실	수 / 10:30 ~ 12:30
전통요리교실	토 / 10:00 ~ 12:00

祝



장구·고급반



장구·초급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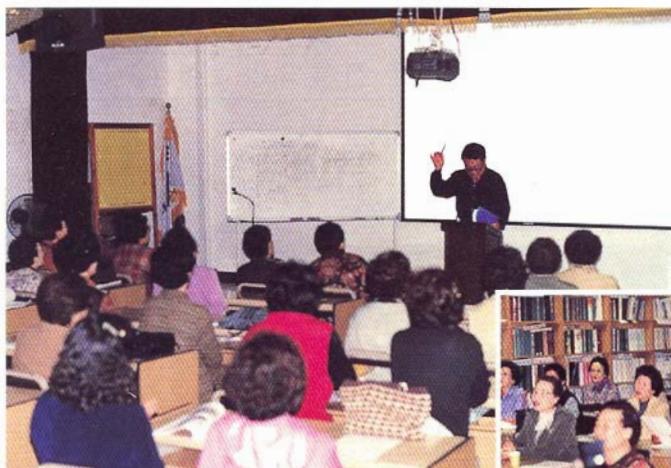
한국문화학교



한국문화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노래교실

오라
나의 노래여
미움일랑
내던져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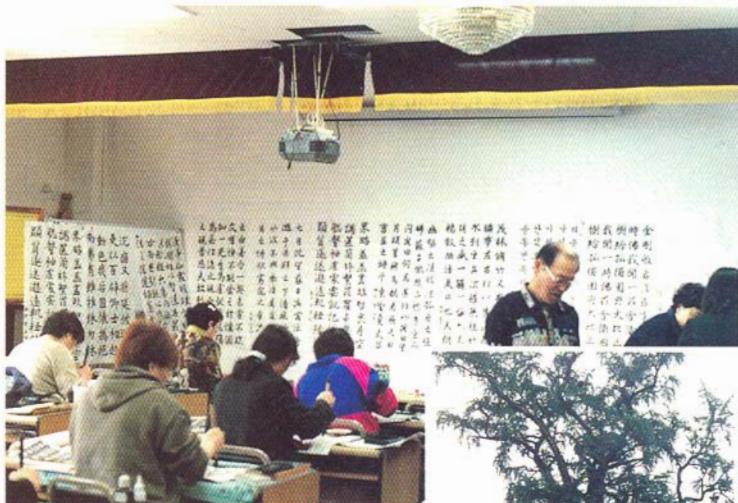


꽃꽂이교실

꽃과 초목의
만남을 아우르는
조화.



속초문화원 한국문화학교



서예 교실

붓은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신이다.

서예 교실 가족
경기도 양평
용문사 나들이.
1100년 수령의
온행나무를 뒤로.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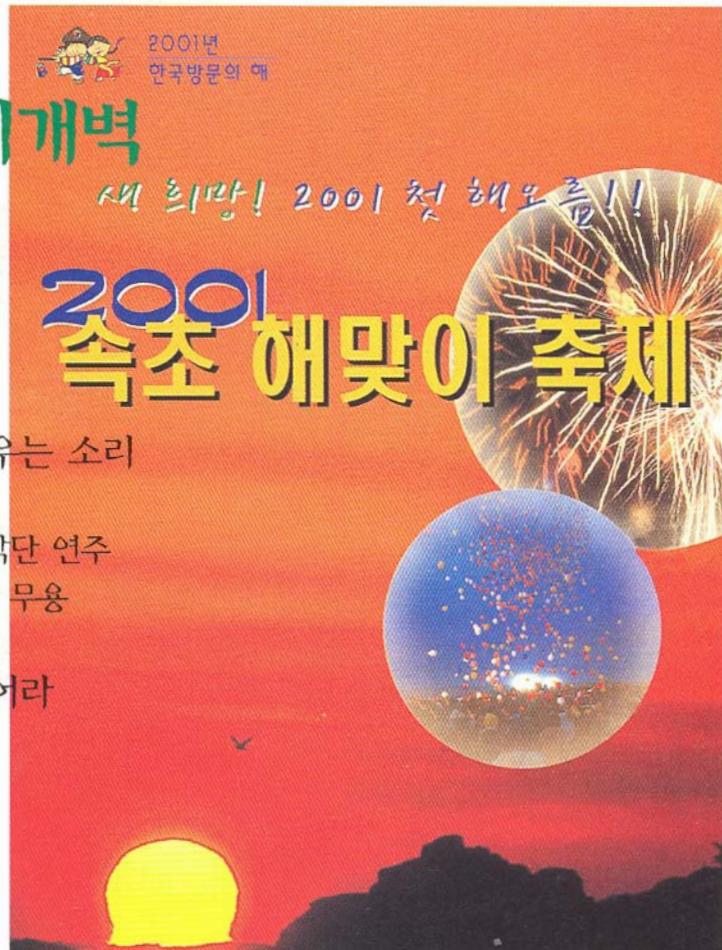


요리 교실

아름다운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녁을 짓고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정경은 없다.

한국관광의 해
한국방문의 해

새 희망! 천지개벽



- 새벽을 깨우는 소리
 - 사물놀이
 - 국악 관현악단 연주
 - 전통무용단 무용

- 하늘을 열어라
 - 레이저 쇼
 - 불꽃놀이

속초 팔경八景을 아시나요

- 영랑호의 범바위
- 영금정의 속초등대전망대
-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 청초호
- 대포의 외옹치
- 내물치의 설악해맞이공원
- 청대리의 청대산
- 상도문의 학무정



일시 : 2001. 1. 1 (월) 06:00 장소 : 속초 해수욕장 주최 :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육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맞는 신사년



속초의 국제적인 풍물페 '갯마당'의 새알을 깨는 북소리



제21회 칭월대보름 맛이 민속놀이 한마당

2001. 2. 7 15:00 ~ 18:00

엑스포행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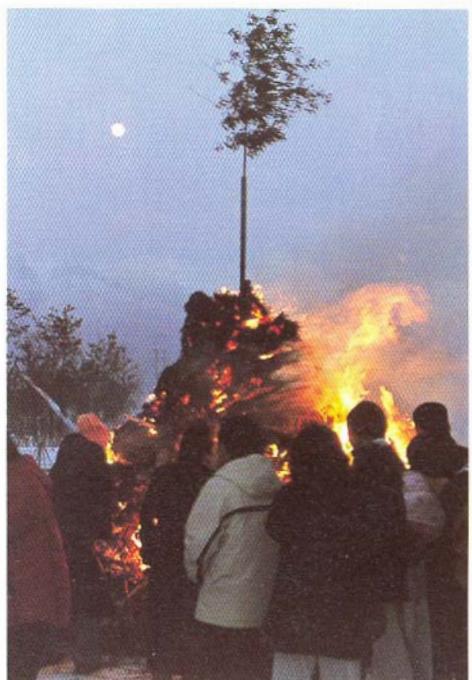
주최 : 속초문화원

주관 : 농협, 새마을금고 연합회, 수협, 신협(속초), 축협, 보광사
풍물패 갯마당

후원 : 속초시, 강원도 속초교육청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여
멀리 비춰 주소서.
어긔야 아강도리 아흐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아! 진 곳을 디딜까 걱정이옵니다.
어긔야 어강도리 아흐 다롱디리.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소서
내 가는 데 저물까 걱정이옵니다.
어긔야 어강도리 아흐 다롱디리.



하늘에 마음을 날려
무한과 영원을

연 鶯

Kite



1978년부터 그사이 연하여 매년 정월 보름날의 빠질 수 없는 민속놀이.



제21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윷, 장기, 제기, 연, 널뛰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남녀 노소가 함께 아우르는
마당의 흥겨움에 주위도 녹는다





투호 · 널뛰기 · 먹을 거리





제6회
설악 눈꽃축제

설악의 설경이 펼쳐지는
설악산과 속초시 일원에서
가족단위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관광이벤트 한마당!



행사명	2001년 제6회 설악눈꽃축제
일 시	2001. 1. 18(목) ~ 1. 21(일) 4일간
장 소	설악산 일원 (종합경기장, 설악산일원)
주 제	설악산에서 느껴보는 순백의 사랑 그리고 희망의 21세기를…
부 제	떠나봅시다. 겨울여행은 눈꽃이 있는 설악에서…
주요행사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축하공연, 메인이벤트, 참가축전, 문화축전,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주 최	설악눈꽃축제 위원회
협 찬	(주) 진로
후 원	문화관광부, 강원도, 속초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한국관광공사,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KBS속초방송국, 강릉문화방송(주), 설악신문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사랑이로세 속초의 자랑이로세



대상 수상

속초문화원
주부 풍물패

2001년 6월 8일
횡성군 종합운동장

전국 문화원 연합회 강원도 지회(지회장 · 李大根)가 주관한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6월 8일 횡성군 종합 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15개 문화원 풍물패가 출전 열띤 경연에서 본원의 풍물패(대표 · 한명옥)가
대상(강원도지사상)을 차지했다.

2000년 제5회 최우수상에 이은 강원도 풍물패의
정상에 우뚝 솟은 모습이 자랑스럽다.
국제적인 풍물패 '갯마당'에 이은 또 하나의 풍물패의 탄생을 보았다.

사진 / 경연에서의 연주 모습과 시상식.

풍물치는 여인들

주부 풍물패 7인]



한명옥



장금옥



이미성



김경선



강복희



이정옥



전추자

2001

속초해양페스티벌

2001년 7월 23~26일, 동해의 빛 속초!
그 환희의 세상속으로 오십시오.



숨겨진 속초의 비경
속초 8경도 찾아보세요.



• 영금정의 속초등대전망대



• 영랑호 범바위



• 상도문의 학무정



• 대포의 외옹치



• 청초호와 엑스포타워



• 청대산에서 본 시가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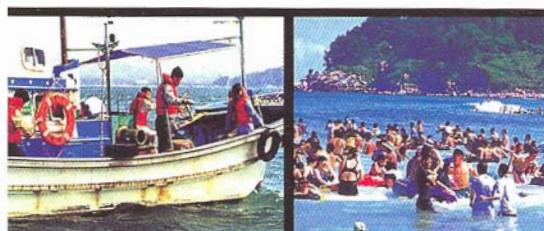
•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 내물치의 설악해맞이공원



장소: 속초시 청초오유원지 및 속초해수욕장~시내일원
주최: 속초시
주관: 속초문화원·언론사·민간단체
후원: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강원도,
한국관광공사·KBS속초방송국·MBC속초지사,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설악신문





조개파기 한마당



주최 /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2001년 7월 23일 ~ 26일
속초해수욕장 (속초 팔경)

설악문화제 유혹으로
미시령을 넘어
속초에 갔어
트인 바다는
낭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어
체험 하나 - 조개파기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어
밀리는 파도를 타며
때로는 짭조름한
바닷물을 먹어 가며
모래에 숨은 조개를 캐는
재미는 짜릿한 체험이었어

Live Festival

Rock

樂

사물놀이 “삼도풍물굿”
외북놀이 “외북신아위”



보듬북산조 “동해풀”
Dance Festival



제6회 시민큰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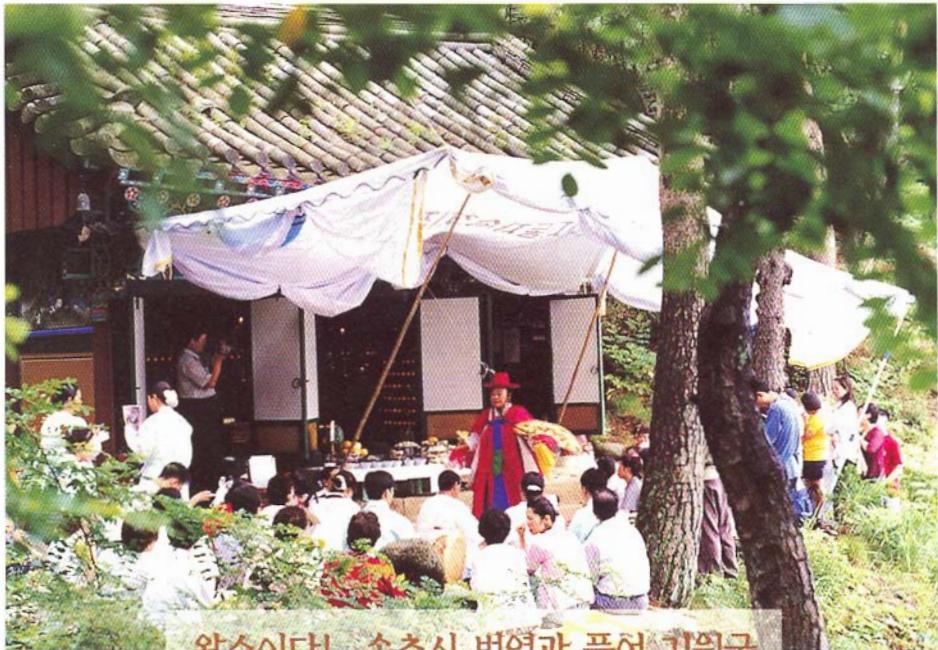
2001년 7월 27일

속초시 해수욕장 상설무대

속초시, 속초문화원
갓마당

설악금호리조트
켄싱턴 호텔





왔소이다! 속초시 번영과 풍어 기원굿

경기도당굿보존회에서는 2001년을 “찾아가는 도당굿, 함께하는 도당굿”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원외 지역 및 전국을 상대로 도당굿을 함께 보고, 느끼는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중에 있으며 이미 전북 완주군 모악산 대원사,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등에서 공연을 가져 많은 박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보광사에서 펼쳐진 도당굿 한마당은 속초시의 번영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이루어져 많은 속초시민들과 한마당 공동체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오수복(여, 78세, 경기도다웃 예능보유자)
- 안재숙(여, 41세, 악사, 전수생)
- 김현숙(여, 38세, 악사, 전수생)
- 황영길(남, 33세, 악사, 전수생)
- 변남섭(남, 32세, 악사, 전수생)
- 김순덕(여, 64세, 무녀, 이수자)
- 조광현(61세, 무녀, 이수자)
- 승경숙(여, 48세, 무녀, 이수자)
- 하주성(남, 52세, 보존회사무처장, 인솔)
- 김현주(여, 42세, 악사, 전수생)
- 목진호(남, 33세, 악사, 전수생)
- 김철기(남, 33세, 악사, 전수생)
- 박연식(남, 27세, 악사, 전수생)
- 김운심(여, 61세, 무녀, 이수자)
- 소명자(여, 58세, 무녀, 이수자)
- 김경진(여, 39세, 무녀, 이수자)

2001년 경기도당굿 순회공연

일 시 : 2001. 7. 29 (11:00~15:00)

장소 : 보광사 경내

주최 : 속초문화원

주관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 경기도당굿보존회

후원 : 보광사 · 문예진흥원



2001 강원도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2001년 8월 6일 ~ 11일 (5박 6일)

속초문화원 주최 / 속초시 후원

우리음악(풍물)에 관심이 있는 도내 초·중·고생
강원도내 초·중·고생 100명(각 강좌당 20명)

강사진

정철기 - 국악협회 농악분과 부위원장

강원대 무용과 강사

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회원

이명준 - 민속학자, 전통민속문화연구소장

최태수 - 상명대학교 철학과 강사

박현기 - 놀이패 “어울림” 사무국장

민족무예24반 “경당” 동해지부장

주동진 - 갯마당 기획단장

박치영 - 갯마당 공연팀장

전성호 - 갯마당 기획단원

김태희 - 갯마당 기획단원

김동연 - 갯마당 기획단원

김주영 - 갯마당 기획단원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일정

행사진행 기간 : 19:00~22:00

7월

	1회	2회	3회
7월	7.14(토)	7.21(토)	7.28(토)

8월

	4회	5회	6회	7회
8월	8.4(토)	8.11(토)	8.18(토)	8.25(토)

9월

	8회	9회
9월	9.8(토)	9.22(토)

10월

	10회	11회
10월	10.6(토)	10.20(토)



주최 :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행사기간 : 7월 14일 ~ 10월 20일

행사시간 : 오후 7시 ~ 10시

행사장소 :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

※ 실내악 연주 (리코더 앙상블 40분 공연)

2회 (7.28, 8.11)

▶ 교사 리코더 앙상블 연주 (리코더 협주를 위한 두 개의 미뉴엣 W.A 모차르트 외 3곡)

▶ 어린이 합주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W.A모차르트 외 2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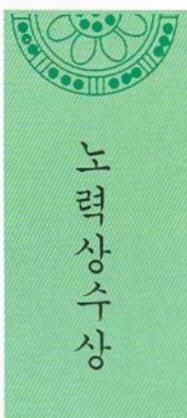
▶ 4중주(노래의 날개 위에 F.멘델스존 외 2곡 - 박순미, 남경아, 김은미, 최미영)

▶ 전체합주(오빠생각 류덕희 편곡 외 3곡)



속초 도리원 농악

속초시 출연작품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2001. 9. 20 ~ 21 화천종합운동장



출연부문 : 농악부문

출연인원 : 47명

고증

- 엄상원(82세, 속초시 노학동 - 도리원농악 상쇠)
- 양언석(관동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연출

- 엄상원 (도리원농악 상쇠)
- 주동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기획단장)



속초 도리원농악의 유래

도리원은 설악산 산자락 끝에 넓은 들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다. 행정구역상 노학동에 소재한 이 마을은 예로부터 농업(벼농사)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농악이 성행했었다.

주로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성황굿과 마을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두달여에 걸쳐 결립을 다녔다고 한다. 일정시기에는 마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결립을 위한 전문결립패를 조직 할 정도로 농악놀이가 왕성했으며 마을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농악 전수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엄상원(82세, 도리원 거주)상쇠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는 도리원 출생으로 상벽구이던 아버지를 따라 무동으로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설기와 최정수로부터 농악을 배우고 20세때 상쇠가 되었다.

출연진

기수 : 권중빈, 오재현, 남성우 / **쇠** : 엄상원, 박치영, 주동진, 박현기

정 : 김성현, 김영균, 최익준, 함지탁 / **장구** : 전성호, 유영순, 김향자, 이향하, 심진영, 김용선

북 : 최수미, 장윤정, 김은정, 김미경, 최태영, 이세진

소고 : 김동연, 김태희, 김주영, 이정선, 김태훈, 임효건, 김국종, 신우근, 전형준, 신승태

무동 : 이재선, 이준표, 정호열, 조성현, 김태경, 이남광, 이장원, 장효빈, 김동주, 김승률

잡색 : 성준옥, 이영희, 최택수 / **새날** : 강영구

도리원 농악 엄상원 상쇠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

expo
about WOCEK

세계 도자기 엑스포

World Ceramic 2001 Korea

문화 유적지 답사 · 도자기 EXPO 관람

2001년 10월 9일 ~ 10 · 1박 2일
경기도 여주 · 이천 · 광주 · 세종대왕 영릉

속초 문화원 문화가족 80여명이 노광복 부원장, 한정규 사무국장 인솔로
10월 9~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세계 도자기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주 · 이천 · 광주 등과 함께 마침 10월 9일은
세종대왕 한글 반포(세종 28년 1446) 555돌이 되는 날이어서
여주 능서면에 있는 영릉(英陵 소현왕후(昭憲王后)를 같이 모심)을 참배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유익하였다.

그러나 궂은 날씨 탓으로 제대로 답사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답사길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엑스포 현장에서의 문화 가족 일행

제36회 설악문화제



제6회 강원도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2001. 10. 13 EXPO 특설무대

시상내역

- 대상 - 원주농업고등학교 (강원도지사상)
장원 - 초등부 : 원주태장초등학교 (강원일보사사장상)
중·고등부 : 원주두드리 (강원도교육감)
차상 - 초등부 : 춘천 송화초등학교 (속초시장상)
중·고등부 : 원주여자고등학교 (")
차하 - 초등부 : 인제 용대초등학교 (속초시교육장상)
중·고등부 : 춘천여자중학교 (")
특별상 - 초등부 : 속초초등학교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중·고등부 : 춘천강원중학교 (")
장려상 - 초등부 : 양구초등학교 (속초문화원장상)
중·고등부 : 태백장성여자고등학교 (")
속초여자고등학교 (")
지도자상 - 원주농공업고등학교 이승명 (강원도 교육감상)

제6회 강원도 청소년 풍물



참가단체 : 강원도내 초·중·고교 30개팀
겨루기 진행

참가자격 : 초·중·고교생
초등부, 중·고등부로 경연
경연추첨으로 순번결정
심사후 축하공연



북청 사자北青獅子놀음 디오라마관 개관 2000년 12월 · 향토 사료 전시관

함경남도 북청 일대에서 정월 보름경에 사자(獅子)로 가장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춤을 추어 잡귀를 쫓는 민속 놀이 '북청 사자놀음(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을 속초 향토 사료 전시관에 '대오라마diorama'로 연출 전시하였다.

이는 북한 실향민들의 이곳에 대거 정착으로 유입된 북한 문화 전승의 좋은 본보기의 하나이다.

이 놀이 첫번째 마당에서 불리는 함경도 민요의 사설(辭設) 애원성(哀怨聲)으로 서민의 애끓는 애조(哀調)가 절절이 스며 있다.

술 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 없는 천지엔 영웅도 우노라. 에~ 얼시 좋다. 얼널널 너리고 상사듸야.

살살 바람에 달빛은 밝아도 그리는 마음은 어제가 오늘이라. 에~ 얼시 좋다. 얼널널 너리고 상사듸야.

연출 면적 / 평면 12.3×2.36m 배경화 / 12.3×2.83m

연출 내용 / 마당놀이, 사자놀이 마당으로 꾸며진 연출 구성으로 등장 인물, 탈, 의상, 소도구 등을 놀이 모습으로 공간에 입체화.

전시 내용 / 등장 인물 - 길잡이, 양반, 꼭쇠('구두쇠'의 방언), 애원성 2, 거사 2, 사당 2, 무동 2, 넋두리 춤 4, 칼춤 2, 사자 2

중요 무형 문화재
제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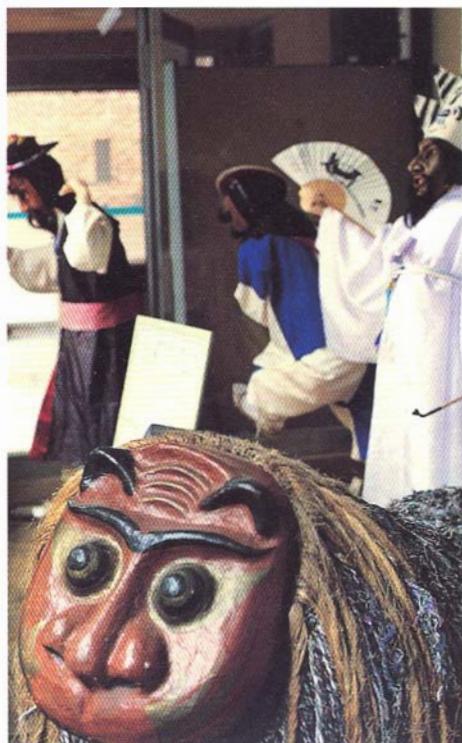


사진 / (위) 양반 · 꼭쇠 · 길잡이 · 사자춤

(아래) 사당춤(속초문화원 홈페이지를 찾으면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음)



설악문화제 雪嶽文化祭
SEORAK CULTURE FESTIVAL



설악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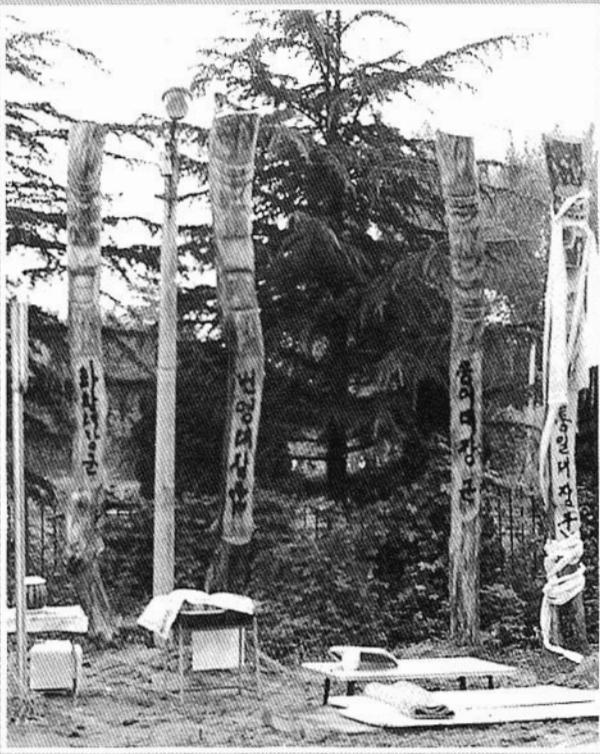
character



설악문화제
SEORAK CULTURAL FESTIVAL

심벌마크

symbol mark



기획특집

속초와 군정(1951.8 ~ 1954.11)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김 귀 옥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속초 사람들은 ‘군정’ 하면 당시 이형근 제1군단장이나 ‘이형근공화국’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한다. 물론 당시 군정 사령관이 이형근 제1군단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정이 대한민국의 관할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군정의 기본 성격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군정의 통치권은 유엔군에게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자 이승만정권은 속초를 비롯한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도록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벌이게 된다.

1. 머리말

속초에서 1950년대부터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원주민이건 이주민이건 상관없이, 기억의 저편에 있던 ‘군정’ 시절을 얘기하는 것을 들게 된다. 군정시절 이형근장군과 그의 미녀부인 이야기, 그가 부월리, 조양동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 몰래 나온 미군 물자가 중앙동이며 영랑동 시장에 가득찼다는 이야기 등등, 그 시절을 회고하는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다.

필자는 1996년 9월, 속초와 청호동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월남 실향민들과 만나는 과정¹⁾에서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가 바로 ‘군정’ 이야기였다. 속초에 오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군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즉 1945년 8·15 해방되고 나서 3년간 38선 이남에서 실시된 미군정과 1950년 10월 유엔군과 국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 잠시 실시한 50여일간의 미군정. 그런데 속초에 군정이라니?

속초 월남 이주민 연구차 왔다가 한국 현대사

1) 1996년 9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속초에 머물면서 월남이주민과 원주민 80여명을 만나 심층면접, 생애사 구술 등을 토대로 하여 박사학위논문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 월남인을 중심으로”(서울대, 1999.2)를 제출하였고 다시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서울대출판부, 1999) 단행권으로 출간하였다.

에서 잊어버린 중요한 역사와 만나게 된 것이다.²⁾ 다시 말해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국이 왜 벽지인 양양군과 속초에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군정의 실체 및 운영체계와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게 되는가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정 실시의 이유 및 군정의 실체, 운영 체계 및 내용 등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그 군정이 현대 속초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2. 군정은 왜 탄생하게 되었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속초는 무시하지 못할 존재였다. 동해안 최대 관광도시이면서 21세기 통일 시대를 맞아 남북을 연결할 항구이자, 시베리아 등으로 빠져갈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만 해도 속초는 보잘 것 없는 지역에 불과했다. 일제 시대 초 현재 대포동에 도천면이 세워졌고 1937년에 속초리에 면 소재지를 옮겨 속초면으로 개칭했다. 1942년 속초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³⁾ 1945년 8·15 이후에는 잠시 면으로 격하되다가 1951년 8월 유엔군 관할이 된 이후 다시 속초읍이 되었고 1963년 강원도에서는 네번째로 '읍'으로 승격되는 변천사를 갖고 있다.⁴⁾ 아마 속초가 강원도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을 '군정'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럼 우선 양양군과 속초에 왜 군정이 실시되

게 되었던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51년 8월 군정이 시작되던 당시 유엔군이 점령한 38이북 지역은 강원도의 양양군과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춘성군과 경기도 2개 군의 연천군과 북포천군 등이다. 그 지역들 가운데 강원도 북양양군에만 군정이 실시되어 민간 인들도 거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그 지역에만 군정을 실시했던 것일까? 보다 구체적인 군정 실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952년 속초와 38선 이북 양양군을 방문했던 첨보원 오스본(J. Osborne)이 작성한 보고서⁵⁾를 미국 국무부로 보냈던 주한미대사관의 입장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지역이 많은 정보 실험과 교육 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곳을 계속해서 공백지역으로 내버려 두는 상태에 대해 의문시한다. 물론 그 곳은 (철의) 장막이 몇 마일 뒤 밀리게 될 러시아제국의 주변부에 속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행정 연구와 공산주의 지역의 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밀줄은 글쓴이 주).⁶⁾

위에서 알 수 있는 점령과 통치의 목적은 한마디로 각종의 '실험'이다. 즉 주한 미군은 그 지역에 대해 정보 실험과 교육 실험, 공산주의 행정 연구, 공산주의 지역 재건 등을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아래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이 지역은 미국이 처음 점령

2) 이러한 문제 의식을 담은 글은 출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 (『경제와 사회』, 2000 여름호, 46호)임.

3)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邑勢一覽』, 속초읍사무소, 1955.

4) 홍경희, 『도시지리학』, 법문사, 1981, 98쪽.

5) J. Osborne, "Field Report on Yangyang Gun, North Korea", Liaison Officer, USIS, 1951, pp.196-222.

했던 사회주의 영토였다. 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인 것은 향후 확대될 사회주의 점령 지역을 미국화, 자본주의화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삼았던 의도가 있었음을 이 보고서의 전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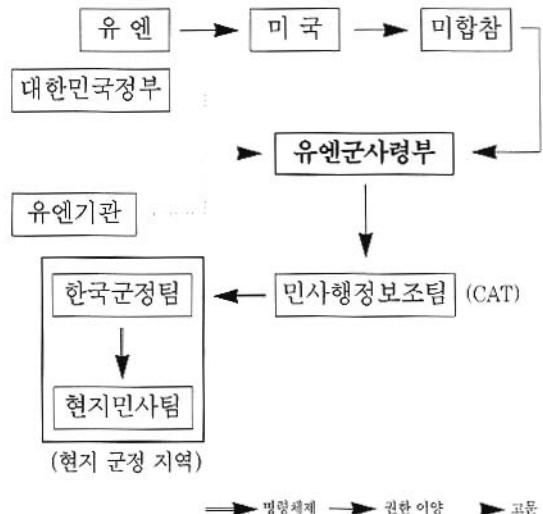
오스본이 작성한 전문에는 속초와 북양양군을 돌아다니며 그가 수집한 인구 통계, 민정 체계, 조직 및 사회단체, 세금 수납 상황, 민간 시설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은 1952년 당시의 속초와 38이북 양양군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이 자료에는 인명이나 사실 관계 설명에서 잘못된 것이나 군정의 실체 부분이 생략된 치명적인 오류는 있다. 아마 이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3. 군정은 어떻게 운영되었던가

속초 사람들은 ‘군정’ 하면 당시 이형근 제1군단장이나 ‘이형근공화국’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한다. 물론 당시 군정 사령관이 이형근 제1군단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정이 대한민국의 관할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군정의 기본 성격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군정의 통치권은 유엔군에게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자 이승만정권은 속초를 비롯한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도록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 유엔군 관할 하의 군정의 통치 체계⁷⁾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당시 구정 통치구조



군정의 최종결정권, 통치권 또는 행정권은 유엔군 총사령부에게 있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 내 민사행정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군정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했다. 다만, CAT는 현지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국군 군정팀에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고문역을 담당하여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정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군단 군정사령부이었다. 군정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행정집행한 것은 현지민사팀, 양양군수(군 민정관), 읍장(읍민정관) 등이었다.⁸⁾ 그 밑에는 읍, 면장 밑에는 구장과 치안대나 국민회, 대한청

6) Amembassy of Pusan, "Conditions in Area of Norea Korea Now Held by ROK(주한미군대사관이 미국무부에 보내는 비공개 문서)," 1952.

7) 한국전쟁시기 미군정 연구가 부족한 사정에서 북양군의 군정체계를 제대로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그림은 라종일의 「한국전쟁 당시 군정 통치구조 그림을 바탕으로 북양군 현지 군정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라종일, “북한통치의 반성 - 1950년 가을”,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 1997.

8) 이것은 1952년 당시 제1군단 민사처장 오천덕의 증언에 따른 것임

년단, 대한부인회, 여러 기구가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지민사팀’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일을 주로 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는 어떤 관계인가? 우선 속초 토박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민사팀은 북양양군 군정사령부가 인정한 지방정권으로서 대개 1950년 이전 38 선 이남으로 월남하였다가 1950년 10월 UN 군이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들어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 후 소위 ‘1·4후퇴’인 1950년 12월 이후, UN군이 북한 지역을 총퇴각할 때 그들은 군과 함께 남하하였다. 1951년 6월 이후 남측이 재점령할 때 그들도 북양양군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대개 치안대와 대한청년단⁹⁾, 대한부인회, 국민회 등의 간부로 출발했다. 군정치하 속초읍 여러 계장들 역시 대개 점령 초기 대한청년단 간부였다.

다음은 현지민사팀의 역할을 살펴보자. 우선 1950년 10월 1차 점령때나 1951년 점령초기에는 공산주의자나 그 가족들을 색출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당시 어떤 대한청년단 간부의 증언을 들어보자.

아군 후퇴시 한청도 포항까지 후퇴했다가 1951년 8월 속초가 수복된 후 우리도 다시 들어와 한청을 재조직했다. 국군이 속초를 수복한 후 (...) 한청에서는 빨갱이를 구속하기는 하지만 선도 후 풀어주었고 가족은 별로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치안대에서 주로 처단을 많이 했다.(속초 토박이의 증언)

그러한 일도 군정 초기가 지나고 사회가 차츰 안정되어 가면서 과거 사회주의하의 모든 지방

정권기관이나 각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한민국식으로 순화되어 나갔다. 1군단 민사처는 부정기적으로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동해사령부에 가서 구호물자를 직접 인수하여 온 후, 각 민정관들과 주무부처 직원, 구장, 피난민 반장 등을 소집하여 구호물자를 분배·지급하면 그들은 현지에 내려가 일정한 양을 배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1군단 민사처장의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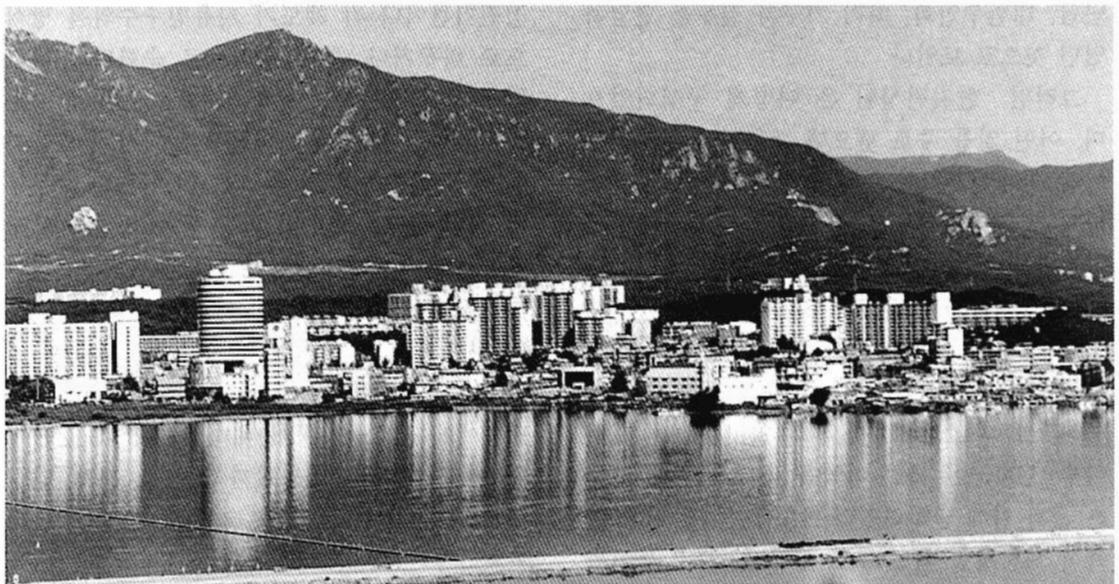
현지 읍·면에서는 ‘요구호대상자’로 분류된 난민에게 구호물자를 분배하였는데 1952년 6월 이후 1953년 5월 말까지 속초 전체 인구 3,661세대 16,213명 가운데 2,204세대 7,364명이 요구호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모포나 의류, 식료품, 피혁, 일용품, 소금, 천막 및 농업용 도구를 지급 받았고 구호양곡으로는 외미(外米 = 안남미)와 소맥, 대맥, 고粱미, 수수 등을 배급받았다.¹⁰⁾ 그 외에도 어선 용 전나무나, 주택용 자재,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을 배급하기도 했다.

한편 군정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미8군이 국군 1군단에게 해당 지역 행정권을 넘겨준 것은 1954년 6월이며 다시 1군단이 대한민국에 민정 이양을 한 것은 1954년 11월 17일이다. 다시 말해 1954년 11월 이전 까지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38이북 점령지역에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로 군정의 허가 없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관리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군정의 권한은 막강했다. 이승만 정부는 간헐적으로 그 지역에 국회조사단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정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 지역이나 군정 자체에 대해서 별로 영향력을 거

9) 수복 초기에만도 속초지부 대한청년단은 500명 이상의 단원을 가지고 있었다.

10) 양양군청, 『郡勢一班』, 양양군청, 1954, 26-27쪽



의 미칠 수 없었다. 그래도 대한청년단이나 자치 단체 간부들은 이 지역이 머지 않아 대한민국으로 편입될 것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맞는 사회 조직을 어떻게 가져오며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신경 썼던 것으로 중언하고 있다.

4. ‘민주선거’의 실시와 사실 관계의 문제점

속초시의 연혁에 보면 1953년 군정 치하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동아일보』 10월 30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수복된 이북 7개읍면, 민정관 선출”

군정관하의 수복지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읍면민정관 선거를 거행하였다. 동선거는 수복지구의 급속적인 재건에 수반하여 이의 유능한 인재를 선출할 목적으로 관할 해당 7개 읍면에서 구민의 백% 투표로써 다음과 같이 민정관을 선출하였다 한다. 속초읍 김근식, 양양면

김익종, 강현면 이찬우, 토성면 박주하, 죽왕면 김창길, 서면 손병환, 선양면 고연재, 현북면 오국현.

이른바 구민의 100%가 투표한 ‘민주선거’가 사실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글쓴이는 1년 이상 추적하여 어렵사리 당시를 입증할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다.

제일 먼저 당시 1군단 민사처장이었던 오천덕씨의 말에 따르면 그가 1953년 책임 집필했다던 『민정백서』에는 과거 사회주의 치하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맛보게 하기 위해 민주선거가 기획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속초에 있던 1953년 당시 그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음 당시 동해일보의 종군 기자였던 한 사람은 위의 기사와 같은 민주선거는 실시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역시 동아일보의 속초 특파원이었던 기자 출신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襄燦福 (명지대 정외과 교수 · 政博)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는가 아니면 냉전구조의 본질은 그대로 둔 체 상호 필요성에 의한 한시적 협조나 거래관계만 있는 것인지, 만약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남북간 관계개선의 급진전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재편과 맞물리므로 주변4강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序論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통일이란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데다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1차 과제가 평화체계구축에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남북간의 관계개선이나 냉전구조해체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변 4강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며, 또 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은 과연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는가 아니면 냉전구조의 본질은 그대로 둔 체 상호 필요성에 의한 한시적 협조나 거래관계만 있는 것인지, 만약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남북간 관계개선의 급진전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재편과 맞물리므로 주변4강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15정상회담에 대해 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도 관심을 가지는가. 이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Jeffrey D.Jones는 “한국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도 아니고, 세계가 진심으로 인류애로 충만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한반도 정세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한국 스스로에의 의지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¹⁾

1) Jeffrey D.Jones, “준비없는 통일은 위험” 「나는 한국이 두렵다」, 중앙M&B, 2000.11.15, pp.219~220.

이것은 한반도평화 연구에 있어서 주변국의 안보환경과 더불어 연구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얹겨 있는 한반도 평화 문제이기에 의문도 많고 개연성도 높아서 객관적 판단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하고 이렇게만 생각해 달라고 억압적인 분위기로 정부가 밀어부치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역기능의 논쟁에 휩싸이게 되어 그 효율성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오간스키(A.F.K. Organsky)에 의하면 평화란 정의와 일치시켜서도 안되고 현상유지와 동의어로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한다.²⁾ 이것은 평화란 단순하기보다 매우 복잡하고, 정태적으로 고여 있다기 보다 동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간의 역학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쟁과 평화라면 각나라의 국력과 국제사회의 힘이 분포상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주어진 평화가 불변으로 영구히 지켜질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곧 평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제에서 나온 대북포용정책도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peace making)³⁾이란 점에서 한시적 연구대상이나 한시적 정책으로 볼 수도 없지만, 통일에 대한 불변의 논제나 영구적이고 유일한 화두가 될 수도 없다.

평화가 동태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한 평화정책을 위한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유일한 수단으로 존재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정책은 가변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이 탐욕을 낼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의 경우 평화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긴요하다는 것은 신라의 건국(BC. 57년)에서 조선왕조의 마지막해인 1910년까지 약 200년동안 920여회의 外侵이 있었다⁴⁾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미완성의 정전협정에 의해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이 밝힌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도 남북이 각기 자기편의 적 해석을 하다 남(南)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북(北)은 사회주의헌법을 만들어 권력세습을 길을 터는 등 '국내용 선언'이 되고 말았다. 물론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⁵⁾와 후속협상에 의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효력이 유지된다 는 원칙의 확인과 불가침 합의는 있었으나 북한은 이미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도 휴전상태하의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의 평화문제는 고정 불변적인 규범(規範)이나 장치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때 그때의 정책대안과 주변4강의 정세(政勢) 그리고 동북아질서 유지자의 대한반도 정책등에 의해서 유지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4월 10일 남북이 동시 공동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이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가 되고 5개항의 공동선언⁶⁾을

4) 유봉영 “外寇와 十勝之地”, 「白山學會 8號」, 1970, p. 221

5)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5조 :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6) 공동선언 5개항과 정부측의 해설은 「남북공동선언」 쟁점과 설명판점, 자료지원 2000-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차, 2000.7.12

발표한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었던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안정된 평화정책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추진전략과 북한의 상황분석을 계올리하여 대응방안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공동선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해 내지 못할 경우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함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가까운 현대사만 보더라도 분단직후의 '좌우합작운동'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의 남북간 공식·비공식 접촉과 회담을 통해 유의미한 평화관련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남북간의 평화와 분단문제를 해결할 공통된 정책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경우가 더 많았다. 더욱이 주변 4강의 대한반도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변4강의 對동북 아정책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강할 경우 남북간의 합의만으로는 크게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한 주변4강의 對한반도정책과 남북간의 합의가 맞물릴 경우 한반도평화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 내고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토대에 해당하는 선결과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공동선언 이후 남북합의만이 평화체제구축의 모든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 반미운동이 확산되는가 하면, 지나친 기대마져 있어 자칫 평화정책과 통일에 대한 노력을 계올리하거나 일을 그르쳐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방법으로서 모겐쏘(J.J.Morgenthau)의 현실주의이론(realist)⁷⁾을 바탕으로 하고, 전쟁이론으로서

오간스키의 힘의 轉移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평화이론으로서 세계정부론(world government) 집단안보이론(collective security)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그리고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y theory) 등을 분석틀로 하여 주변4강 및 한반도의 평화정책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이상주의이론(idealistic)을 접근방법으로서 아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물이 남북공동선언의 효율적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정책 및 평화통일 관련 정책 개발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戰爭抑止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토대(infrastructure)로서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II. 한반도의 地政學과 평화논쟁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맞닿게 하는 연결고리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대륙세력이든 해양세력이든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거나 방어하려고 할 때 절줄과 같아서 1차적으로 攻略對象이 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는 국가체제마저 취약성으로 인해 전쟁과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논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삼국시대 외침은 대륙에서 110회, 해양에서 33회로 총 143회나 된다. 또 고려시대에는 대륙에서 125회, 해양에서 292회 등 총 417회로서 평균 1년에 1회 정도나 외침을 받았다. 조선시대 역시 대륙에서 192회, 해양에서 168회 총 360회로 평균 1년 반이 못되어 한번씩 난리

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 Fifth Edition. Alfred A.Knopf Inc., New York, 1973 참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란 있을 수 없고, 국력에 맞는 각국의 적절한 역할과 정책만이 세계평화의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를 겪은 셈이다.⁸⁾

사실 中國王朝로서 우리를 노골적으로 침공하지 않는 나라는 晉·宋·明 뿐이다. 晋과 宋은 그 국력이 우리를 쳐들어 올만큼 되지 못했고, 明은 우리의 혁명한 외교에 의해서 그 침공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해양방면에서의 외침은 거의가 일본이었고 근세에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침공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 일본이 그 본토에 외국침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맞닿는 지점에 있었다. 따라서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이나 대륙세력의 해양진출 어느 것을 피하더라도 한반도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일본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평화와 전쟁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의 야욕 대상이기에 우리 스스로에 의한 평화나 통일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최소한 주변4강(미·러·중·일)과의 연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의 利害에 따라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면이 해양에 노출되어 침공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입장에서 힘을 키워 먼저 주변국을 선제공격하거나 '선제공격의 준비가 최상의 전쟁방어책'이라는 현실주의

적 대응책으로 주변국의 침략야욕을 주저하게 하는 일종의 섬근성(insularism)의 평화방안으로 존재해온 면이 있다.

지정학적 입장에서는 지금도 한반도가 세계질서 재편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문제 자체가 주변 강대국들의 연구대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있기에 나라마다 다른 것이다. 예컨데, 한·미간에는 동북아지역의 패권세력 등장저리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등에 '한·미 공체체제'의 확립이 쉽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해 미국은 세계전략 → 동북아전략 → 한반도전략의 접근순이고 한국은 한반도전략 → 동북아전략 → 세계전략의 접근순으로 정책안을 정한다.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자로서 세계지배전략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책을 추진한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라는 차원의 동북아지배전략, 다음 남북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상위전략 추진에 필요한 범주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정착을 의미하는 한반도전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평화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은 결정된 평화정책이 한반도에서 요구하는 평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한반도의 주변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가 다르고, 나북한간의 요구하는 평화도 현재로서는 다르다. 이러한

8) 劉鳳榮, op., cit.

어려움 때문에 6·15공동선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하지 못했다⁹⁾고 본다.

갈퉁(Johan Galtung)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유형화하였다.¹⁰⁾ 소극적 평화란 전쟁의 부재 또는 회피상태를 의미하고 적극적 평화란 모든 갈등과 분쟁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단순히 남북한간의 전쟁이나 갈등관계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퉁의 적극적 의미의 평화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즉 남북한간의 분단상태를 극복하여 하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과 수단으로 평화의 의미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¹¹⁾ 바로 이점이 한반도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한국의 평화정책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경우 “조선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는 상태”¹²⁾가 진정한 평화로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간헐적으로 주한미군의 현실성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반면 공동선언 이를후인 6·17부터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방안을 종전처럼 방송하고 있어 정확한 북한의 진의와 평화개념이 무엇인지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¹³⁾ 특히 남북국방회담에 이어 3

차의 남북장관회담(00.9.27~29)이 열리는 동안도 조선중앙방송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미군철수를 주장¹⁴⁾ 함으로서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김정일의 미군주둔 양해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신중한 자세로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한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유지에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⁵⁾고 본다. 이것은 남북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평화에 대한 개념설정이 다르다는 것은 평화정책을 위한 조건이나 정책대안 그리고 추진방법등이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책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III. 한반도 平和體制 構築의 성립조건

현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구축수단에 대해 남과 북이 다르고 주변4강 모두가 다르다. 그것은 각국이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그들의 대외전략과 국익이라는 잣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주변4강 모두가 공동선언 정신에 대한 표방은 상당히

9) 송영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민족정론소식」 7, 자유민주민족회의, 2000. 7. 15 pp. 4~5.

10) Johan Galtung, “peace research :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peace and Social Structure」 Vol. 1. Atlantic Highland : Humanistics Press, 1975~80. pp/ 244-62.

11) 신정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국가안보”, 「평화체제구축과 국가안보」, 한국북방학회, 1999. pp. 20~21.

12)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09.

13) 2000. 6. 17 문화일보, 6·18이후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국내신문 참조.

14) 조선중앙방송 9월 28일, “미국이 남북통일 후에도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것은 통일을 끝까지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미국당국자들은 남북화해에 발맞춰 미군을 조선으로부터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 9월 29일자 조선일보

15)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1999. pp. 33~34.

달라졌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공동선언 제1항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과 이에 대한 주변4강의 지지표명은 남북간은 물론이고 주변4강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많은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평화조항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결여되어 있다 든지, 자주에 대해서도 남측은 당사자해결원칙으로 북측은 외세배격과 주한미군철수 등으로 자기편의적 해석으 하공 있어 향후 이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 주변4강의 지지표명과는 달리 이들이 현재로서는 기존의 對한반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국의 기준평화정책의 변화는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을 비롯한 주변4강의 변화와 더불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일단은 한국의 시각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북한과 2차적으로 주변4강을 설득시켜 나갈 추진전략을 짜야 한다.

이 경우도 가장 난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남북간 이해가 다르고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반도평화에 대해 남북간의 갈등관계를 공통이익적인 평화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남북간 공통이익적인 개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셀링(Thomas C. Schelling)의 억제게임(games of deterrence)¹⁶⁾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경우도 마치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이나 죄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처럼 상호협력 여부나 자백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쉽지는 않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느냐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성명에서 자주적 해결이라고 하지만 매우 관념적 용어선택에 불과해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주변4강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셋째, 평화의 개념은 전쟁회피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인적유대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하고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평화체제는 당연히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기능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군비통제는 군비동결, 군사력재배치, 군사훈련축소, 군축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화체제는 점진적으로 남북한 분단 구조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나 남북한간의 외교적 대결종식, 정치적 신뢰구축에 필요한 기능수행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⁷⁾

여섯째, 앞항에서 개설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므로 국제적 보상체제를 확보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16) 셀링의 억제게임은 갈등하는 양측간에도 공통이익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약속같은 공약으로서 상대방을 억제하는 상황을 말한다. 도이취(Karl W. Deutsch)는 억제이론을 평가하면서도 고의로 武謀性이 창출할 가능성은 비판한다. 예컨데, 치킨게임에서 차창을 가리거나 운전대를 내팽개치는 측이 승리하는 기대에서 무모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7) 신정현, op. cit., p. 27.

IV.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변4강의 인식과 변화역학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 이해 당사국 6개국(남·북·미·러·중·일) 모두가 다른 배경과 논리에 의해 다른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아무리 대단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제시한다 해도 이해당사국간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게 되므로 실현가능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조치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한반도정책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12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행한 소위 '제2차 김정일 쇼크'라 불리는 전향적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어서 오히려 혼란마저 느끼게 하고 있을 정도이다.¹⁸⁾ 또 8·15 이산가족 상호방문도 그 규모는 적지만 편의상 서로 상대측이 항공기 이용문제나 직항로 이용문제 등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물론 공동 선언의 지지나 화해의 다짐 그 자체가 바로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기능할 경우 파생되는 민족겹집과 역량을 통해 남북정부와 주변4강의 정부로 하여금 한반

도의 평화체제로의 길을 트게 하는데 조력과 압력행사를 할 수 있다. 즉 남북정부에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시장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체제, 주변4강 정부에는 1차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익한 평화체제 보장으로의 정책전환을 유도하는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통일의 가교가 될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 판단되는 당사자문제를 중심으로 남북을 비롯한 주변4강의 인식과 변화역학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아울러 반추되어 나올 것이다.

1. 국론결집 - 힘의 均衡과 힘의 優位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논쟁중의 하나가 북한을 일방적 또는 非等價로 도와주어 힘의 균형 분포 상태를 이루는 것이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국민여론이 나누어져 있다.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측은 북한이 대남전선술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지원을 군사적 준비물로 전용할 가능성 때문에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택할 여지를 주거나, 북한의 정권생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측은 상호주의보다는 일방적 또는 비등가적 지원이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이러한 논쟁자체는 정책

18) 2000년 8월 14일 문화일보, 2000년 8월 15일 조선일보 본문 및 사설 참조. 특히 이산가족 주거지 방문,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직항로 개설, 노동당규약 개정, 조속한 시일내 서울답방, 장관급회담의 획기적 진전, 미사일개발문제, 외교부문(북미, 북일 간의 수교문제) 등에 대한 파력.

19) 현대코리아 6.7월호 권두언, "외투를 벗은 것은 南". 民族正論소식 7. 2000.7. p.9. 정용석, "동아일보 사설을 새음미한다.", Ibid., p. 11. 기 소르망(Guy Soman), "북한의 성공한 드라마", Ibid., p. 8.

20) 통일관련 글을 올리는 대부분의 지식인은 비등가설 또는 무조건 지원을 주장한다. 김영환, …나는 통일비용이라는 말에 심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혼신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북한을 공격적으로 표용하라", 「신동아」 8월호 2000. 8.

결정 과정의 신중과 민주적 절차로서 바람직스럽기는 하다. 문제는 권위당국자측이 어느쪽으로 정책결정을 하든 다른 한쪽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론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남북관계가 대항구도이든 완화관계이든 평화체제구축에 역기능 하게 된다.

또 힘의 배분과 분쟁가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학의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과 힘의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간에도 평화와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리를 달리하고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이론은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간 힘의 균형(power parity)이 유지될 때 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힘의 전이이론은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힘의 압도적 우위(power preponderance)를 유지할 때 전쟁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평화가 유지된다²¹⁾고 보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제를 일종의 무정부상태(a state of anarchy)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균형이 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산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한쪽의 힘이 강대해져 상대쪽을 압도하게 되면 이 우세한 힘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때 힘이 강한쪽이 공격자가 된다.

힘의전이 이론은 국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힘의 배분이 상당히 불균형한 계층체계(a highly skewed hierarchy)로 인식하기 때문에 힘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존재

할 경우 체제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국가집단(contending groups of nations)간에 정치, 경제, 군사력의 균등분배는 오히려 전쟁 가능성의 확률이 더 높다. 이 이론에 의하면 평화는 국가간의 국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잘 유지된다.

이에 대해 오간스키와 쿠글러(Jacek Kugler)는 전쟁발생과 힘의 배분간의 상관관계를 실제 있었던 세계사의 전쟁기록을 통해 어느 이론이 적실성이 더 높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²²⁾ 세력균형이론은 주요 약소국군에서만 맞았고, 힘의 전이이론은 주로 강대국군에서 맞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검증결과를 공식화 할만큼 모든 케이스에 다 들어맞은 것은 아니었다. 어떠한 경우는 힘의 분배가 균등할 때도 전쟁이 일어났고, 불균등할 때도 전쟁이 일어났으며 특수한 경우는 힘의 분배 상태와 관계없이 전쟁이 안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주로 부수주의자들은 힘의 전이이론, 진보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론의 편에서 남북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려는 경향때문에 견해라기보다 편이 갈라지는 경향마저 있어 심지어는 태협을 모르는 국토분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힘의전이와 세력균형은 이율배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배합의 문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체방안을 만들 때 세력균형과 힘의전이 간의 관계설정 및 배합정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적실성을 높이고 국론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평화체제구

21) A.F.K Organsky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80. Robert E. Bohrer & Alexander C. Tan, "Balance of power and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pp. 44~45에서 재인용.

22) 구체적인 검증과정과 결과는 다음을 참조. Organski & Kugler. Ibid., pp. 50-52.

축을 위한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힘의 균형이냐 힘의 전이이냐 그 선택배경(이론적근거)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합의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평화체제구축 논의의 당사자

한반도평화 관련 논의의 당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평화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평화체제구축 방안도 현저히 다르다. 이것은 한반도 이해관련 각국이 국익과 세계전략에 따라 평화의 개념과 평화체제구축 방안을 설정하려는 政略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 앞서 한국 입장에서의 평화개념과 평화체제구축 방안을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당사자와 협력적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동일한 어젠다(agenda)를 놓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4강(미.러.중.일)간에 논의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설정도 각각 다르다. 그동안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논의의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 없이 여러 형태의 남북접촉과 회담을 수차례 걸쳐 해왔다. 이렇게 당사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가운데의 남북관계는 설사 성립이 된다해도 기대해왔던 만큼의 알맹이가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 선언장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한국

한국은 1974년 8월 3대 기본원칙²³⁾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한다는 공식발표 이후 평화의 당사자가 남북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1982년 1월 22일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키 위해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국호, 정치이념, 정부형태,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총선거의 방법과 절차 등의 문제를 남북이 상호 협의 해결한다²⁴⁾는 것이다.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하자고 제의하였다.²⁵⁾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주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1994년 8월 15일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²⁶⁾에서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상호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추진의 주체는 남북한 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995년 대통령의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당사자 해결원책을 분명히 명시하였다.²⁷⁾

1999년 5월 17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23) 74.8.15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남북간의 상호문화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24) 대통령비서실, 「전두환 대통령 연설문집 2」, 1988, pp. 46~48.

25) 대통령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2」, 1990, pp. 255~263.

26)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참조.

27)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1988, 참조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²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협력과 지지의 대상이라고 한 이면에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한 ‘공동선언’ 1 항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이란 “남북한이 주변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 남북이 당사자 원칙에 따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자는 원칙이다.”²⁹⁾라고 해석한다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주당사자를 남북당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요컨데 한국은 74년 이래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주당사자는 남북당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식화 해 왔다.

(2) 북 한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해방 15주년 경축사 전야제 연설을 통해 제시한 ‘연방제통일안’을 발표한 이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논의의 주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당국이 되어야 한다고 지목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방제통일안’에서 미국이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해 두 개의 조선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과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의 보고연설을 통해 ‘연방제통일방안’을 개칭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다. 즉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각종 반공단체 폐지, 반공정부 탄도,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³¹⁾ 고려민주연방제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 체결’이란 한반도 통일문제든 평화문제든 협상 당사자는 남북당국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당국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3월 3일자 북한의 ‘로동신문’에 의하면 “… 당사자는 어데까지나 우리와 미국이다.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 있는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북한은 일관성 있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당사자는 미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³²⁾ 첫째, 북한과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이다. 둘째, 미국은 그의 군사력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 평화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에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간에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기 때문

28) 대통령비서실, “한반도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 「김대중대통령 연설문집」, 2000. 2. p. 275

29) 「남북공동선언 쟁점과 설명 관점」,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2000. 7. 12. p. 3.

30) 배찬복, “대학에서의 통일대비 교육방안과 대책”, 「대학교육 협의회 논문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6. pp. 106~107.

31) Ibid. 참조

32) 신정현, op.cit., pp. 22~23.

에 별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협정체결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1977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6·25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4자회담³³⁾ 제1차본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98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제3차 본회담에서는 '4자회담 공동발표문'과 '분과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국축 분과위원회」와 「한반도 긴장완화 분과 위원회」구성에 합의가 성사되고 99년에는 세차례의 분과위원회까지 열려 기대가 매우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와 미·중의 보장 형식을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은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에 4자회담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의식해 4자회담은 북·미간에 주도되어야 한다고 설정하는 한 4자회담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요컨데,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1960년 이래 한결같이 주장해오다 2000년 6·15공동선언 1항에서 '당사자원칙'을 양 정상간 합의발표함으로써 노력여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가 자주화할 여지가 생겼다. 단지 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나 조항이 빠져 있고 자주화마저 남북간 강조점과 해석에 차이³⁴⁾가 있어 현재로서는 당사자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특히 남북국방장관회

담(00.9.25~27)과 3차남북장관급회담(00.9.27~30)을 거치면서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당사자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3) 주변4강의 한반도 평화정책 당사자

주변4강이라 불리는 미국·러시아·중국·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한반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세계전략이나 최소한의 동북아질서체제의 시각에서 그들의 국익에 맞게 설정한다. 동북아는 세계적인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구도의 경쟁, 북한의 핵위기 촉발 등은 심리적 차원에서는 일종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빠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주변4강의 한반도 평화문제에 적극적 참여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4강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선행조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시적 접근을 하면 주변4강은 대체로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4강의 한반도평화 개념을 갈퉁의 소극적평화로서 위기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갈퉁의 적극적 평화로서 전쟁회피뿐 아니라 인적 유대와 통일지향적 개념이다. 바로 이점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과 주변4강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한국과 주변4강 간의 평화체제구축 논의의 당사자 설정을 달리하게 되고 더불어 불안정한 평화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강의 이러한 시각이 지속되는 한

33)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의제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제3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안을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로 합의하였다.

34) 당사자문제에 대해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열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남북당국이 당사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입장과, 북한당국에 의한 자주화의 외세배제론 해석과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의제선정 등에서 남북당국이 당사자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북한은 필요성에 의한 전술적 변화 이외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설한 바와 같이 남북간에도 평화의 개념이 다르고 평화정착의 당사자설정이 다름은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남북이 아닌 타국에 의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결정된다는 불행한 가설이 성립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6·15공동선언이 나오고 주변4강은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이행과정이 그들의 전략적 이익과 역할에 미칠 영향에 따라 그들의 **對한반도정책**은 지속과 변화를 겪겠지만 한반도로부터 떠날 수 없을 것이다.

(4) 미국

미국은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구도하에서 **對한반도정책**이 결정됨은 기설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행정부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클린턴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 증진(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을 대한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단지 실천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stick이나 carret이나 또는 stick과 carret의 배합률은 어떻게 하느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탈냉전과 과다한 경제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클린턴 정부를 전후해 양자 안보체제에서 다자안보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유지정책 의도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그아에서 기득권 유지와 영향력 행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상유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다자외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일, 중·일간의 역사적 갈등, 소련 붕괴 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일간 세력확장

경쟁 등을 감안하면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이 미국의 국익과 세계전략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단지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동반자로서 보다 경쟁자로서의 인식이 강하리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4자회담을 받아들이고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어 남북과 4강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전환**은 첫째, 남북 등거리외교 가능성과 연착륙 정책에 따른 미북관계개선. 둘째, 갈등의 전쟁 부재 또는 전쟁회피 등 소극적 평화에 만족할 가능성.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논의의 주당사자가 남북이 아니라도 좋은 것은 물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할 미국의 파트너가 북한이라도 좋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란 기설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對동북아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권자나 집권정당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정부는 공동선언에 대해 충론에서는 적극 환영을 표시하지만 각론에서는 평가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특히 주한 미군문제와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를 놓고 공동선언 이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자세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설사 한반도가 통일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남북한 및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직 기존의 **對한반도정책**을 바꿀 만큼 북한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경의선 복원에 있어서 북한이 분계선으로부터 자기를 쪽에서의 공사는 언제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³⁵⁾

(5) 러시아

러시아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150

만, 핵무기 6,000개, 항공기 4,500대, 탱크 17,000대 등을 보유하고 GDP의 7.4%를 군사비로 책정함으로써 군사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98년 9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각종 지원을 얻어내고, 98년 11월 「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영토문제를 미제로 남겨둔 체 투자약속을 얻어냈고 2000년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하는 등 '창조적 파트너쉽' 선언을 이끌어 냈다. 98년 11월 「러·중 정상회담」을 통해 냉전종식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치닫는 미국에 제동을 거는 '전략적동반자관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 군사·경제 협력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2000년 7월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이어 북한을 방문하여 상호우호협력을 약속하고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유발국가 및 불량배국가(rogue states)에서 감시대상국(states of concern)으로 바꾸긴 했지만 의미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동맹국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4자회담 대신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및 UN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기득권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동북아 정책목표는 ① 역내 신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동참 ②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

국화견제 ③ 중국의 반려화 방지 ④ 한반도 대한 영향력 확대 ⑤ 역내군축의 실현 ⑥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이다. 동북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수단적 성격의 한반도 정책은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② 남한과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추구 ③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견지모색 ④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유도 ⑤ 아·태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³⁶⁾

요컨데 러시아 역시 현재로서는 동북아질서의 현상유지적 범위에서 남북등거리외교(two korea policy)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미·일의 한반도 영향력을 견제키 위해 한반도 평화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논의의 당사자가 남북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4강중 러시아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특히 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이 對北 수용(engagement)정책과 확장(enlargement)정책으로 일관하다 미국의 개입이 없는 자주적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틈을 타 러시아의 개입이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6) 중국

중국은 현재 舊소련의 붕괴로 인해 러시아의 동북아지역 영향력 약화가 첫째, 미국 영향력 극대화에 의한 동북아질서재편 둘째, 일본이

35)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미 국방장관의 회의적 시작에 대해서는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September 12, 2000"

www.defenselink.mil/Sep2000/korea09122000.html 전문을 참조

36)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00, pp. 64~65.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미·일동맹이나 미국의 원격조정을 통한 세력확대 셋째,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놓과 더불어 전략적 차원의 정책과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對동북아전략** 특히 **對美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전적 현실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고무하고 지지한 것도 미일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고 남북간에 중재자역할과 한반도에서의 지배적 세력행사를 위한 면이 강하다.³⁷⁾

중국이 1992년 갑작스런 한중수교를 결정한 것도 첫째, 1991년 '걸프전' 때 미국을 적극지원³⁸⁾한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에로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경제세력으로서 바람막이 역할을 할 한국과 수교를 결정했을 가능성. 둘째, 72년 미국과의 평통외교후 黑貓白貓論을 내세워 미·일과 외교정상화하고 현대화의 길을 택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중국이 원하는 중화학분야의 기술을 얻지 못하자 한국으로부터 기술습득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수교를 결정했을 가능성 셋째, 6·25전쟁 당사자인 중국이 한반도에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측 '중·한수교 성명'에 나타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³⁹⁾라는 '한반도평화문제의 남북 당사자의 역할' 지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해관계가 대립될때는 철저히 자국의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데, 중국이 북한의 非核地帶化를 반대한 경우도 한국의 비핵화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가 중국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요컨데, 중국은 한편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기존의 현상유지 정책을, 다른 한편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남북관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화 문제를 남북당사자 역할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과 미·일의 한반도 및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정책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7) 일본

일본 역시 거시적관점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북간 戰爭不願, 崩壞不願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등거리외교가 일본의 국익과 동북아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이기에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한반도 문제에는 주변4강중 어느나라보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나라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한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푸틴의 북한방문에 일본은 위협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위협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냉담한 세력으로 남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일본은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싫어할 것이고 현상유지적 안정을 바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평화문

37) 안병준, "중국의 동서 및 한반도시각", 「남북한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 아태정책연구원, 2000, 7, p. 17.

38) 걸프전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0억\$의 전쟁분담금을 배정받고 현찰 110억\$과 20억\$의 전쟁물자 등 130억\$을 제공. 이에 반해 대부분의 나라들은 분담금이 많다고 불평을 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깎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39) 중·한수교성명 제5항, 인민일보, 1992. 8. 25

제에 대한 중·일간의 경쟁은 대단하다.⁴⁰⁾ 이러한 경쟁은 심화될수록 구한말 3국(일·청·러) 각축전의 양상을 뛸 수도 있으나 한반도평화체제의 궁극적목표인 한반도 통일에는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전략이 남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4강중 어느나라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방지를 위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미일 '신안보체제'의 틀안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위협을 막기 위해 미군에게 일본내의 군사기지와 시설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정경분리라는 명분으로 북한과 수교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북한에 대해 '이중정책', 한반도에 대해 '두개의 Korea'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동북아전략과 과거 일제침략의 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갈통의 소극적평화 즉 전쟁회피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도 적대적인 정권수립은 그들의 동북아전략차질과 일본의 안본에 위협적이라 판단하여 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이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의혹 해소와 경제·기술지원을 교환조건으로 하여 북·일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유지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고도 때로는 무역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있음에도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V. 결론

분단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평화체제나 통일 문제를 의제로 하여 남북간 쌍무회의 또는 주변4강들과 다자회의 등 적지않게 해왔다. 한반도 평화관련 회의는 다자회의든 쌍무회의든 본질적인 실익은 얻지 못하고 정치후진국으로서 '국내용선언'의 정권적 효과⁴¹⁾를 얻는데 그쳤다. 또 뉴욕회담, 제네바회담, 쿠알라룸프르회담처럼 한국과 제외한 미북간,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많은 회담을 해왔지만 소극적 방어개념 이외의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원인은 평화체제의 개념과 구축방안에 대해 남북 및 주변4강 모두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식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각국의 전략전가치에서 달리 주장하는 것이기에 인식의 전환을 통한 합의된 결과의 도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평화의 개념과 평화체제구축의 목표가 6개국 각각이 다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논의와 추진 당사자가 누구이어야 하느냐부터 관심의 제 선정에 이르기까지 6개국 모두가 다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추진방안도 현재로서는 6개국이 각각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세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접근방법의 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와 남북간

40)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미사일 발사실험 때 일본이 즉각 미국과 TMD(전역미사일방어)공동연구와 1미터급 첨보위성 발사를 결정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이 남북정상회담전 김정일을 초청해 NMD(미국의국가미사일방어)와 TMD에 대해 반대에 공동보조를 취한 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41) 예컨데 7·4공동성명 끝에 남의 유신체제와 북의 김부자체제라는 국내용 정권적 효과를 산출했다.

및 주변4강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6·15공동선언은 과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산출할 수 있을까와 그 방법론도 본문에서 암시한 편이다.

요컨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에 관한 한 주변4강의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란 틈바구니로부터 벗어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한국외교의 최대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 남북과 주변 4강간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남북간도 구체적인데서 아직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의 전망이 열리자 로빈립 일본 나고야 난잔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는 "주변4강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 한다"는 Herald International Tribune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핵보유 강국탄생을 의미하므로 주변4강의 경쟁과 개입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주변 4강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문제는 남북만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평화문제는 주변국들 안보환경과 더불어 역학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남북과 주변4강 양자간 전략적 조화를 이루어 내는 '교량구축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남북간 평화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이 그들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동상이몽의 협상을 하는 사이에 한반도는 갈통의 불안정한 소극적 평화⁴²⁾가 계

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석틀(analytic theoretical frame)로서 선결과제를 설정하였다.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상부구조(superstructure)로, 선결과제를 토대(architecture)로 가설하였다.

토대에 해당하는 선결과제로서 남북간 ① 평화의 개념 및 목표의 확정 ② 당사자 결정 ③ 남북과 주변4강간의 관계설정을 가설하였다. 이 선결과제에 대한 전제가 없는 평화구축회담이나 정책방안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있는 한 사상누각이 될 염려가 있다.

평화체제란 정태적·고착적 개념이 아님은 개설한 바와 같다. 평화체제구축으로 인해 분단영구화나 휴전선의 온존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더욱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 당사자를 북한의 주장대로 북미간으로 설정해도 안 된다. 그것은 본론에서 지적한데로 미국은 세계지배구도와 동북아질서의 시각에서 현상유지적 한반도정책을 설정하기에 분단영구화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 강의내용 요약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
- 6·15 공동선언의 의의 및 실천방안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구분
- 통일문제와 정치문제를 구분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조성방안과 필요성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우리의 자세

42) Johan Galtung, "Peace Studies as Countertre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On The Linkage Between Cosmology and Epistemology", 「평화연구」,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1998. p. 243.

- 'Thus, peace is no longer seen just as the absence of war, more properly termed armistice, but as the effort to withstand the tendency to give conflicts enter the violent phase. One definition of positive peace would, simply be the capacity to handle conflicts without violence, and in addition constructively.' -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

황 을 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장르상의 특징은 각각 서정과 서사의 허구적 측면을 지배적인 것으로 하면서 여기에 주제적인 측면이 가미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제적인 측면이란 논픽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은 근대 이후의 해양시와 해양소설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서의 <표해록>류의 특징이기도 하다. 두번째로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특징을 들 수 있는 것은 해양체험이 작품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수부들의 이야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한정이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가능성은 좁힐 우려가 없지 않다.

해양문학의 개념을 '바다 자체를 주제로 삼거나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묘사 내지는 줄거리 구성'처럼 사전적으로 간단히 규정지을 수 있다면,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주관에 의하기 보다는 이미 연구 발표한 이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두 평론가의 글을 소개한다.

우선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해 구모룡(문학평론가, 한국해양대 교수)은 『한국문화연구』 창간호에 발표한 『해양문학서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양문학〉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습적인

용어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의 범위를 엄밀하게 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양체험을 작품의 전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나 그것을 작품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작품 모두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해양문학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인 것이 된다. 실제의 해양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어촌의 어민들의 삶을 그린 것과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바다를 동경하고 그것을 하나의 추상적 공간으로 삼고 있는 작품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해양문학을 장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문제는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보인 혼란이 해양문학을 장르 개념으로 본 데서 비롯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장르의 분류 기준은 크게 율격 구조와 같은 외적 형식과 창작 목적, 이조, 태도, 주제 같은 내적 형식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은 한 작품에 있어서 겹쳐 적용되기 마련이다. 엄격한 분류 기준의 순수성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문학장르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한 장르의 명칭을 부여할 때 이것은 그 작품에서 가장 우세한 장르적 성격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문학을 장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장르의 기준이 되는 가장 우세한 자질은 주제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작품의 가치평가의 기준과는 다르다. 포괄적인 개념인 해양문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체험의 문학화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미학적 준거이다.

다만, 장르의 관점에서 해양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되는 시와 소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장르가 있게 된다. 해양문학이 장르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관습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면,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구체적인 장르의 명칭이 된다.

■ 해양시 - 해양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된 시

■ 해양소설 - 해양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된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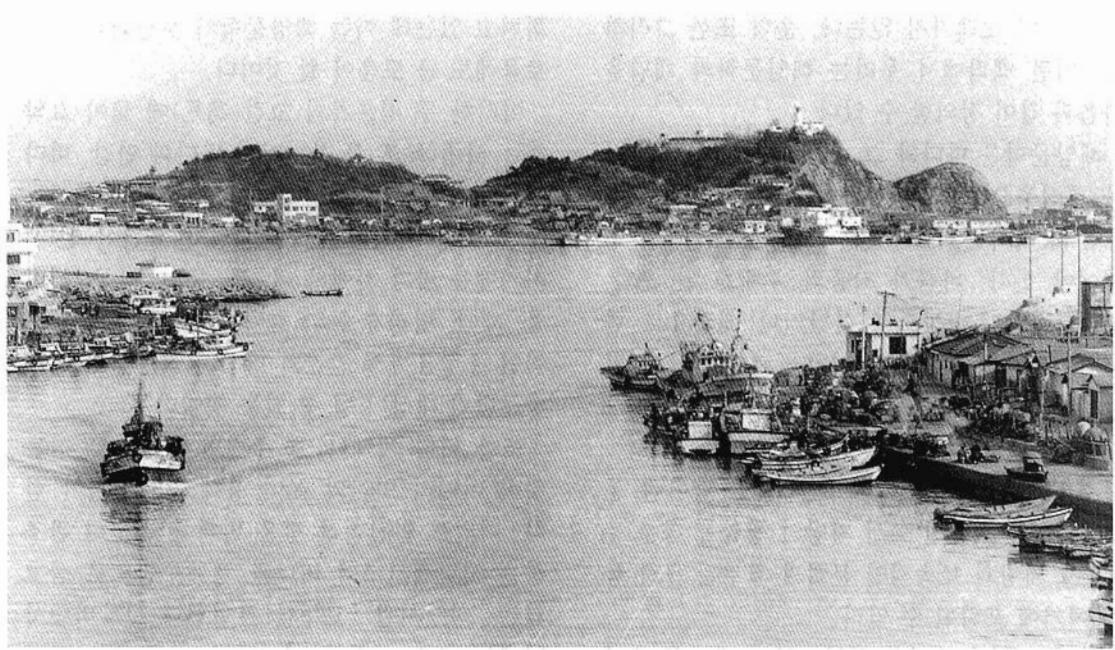
그리고 장르체계라는 관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장르의 이론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이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장르류와 장르종을 나눌 수 있는데, 장르류는 3분법 혹은 4분법을 들 수 있다. 서정, 서사, 극의 3분법과 여기에 교술을 첨가한 4분법이 그것들이다.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종의 하위장르에 속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서정 - 시 - 해양시>의 체계와 <서사 -

소설 - 해양소설>의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고정된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극적, 풍자적, 서사적 등등의 양식mode의 개념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학에 있어서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근대 이후에 성립될 수 있었던 장르이다. 본격적인 해양체험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 근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문학에서도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장르에 귀속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작품들이 있다. 근대 이전의 해양문학을 어떠한 장르명칭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다. <표해록> 등의 장르 귀속문제가 그것인데, 지금까지 해양문학을 하나의 장르라고 본 관점에서 이들을 범박하게 <해양문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장르상의 특징은 각각 서정과 서사의 허구적 측면을 지배적인 것으로 하면서 여기에 주제적인 측면이 가미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제적인 측면이란 논픽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은 근대 이후의 해양시와 해양소설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서의 <표해록>류의 특징이기도 하다. 두번째로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특징을 들 수 있는 것은 해양체험이 작품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수부들의 이야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한정이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가능성을 좁힐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장르로서의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수부와 이에 준하는 체험이 문학화된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인 범주로서 해양문학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장르로서의 해양시와 해양소설이 될 수 없는 작품은 허다한 것이다.

또한, 최영호(문학평론가, 해사 교수)는 조규



익(승실대 교수)과 공동으로 엮은 『해양문학을 찾아서』 중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편에서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광범위하게 세분하고 있다.

해양문학의 개념과 영역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해양문학의 위상을 논의하려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해양 문학인가 하는 그 개념 규정의 문제와 해양문학의 논의를 어디까지로 한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해양문학 영역에 대한 문학적 지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해양문학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자. 해양문학이란 개념이 언제, 어떻게 거론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사전들이 이 낱말을 표제어로 뽑아 그 의미를 규정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해양문학은 해양(바다)를 대상, 주제로 삼거나 해양 체험을 소재로 한 문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편벽되게 해양만을 뚝 따서 그것만을 하나의 대상이나 주제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인간의 삶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바다를 완전히 육지와 별개로 놓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바다 생활이란 특수한 삶과 그것까지를 포함한 육지 생활이란 보편적인 삶은 딱히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둘로 구분된 삶은 어느 하나의 개별적 삶 속에 통일되어 있다. 설령 바다만을 특별한 소재로 삼았을 때도 그러하다. 즉 바다냐, 배냐, 섬이냐, 아니면 배를 올라탄 사람 자체냐, 그도 아니면 배를 타고서 새로이 만나는 땅이냐 하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다. 해양문학에 있어 바다만 있고 인간이 빠진다면 그것은 단조롭고 적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해양문학은 어촌과 섬을 포함해 해양과 관련된 민요, 전설, 특이한 언어 등등의 풍속적인 면까지 속속들이 읽어내는 동시에 그 다양한 것들을 소재로 삼되, 그렇다고 소재의 특이함 때문에 단편적인 소재거리로 전락한다거나 그것과 연관된 체험이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이 빠진 바다 체험

은 감동이 오래가지 않는다. 문학 또한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해양문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해양문학은 바다와 그 주변 것들이 인간의 삶을 중심축으로 하여 독특한 삶의 체험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바다가 작품의 주제가 된 문학,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거나 배경으로 한 문학이라 함은 직접적인 바다 체험이 들어 있는 문학, 자연미에 도취되어 바다 그 자체를 노래한 문학, 바다를 통한 인간의 절실한 체험 - 동경, 희망, 모험심 등을 자극하고 담아낸 문학, 어촌을 포함해 도서 지방의 생활을 다룬 문학, 그 지방의 토속적인 문화와 결부된 문학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최영호는 이와 같이 해양문학의 개념을 규정 지음과 동시에 그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고 각 항목마다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1) 해양 번역 문학
- 2) 해양 수필 문학 : 해양수필, 해양 서간문, 해양 일기문
- 3) 해양 소설 문학 : 해양 설화계 소설, 창작 해양 소설
- 4) 해양 시 문학 : 해양 현대시, 해양 한시
- 5) 해양 가요 문학 : 해양 가요, 해양 가사, 해양 무가
- 6) 해양 전기 문학
- 7) 해양 기행 문학 : 표해록류
- 8) 해양 민요
- 9) 해양 설화 문학 : 해양 설화, 해양 신화, 해양 전설, 해양 민담
- 10) 해양 회곡 문학
- 11) 해양 전쟁 문학
- 12) 해양 아동 문학

이와 같이 최영호는 해양문학의 영역을 광역

화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문학의 보편화와 풍요로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두 평론가의 고견(高見)에 굳이 요약하는 사족(蛇足)을 붙이자면 바다와 인간, 바다를 통한 인간의 삶과 감성이 투영된 문학에는 우선 바다 자체의 관조(觀照)가 요건이 된다. 거기에는 바다 자체와 배, 섬, 등대, 항구, 갯마을, 해안, 방파제 등과 같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조형물까지 인간의 감성이 작용한다면 해양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다 자체나 그 주변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이라 함은 바다를 단순히 관조하는 사람에서부터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바닷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그 바닷사람에는 모든 명칭의 뱃사람과 갯가사람, 섬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해군 제독(提督)에서부터 갯벌 위의 아낙네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문학은 이러한 바닷사람들이 엮여내는 그들의 삶을 통한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담긴 모든 형태의 문학의 장르가 그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닷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갯벌에서 조개 좁는 아낙네라고 해서 해양문학의 대상이나 참여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 나름대로 바다에서의 생활철학과 관념이 직·간접적으로 문학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황 교수 저 『해양 문학 요소』 - 2001년 발행
- 제 1장을 저자의 승인 아래 발췌하여 실었다(전문).

약력

- 성균관 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 동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 한국 해양 대학교 교수 (현).
- 해양 문학가 협회 자문 위원.

문화의 열린사회를 만드는 기초기반 조성



한 정 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들어가는 말

희망의 대 세기의 이름 “밀레니엄 21C” – 아픔의 역경을 딴 역사로 모두 버리고 오로지 희망의 열쇠를 걸어 쥐고 힘찬 미래를 내딛는 마음으로 신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년 정도에서 우리는 과연 뉴 밀레니엄이란 이름 아래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을 맞이하였는가 하는 궁금증에 휩싸여 버리고 만다.

지난 과거의 역사는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의 절단된 국토와 동족상잔의 비극, 부정부패, 기나 긴 보리고개, 군사독재, 문민정부의 IMF, 참으로 암울한 역사성의 비참한 감 뿐이었다. 그것은 지난 세기의 모든 것은 도덕성 문화의 상실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외쳐왔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꽂피우기 위해 문화를 통해 화합으로 형성되는 성숙한 민족공동체와 문화적 독창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구현되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는 창조적 문화복지 국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그 일환으로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여 그 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온 문화 치중현상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자긍심과 향

토애를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기반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여 기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뛰는 공무원과 문화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허락하는 여건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대두될 뿐이다. 지역문화의 해로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지역문화는 그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안성마춤격의 다양성, 그 특징에 알맞게 만들어 내야하는 문제로까지 부각된다.

이것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문화인력이 구성된 후에 그에 따른 문화계획이 수립되어 올바른 문화정책의 발전이 가능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 본다. 현재까지 계획성 없이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다보니 그저 주민을 위해 겉으로만 보이는 문화를 개최하여 무너만 문화행사가 만들어져 행사를 치룬 후에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화애향가 즉 전문가들을 구성한 후에 계획성 있는 장기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지역의 문화적 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해 보면

(1) 문화의 소프트웨어 교통정리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흔히 느끼는 것은 대표적 문화예술상품이 없고 축제라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늘어나 주민들조차도 관심없는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행사만 하더라도 문화단체들간의 성격을 달리한 듯한 비슷한 행사를, 행사도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내용도 이렇다할 만한 것도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마저 외면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인 것처럼 하나 외지인은 거의 없는 동네잔치로서의 문화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문화행사라 함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공감하고 한데 어우러져 행사의 품위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종합 상설상품인데, 오히려 1년동안 행사를 위해 세금을 만들어 낸 후 흥청망청 쓴격이 되는 형상, 현실적으로 축제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행사진행의 투자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약간 보충형식으로 넘어가자

는 식의 단발성 행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을 깨우치려면 문화예술기획자를 키우는 것과 전문문화행정가의 확보인 것이다. 이것이 기본틀로 갖추어져야 장기문화발전계획이 만들어 질 것이며 현재의 무분별한 행사의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불거리, 즐길거리, 남을거리를 만들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상품이 만들어 질 것이다.

(2) 문화의 공간 조성

지난 99년도 우리지역에서는 세계적인 행사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멋들어지게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그 물결을 타 앞으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활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민에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과연 국제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다.

관광이라함은 그곳에 가면 그 문화를 접해 새로운 문화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들이 느낀 문화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먹고살기 바

쁜데 문화는 무슨 문화라는 식의 빈잔이 빈번하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향상 정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전문가를 구성하고 이들의 주도하에 관계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문화복지향상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문어발 식으로 많은데 비해 공연시설이라고는 회관 본건물 1동만 보유하고 있으니 도저히 소화해 낼 수 없는 대중문화를 치루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연시설이외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향유 시설이 없다보니 문화를 바라본 시각자들에게는 단순간 문화를 전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현재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몇 년 이내로 박물관이 건립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Program이 없다면, 또한 문화향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기초시설의 계획은 점점 뒤로 미루어 질 수밖에 없다.

(3) 각 문화단체들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세상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게 변하고 있다. 1~2년전만해도 인터넷이라함은 아주 멀게만 느껴진 세상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현재 국내의 이용숫자만 하더라도 7백만명 이상이 인터넷의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현재의 신 문화경쟁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개념의 수단에서 내 영역의 문화를 보존하여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는 넘쳐도 쓸만한 정보는 없고 정보의 오류에 책임질 단위가 없다. 이렇듯 이 정보

의 정확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삼국사기 해석판이 나오고 씨디롬에 담겨져 판매가 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이렇듯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내자신이 아니더라도 문화를 서로 공유하면서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최소단위가 그려질 것이다.

나가는 글

위의 몇 가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 모든 것이 아닌 일부분에 속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맥락이 아닐까싶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육성방법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하게 판단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시의원, 관계담당공무원, 문화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행사의 단발성으로 인한 지역민을 멀리하는 결과는 선진문화의 길을 점점 후퇴의 길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며, 지역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연이은 문화상품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발걸음으로 문화적 독창성과 어우러진 문화의 열린사회를 꾸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전문문화인력의 발굴과 장기적인 문화발전계획수립 마련, 지역의 현실에 맞는 문화소프트웨어 개발, 지역의 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기초적인 문화발전의 방향으로 더욱 더 지역문화의 기틀도 공고히 다져지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3. 27 ~ 29까지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가는 탐방 및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자료임.

2001년

지방세정운영
방향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확충

장 세호
/ 속초시 세무과장



금년한해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경제성장의 둔화등으로 인한 담세력 약화 등 지방세수 측면에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른 주민의 의식수준향상으로 인한 과세의 투명성, 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 및 상거래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에는 국내 외적으로 역동적인 한해가 되었습니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위기탈출을 위해 구조조정,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 및 정보화 추진 및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시의 경우도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대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영세상인,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책 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년한해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경제성장의 둔화등으로 인한 담세력 약화 등 지방세수 측면에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며 또한 지

방자치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른 주민의 의식수준향상으로 인한 과세의 투명성, 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 및 상거래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도입등을 통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확충

가. 2001년도 지방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금년도에는 경제성장둔화 등에 따른 담세력 강화 상황 등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각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책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방교육개정에 이전될 지방교육세 2조9,766억원을 포함한 23건 4,5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6.6%가 증가한 규모이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 건축물 등 과세 자료의 일체정비 및 D/B구축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치성재산, 비과세감면 분야 및 불성실 사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간단, 명료한 지방세 과표의 운영

취득세, 등록세 토지과표는 각시도에서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 전용비율 결정고시에 따라 운영하되 시가표준액을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위산(違算), 오기(誤記)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되, 토지의 특성조사 및 표준지의 선정을 면밀히 하여 인근의 토지와 균형을 유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세, 등록세 과표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과표현실화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 필지간 과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과세형평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건물 과표의 경우 “2001년도 건물표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에 운영하고 금년도에 개선된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이나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의 제고등을 위해 우리시에서 공시건물 가격제도(가칭)의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토지 및 건물등이외의 과세물건 대상물건의 세부담 형평을 위하여 각물건별로 현실가격대비 시가표준액의 반영율을 비교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송전철탑, 열수송관, 방송중계탑, 무선기지국시설물 등 2002년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도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 지방세 “체납율 1% 낮추기” 강력추진

지방세체납액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97~'98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다소간 감소추세에 있는 하나, 경제난으로 금년도의 징수전망은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과세의 구현 및 자진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율 1% 낮추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의 강



화,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야 할 것이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처분의 강행,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강화, 출금금지의 요청,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정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장인인 체납자의 경우는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 하여 이를 체납자의 자진납세의 유도로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의 적극적인 정리도 추진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강제인도 및 공매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되 시효경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병행하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의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체납세 징수는 단순히 세수감수에 따른 자주 재정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체납세의 방지 내지 증가는 납세윤리의식을 크게 저

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불형평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의 실현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라. 탈루, 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세원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은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 권리현장의 교부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를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의 표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이 적정한지의 조사 본점사업용, 법인신·증설로 인한 증과세에 해당여부, 비과세,

금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를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의 표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이 적정한지의 조사 본점사업용, 법인신·증설로 인한 중과세에 해당여부, 비과세, 감면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서류의 제출요구는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법인의 관련서류를 확보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관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지양하고 법인현황, 재산현황등 사실관계의 확인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서류의 제출요구는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법인의 관련서류를 확보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관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지양하고 법인현황, 재산현황등 사실관계의 확인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 거소변경사항, 비과세 감면분 변동사항, 과세누락 토지여부 대사등과 건축물의 소유자 변동사항, 구조, 용도등 실태, 무허가신·증축 고급주택등 중과세대상 재산 실태, 화재위험건축물 사용실태, 비과세 감면 과세누락된 건축물조사 및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회원권, 시설물등 소유자 변동사항, 과세누락, 구조변경등을 일제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 지방세 감면 규정 적용철저 및 사후관리

금년도에는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률과 감면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조정되어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중앙단위의 교육 및 자체교육, 연찬등을 강화하여 감면 제도조정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해당기관등에도 개정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야 함.

또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도세 특례제한법등에 의하여 기감면 받은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미제출법인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위한 우리 속초시 30여 세무공무원의 역할을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먼저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각종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함은 물론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에 대하여 최선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의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견습기



정 영 호 /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Capitol Hill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Mall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국회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Capitol Hill 뒤편의 제페슨 기념도서관을 보면서 미국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Hill에서 전면을 내려다보면서 멀리 앤링턴 국립묘지의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뻗어있는 워싱턴모노멘트의 '올곧은' 정신을 본받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미국 건국사를 되돌아보면서, 의사당 앞의 연못에서 손과 마음을 씻고 깨끗한 정신으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필자는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조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잠시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로서 평소 전공서적을 통해 접했던 '미국 민주주의'를 잠시나마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었다.

미국 방문은 7월 9일부터 18일부터 9박 10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었으며,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현지 인터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고민하였지만 다행히 워싱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후배 교수들과 현지 안내자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늦게 나마 지면을 통해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필자의 미국 민주주의 견습기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하겠다.

워싱턴 행비행기에 몸을 싣고

무척 오랜만에 외국을 나가게 되었다. 지난 97년 5월에 보름간 일정으로 유럽의회연수를 다녀온 이후 실로 4년만에 외국 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보좌활동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왔던 나로서는 모처럼만의 외국 나들이어서 조금은 들떠 있었다.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미국의회와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에 나는 피곤함도 잊은 채 아침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워싱턴 행 대한항공에 몸을 맡기고 잠시 긴 잠을 청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위의 부산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비행기는 어느 새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고 친절한 승무원들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포도주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진한 커피 향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미국의 민주주의에 제4의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권력독점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운용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삼권분립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정치학자들은 미국사회의 다양성 혹은 다원주의와 시민의식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잠시 마음을 담아두고 구름도시 위를 나는 비행기안에서 창 밖을 내다보니 마치 신선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공식일정대로 움직이기로 되어 있어 기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필자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몇몇 중요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각 단체들의 역사와 주요 활동 사항 그리고 그들 조직의 운영 및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상식을 다시 점검하면서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오랜 비행시간에서 오는 지루함을 달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힘

미국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미국의 민주주의에 제4의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권력독점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운용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삼권분립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정치학자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 혹은 다원주의와 시민의식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다양하면서도 특수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져 있어 때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해도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통해 조직 혹은 사회가 쉽게 안정을 찾는 것은, 그러한 사회의 기저(基底)에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건

강한 시민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시민의식으로부터 질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힘'인 것이다.

필자가 워싱턴에 도착하여 방문한 시민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커먼코즈 (Common Cause), 미국소비자운동의 원류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그리고 우리에게는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 조직의 내부에 있으면서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C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와 미국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단체인 CAGW(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그리고 주로 정치인의 선거자금 및 로비자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등이었다.

필자는 이들 단체들을 방문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활동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일상의 시민정신, 일상의 민주주의

필자가 방문한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전국에 수십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깨끗하고 잘 정리된 사무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근 스탭(staff)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뜻 있는 단체들로부터 제공되는 기부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미국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소액다수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어 이들 단체들은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게 느끼질 않는 것 같았다.

필자가 방문한 시민단체들의 관심은 커먼코즈와 같이 정치개혁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퍼블릭시티즌처럼 약품안전, 담배문제, 공정무역, 복지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생활이슈와 국제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한다.

특히 퍼블릭시티즌은 관심분야가 다양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인체에 좋은 약과 나쁜 약을 구분하여 소개한 발행하여 수 백만 부가 팔려 그 수익금으로 워싱턴 D.C 뉴퐁서클(Dupon Circle)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른 단체와는 달리 큰 규모의 프레스 룸(Press Room)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곳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한 회원확보와 재정자립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커먼코즈와 퍼블릭시티즌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시민 단체들로서 이들 단체가 미국정치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이들은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의정감시' (Congress Watch)에 초첨을 맞추어 각종 법안들에 대한 입법로비와 입법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그리고 의원들의 정치행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토대로 등수를 매겨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Best & Worst' 의원을 발표하여, 국회의원들을 긴장

하게 만들곤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로비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CRP의 사무총장 로렌스 노블(Lawrence M. Noble)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 많은 정치인들의 로비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입법과정에서 그들이 어떠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밝혀줌으로써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방문을 준비하던 연방하원의원이 여행경비가 선거 자금을 지원하였던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CRP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자 해외방문을 취소하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이들 단체가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CAGW는 국민들의 세금을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전개하였던 국가사업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가예산을 얼마나 낭비하였던가를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출했던 기구로서, 이 분야에서는 지명도가 매우 높았다.

이 단체의 대표자인 토마스 슈와츠(Thomas A. Schatz)는 정부예산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시민의 정부'를 만드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이들 단체의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는 시민단체들에게 철저하게 공개되어 있고,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공익의 우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GAP과의 만남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부패방지법의 모델케이스이기도 한 이 단체의 루이스 클락(Louis Clark) 사무총장은 참여시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발시킨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시민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퍼블릭시티즌의 관리책임자인 조지프 질로(Joseph A. Zillo) 변호사가 나에게 건네준 한 책자에는 이 단체의 창립자인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한 말이 눈에 띠었다.

민연대 초청으로 한국에 와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클락 총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면서 GAP의 역사와 내부고발자 강화법(Whistleblower Reinforcement Act)의 입법 과정, 단체의 재정문제,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와 재판문제와 그 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클락 총장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기밀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여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자, GAP이 중심이 되어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시민항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클린턴 대통령이 결국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나 의회와의 투쟁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시민이 이긴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미국 시민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관심사는 “Campaign Finance Reform’(선거자금개혁)에 있다. 이 개혁법안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미국정치에서 선거비용을 줄이고 또한 자금제공에 의한 로비를 최대한 제한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혁법안의 성공을 위해 커먼코즈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발시킨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시민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퍼블릭시티즌의 관리책임자인 조지프 질로(Joseph A. Zillo) 변호사가 나에게 건네준 한 책자에는 이 단체의 창립자인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한 말이 눈에 띠었다.

“일상의 시민정신 없이는 일상의 민주주의도 없다.(There can be no daily democracy without daily citizenship)”

미국 의회와 워싱턴 몰(Mall)의 의미

주요 시민단체에 대한 방문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필자는 한국정치학회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 이틀간 참석하여 김민하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국내외 정치학자들 그리고 워싱턴의 평통위원 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관해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에서만 바라보았던 통일문제를 밖(워싱턴)에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며, 재미정치학자들과 교민들과의 대화는 남북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보다 폭넓게 해주는데 많은 유익함을 주었다.

국제학술회의 참석을 통해 이틀간의 시간을

보낸 뒤 필자는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하였고, 귀국하기 하루 전날 한·미 의원협회 미국측 회장인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로이스(Ed Rouse) 하원의원을 만났다. 미국 의회와 도서관 견학 그리고 로이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비록하여 미 의회의 스탭(Staff)에 관해 필자가 배우고 느낀 바를 모두 설명하기엔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임), 여기에서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몰(Mall)'의 상징적 의미와 이를 통해 필자가 느낀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워싱턴D.C에 자리한 국회의사당(Capitol Hill) 전면에서 앞을 내려다보면 저 멀리 포토맥 강을 건너 엘링턴 국립묘지가 보이고, 그 강을 다시 건너오면 워싱턴D.C의 상징인 워싱턴 모뉴먼트(Washington Monument)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치솟아 있다. 그리고 모뉴먼트 양쪽 길을 따라 국회의사당 앞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이 몇 개의 건물로 나뉘어진 채 길게 늘어져 있고,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인공연못이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다. 호수를 지나면 바로 국회의사당이 큰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국회도서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념관인 제퍼슨(Jefferson)도서관이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다. Capitol Hill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몰(Washington Mall)의 이러한 공간배치가 갖는 의미를 미국의 어느 정치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Capitol Hill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Mall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국회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Capitol Hill 뒤편의 제퍼슨 기념도서관을 보면서 미국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Hill에서 전면을

내려다보면서 멀리 엘링턴 국립묘지의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워싱턴모뉴먼트의 '올곧은' 정신을 본받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미국 건국사를 되돌아보면서, 의사당 앞의 연못에서 손과 마음을 씻고 깨끗한 정신으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매우 그럴듯한 해석이다. Capitol Hill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Mall을 설계할 때 위와 같은 의미를 염두해 두고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징조작을 통해 국회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Capitol Hill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정신에 기초하여 내리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미국의 역사에 어떠한 의미를 남겨줄 수 있는가 하는 상징적 의미를 전해준다.

필자는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이곳을 무려 세 번이나 찾았다. 물론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구석구석 돌아보기 위해서였지만, '워싱턴 몰'이 지난 상징적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는 일은 여러 의미가 있었다. Capitol Hill에서 '워싱턴 몰'을 내려다 볼 때마다 우리 국회가 생각나곤 하였다.

토론이 살아있고,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교과서 같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맴돌았다. 워싱턴 몰과 같은 상징조작을 통해 미국 의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미국은 역시 철저한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 e-mail : younghoj@assembly.go.kr

약력 :

- 속초 출생
- 속초고등학교 졸업(22회)
- 연세대, 동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과정 수료
- 국회입법보좌관(제13~16대)
- 현재, 국회부의장 비서실장(1급)

2001

일본 공민관(公民館) 연수

10월 30일 ~ 11월 3일 (4박 5일)

문화 관광부 주관 · 지방 문화원 원장 29명

최 용 문 / 속초문화원 원장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2001 일본공민관연수' 차 지방문화원장 29명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東京),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를 다녀왔다.

전통지역문화과장(崔千植)의 안내로 공민관, 사회교육기관, 시민교류센타 등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국민의 생애학습(우리의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자치하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되뇌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한 뜻깊은 연수 일정이었다.

우리 일행은 첫날인 30일 7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 집결하여 9시 20분발 비행기(대한 항공)에 올라 11월 35분에 나리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전용버스편으로 일본의 수도시인 정치, 경제의 중심지 도쿄 시내로 들어가면서 무지개 다리, 도쿄 타워 (높이 333m) 신주쿠(新宿 - 최대변화가)를 지나 오후 2시 30분에 미타카시(三鷹市) 사회교육관을 방문, 다나카(田中) 관장으로부터 시의 사회교육사업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이어 미타카시산업 PLAZA를 방문하여 IT시대를 대비한 생애학습

프로그램을 견학하였다. 오후7시 만찬, 간담회를 마치고 호텔(동경신다카나와프린스)에 투숙하였다.

이튿날인 31일 11시 30분 도쿄시 사회교육과 시설계를 방문한 다음 재일한국문화원(원장 金鍾文)의 초청을 받아 오찬을 하고 원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재일 한국문화원의 직원으로 정규직 2명(원장 포함)에 현지인 8명의 열악함이었다.

오후 2시부터 아사쿠사 관음사 관람에 이어 도쿄시내 번화가인 긴자(銀座)거리와 아키하바라(秋葉原) 전자상가를 구경하였다.

사흘째인 11월 1일 8시 30분발 신간선(초고 속열차)편으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東京)에서 교토(京都)로 가기 위해 신간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번의 일본여행에서 지방자치 우수나라, 환경친화의 나라, 친절한 나라, 교통질서가 훌륭한 나라 등이란 것에 부러워함이었다.

일본 공민관 연수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평생교육)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방문 시간의 제약은 우리들의 단편적인 판단이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함이다.



아하다시(八幡) 시민 교류 센터에서 시장으로부터 생애 학습 과정을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교토로 이동하였다.(11시 5분 도착)

아하다시(八幡市) 시민교류센타를 방문, 시장과 의장의 환영인사와 시민들의 생애학습과정의 브리핑에 이어 공연장, 사랑방 등을 견학했다. 일행은 교토박물관을 관람후 교토 다라 이케 프린스 호텔에서 유숙하였다.

나흘째인 2일 전용버스편으로 나라로 이동하였다. '나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국가"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의 "나라"로 삼국시대의 우리 문화가 상당히 전파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나라현청을 방문후 나라코엔(奈良園)을 찾아 도다이지(東大寺), 고후쿠지(興福寺), 가스가타 이사(春一大社)와 나라국립박물관 등을 관람하였다. 공원안에 방목된 사슴과 푸른잔디가 아름다웠다. 우리 몇 사람은 다이부쓰텐 중앙에 안치된 높이 16.2m, 얼굴길이 4.8m, 손길이 36m, 무게 452톤의 세계 최대의 금불좌상인 노사나불(盧舍那佛)에 합장하기도 하였다.

오찬 후 오후 1시에 야마토 중앙공민관을 방문,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호류지(法隆寺)를 관람후 오후 3시에 일본의 상업,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제2도시 오사카로 이동하였다. 시내 번화가인 신사이바시, 도톤보리를 구경하고 다음은 국립민족학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내의 우리나라의 소개에서 동아시아 코너에 「조선반도의 문화」였다. 여기에 '한반도'가 아닌 '조선반도'의 쓰임이 과연 옳은가라는 우리들의 논란이었다.

오후 7시에 미노우관광온천호텔에 도착하여 만찬간담회를 끝내고 유숙하였다.

11월 3일 마지막날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는 탓에 당초 계획했던 오사카성의 견학을 포기하고 쥬스코(Jusco) 백화점에 들려 간단한 쇼핑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13시 40분발, 15시 30분착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나는 이번의 일본여행에서 지방자치 우수나라, 환경친화의 나라, 친절한 나라, 교통질서가 훌륭한 나라 등이란 것에 부러워함이었다.

일본 공민관 연수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평생교육)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방문 시간의 제약은 우리들의 단편적인 판단이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함이다.

그리하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홍재 실장이 다년간 연구하여 전국지방문화원장 연찬회에서 강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 공민관 연수보고를 대신하니 이해바랍니다.

일본 공민관의 사업과 운영

I. 공민관 활동의 개관

1. 개요

일본 공민관 활동은 생애학습에 이념적 근거를 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문부성에 생애학습국을 설치하였고(1988), 생애학습진흥시책추진체제정비법(1990)을 제정하여 공민관 학습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민관 활동의 법적 배경은 「사회교육법」,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취급에 대하여」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민관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마쓰리의 주관, 지역사회의 생애학습센터 기능, 주민생활센터, 지역사업 및 지역 연대를 위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공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직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비는 공적 경비로 활용한다. 그러나 공민관의 실제운영은 주민자치의 형태를 취하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학습활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각 공민관은 1개관당 40~50개의 학습서클을 운영한다. 학습서클 운영시 공민관의 보조를 받기로 하며,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관당 평균 3,175권 정도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문화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공민관과 문화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예컨대, 공민관은 시읍면이 설치주체이며,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전문직이다. 반면 문화센터는 회사나 기업이 설치주체이며, 대도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설치목적도 사회교육과 영리에 두고 있으며, 직원은 일반사무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범위도 공민관의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데, 문화센터는 생활문화를 높이는 사업에 집중한다.

II. 공민관 활동의 특징

공민관 활동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민관 활동의 특징을 ① 지역성 ② 생활밀착성 ③ 자율성 ④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

1) 지역성

공민관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집단활동을 통해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치단체가 공민관 활동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민관의 학습성과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운영하자는 취지에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민관 설치기준을 중등학교 학교구역단위로 정하고 있다.

2) 생활밀착성

공민관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집단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즉, 생활에 관련된 그룹이나 서클이 형성되어 학습, 스포츠, 레크레이션, 문화예술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추진한다.

3) 자율성

공민관에 대하여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서 언제나 누구라도 자유롭

게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배양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누구라도 학급·강좌에 참가할 수 있고, 신변의 문제해결을 피하면서 균원적인 문제를 학습하는 자율적인 공간이다.

4) 공공성

공민관은 문화창조의 장으로서 자신들의 생활에 바탕을 둔 학습활동을 통해서 풍부한 인격형성과 지역이나 자치단체 전체의 문화를 높여가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 또한 시민의 연대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사람들의 교양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드는 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III. 공민관 활동의 평가

1. 주민들의 접근성 중시

일본의 공민관 활동은 주민의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다. 주민의 접근성은 공간적 접근성과 시간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포함한 관계 규정에서 설치상의 공간 관련 사항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상세히 정하는 이유는 “일정 구역내의 주민에 대해서 사업의 ‘침투’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민관 이용자들의 접하기 쉬운 일별·시간대별 프로그램 편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예컨대 요일별로는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부들을 위해 평일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근무자들을 위해 야간에, 전업주부들을 위해 평일 오전 및 오후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외에도 자동차를 활용한 「이동공민관」

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주민의 문화적 자치

공민관 참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자립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강습비를 자체부담하는 방식등으로 재정의 자급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운영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수익금도 지방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크다. 주민의 문화적 자치를 위하여 문화 자원봉사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학습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거리 미화를 위한 자원봉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은 받되 프로그램 운영등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치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직원의 전문성 중시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 5조에서는 “공민관의 관장 및 주사는 사회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거나 공민관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충당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타 문화관련 단체와의 조화

공민관과 관련되는 단체는 교육기관 및 시민문화활동 지원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 기관으로는 일반행정기관, 도서관·박물관·기타 사회교육시설, 생애교육센터, 대학·연구기관, 유치원·소학교·중고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그외에 복지시설로서 전수학교, 민간교육사업조직, 기업내 교육조직 등을 들 수 있다.

IV. 지방문화원 활동 및 경영의 활성화

일본의 공민관은 우리의 문화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민문화생활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점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본 주제에 맞추어 일본 공민관을 통해 본 우리 지방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1. 주민문화생활 중심체 역할 담당

주민들의 문화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충족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비용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첫째, 문화여가생활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 및 소득탄력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간과 소득이 증가하면 우선적으로 늘리고 싶은 부문이 여가문화생활이고, 반면에 시간과 소득이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둘째, 일반적인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이유로 문화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문화는 먼 곳에 있으며, 사치재이고, 일부 층의 전유물이며,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는 소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국 주민문화생활 공급의 촛점은 이러한 세가지 여건을 해소해주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는 주민밀착적인 생활문화 공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문화생활이란 특별한 계층이 특유한 대상을 택해 향유하는 것이 아니며,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를 위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의 담당주체로서는 문화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

과 민간은 주민밀착적이고 전문적이며, 낮은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어려우며, 문화원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점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의 이러한 잇점을 충분히 살리며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면 주민밀착적인 문화공급자로서 가장 적임자일 것으로 보인다.

2. 지방문화원 수의 확충

문화원은 행정구역을 평면적으로 감안해서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에 지장이 많다. 무엇보다 숫자적으로 적고,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 올 만한 공간에 위치하지 않는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도시나 농어촌 군단위의 경우는 활용기회가 이 점에서 극히 제약을 받는다. 일차적인 급선무는 문화원의 숫자를 늘려 주민접근이 용이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군단위 문화원산하에 면단위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인데, 분원과 본원의 인적구성, 재정분담, 사업분담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화원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기간내에 어려우면, 농어촌의 경우 면단위 초등학교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도시의 경우도 초등학교 교실이나 공공기관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공유는 특히 최근 자치제의 실시와 맞물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제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3.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지방문화원이 사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가 안정화 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중앙정부가 검토할 것은 지방문화재정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정부간 재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문화시설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단체가 시설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공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시민회관, 도서관, 문예회관등이 포함되는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 및 포괄적인 지방문화시설인 지방문화원 등은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공민관의 경우 공민관에 대한 교부세의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예컨대 보수, 급여비, 임금, 보상비, 교통비, 수용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の場合 장기적으로 항목을 구체화시키고 점차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19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점투자 내용중 문화예술예산은 5,547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1,012억원으로서 국비보조율은 18.2%에 불과하다. 그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총 96억원으로서 내무부 지방문화관련 사업비의 1.7%에 불과하며, 국고보조액은 42억원으로서 전체 국고보조액의 4.2%에 불과하니, 지방문화원이 현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공헌할 것을 고려한다면 단기간내에 기준보조율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양여금내에 지방문화원 관련 신규 사업을 개설해야 한다. 종래 지방양여금은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지방시대와 문화시대가 만나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문화사업 수요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의 공급을 통해 지역간 문화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어 문화사업은 영여대상으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문화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양여금은 일정한 배분방식에 의해 배분하고, 배분된 양여금은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지역문화활동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실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사업에 대한 기부금 금지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화원 자체내의 문제로서 지방문화원의 대한 지원금 배분시 현행 3등분 차등지급방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문화원 사업지원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문화원에 대한 적극지원」을 모토로 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특성화 사업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이 문화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어, 유사 문화단체의 활동과 경쟁하여 문화원이 발전 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4. 생활문화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문화원 활성화는 주민참여의 극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대상층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통해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역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대도시의 경우 여타 문화기관과 차별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문화사업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문화원을 통한 주민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문화생활에 대한 여건이 빈약하므로 찾아가는 문화원 프로그램을 가급적 개발할 필요가 크다.

공통적으로 지역내 각종 단체 및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가급적 주민자치를 통해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절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램을 생활문화중심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구성 내지 기획을 소비자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는 공급자 즉 문화원 편의적(문화원장 관심사 또는 강사의 편리성)으로 되어 있어 주민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채용난이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나, 여론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수강 대상층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 대상일 경우 모임의 공간을 제공하며, 조직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며, 지역행사에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부 교양증진, 인간관계 증진, 건강 증진, 생활문제 해결 능력 증진등이 주요 관심사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인층의 경우는 건강증진, 즐거운 삶, 대화공간 제공, 고령자 학습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도시문화원의 경우 강좌내용을 심층적인 것으로 계획하며, 적극 도움이 될 것으로 충실히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5. 공간활용의 극대화

재정여력이 없는 문화원이 전문공간을 임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는 사익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문화원에 시설을 무상대여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 뜻 있는 기업 등이 시설을 무상대여 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6. 직원의 전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원 규정에서는 임원 규정에 원장, 사무국장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방문화진흥법의 임원규정, 지방문화진흥법시행령의 임원취임 승인만으로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발전시키고 문화원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우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등 문화원 종사자들의 자격을 강화하여 책임운영을 담당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도적으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폭 넓은 문화원 활동 및 경영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7. 관련 단체간 문화협동

지역의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예총 등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문화원과 예총, 심지어는 군청, 민간단체등이 한정된 수강대상자를 두고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양질의 문화생활 기회를 주민들의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공민관의 경우 교육청 관할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위원장이 관장을 임명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사회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교와의 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처럼 행정우위적인 국가에서 특히 실질적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 밀착시키는 운영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연변조선족, 그들의 문화, 그리고 삶

장 규 호 / 속초예총회장

속초예총은 속초시와 농업연수생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의 훈춘시를 찾아

1998년부터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연극공연, 가요제등을 갖고 있다.

나는 올해 두번째 가요제 공연을 위해 지난 6월 23일 30여명의 단원과 같이 7박8일의 일정으로 훈춘을 다녀왔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그들(연변 조선족)과의 만남에서 우리와 너무나 이질화된 문화를 보고 동질화의 첨경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공통의 분모를 가진 문화양식을 찾아보기로 했다.

속초연극협회가 훈춘시를 방문하여 연극공연을 하였을 때는 사실 동포를 위한 공연이라는 설레임도 있었으나 적지 않은 문화의 차이때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문화란 현재의 삶 그 자체이고 보면 그들이 이념과 사상이 다른 체제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문화가 이해됨직도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전전긍긍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접대문화의 차이점이랄까,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는 잔을 주고 받는 정서적 교감을 통한 유대관계 유지가 주된 접대문화의 한 방법인데, 그들의 접대문화 중 특이한 것은 잔을 주고받지 않고 첨잔을 하는 문화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첨잔이란 망자의 제사 때에나 쓰이는 제례문화의 한 방식인데, 그들에게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한 방법으로 술잔이 조금이라도 비면 지체없이 채워주는 예의(?)를 갖춘 첨잔 문화가 그것이었다.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은 이질적 문화가

있겠으나 오늘은 동질적 문화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 가장 우리와 닮은 문화는 역시 음악문화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래방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으며, 삼삼오오 모이면 장구치고 노래하는 우리 조선족의 전통적 놀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보고 그들과의 교류 중 이해도와 신뢰구축이 가장 빠른 길은 음악을 통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부터 조선족 위안 노래 사랑을 시작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초순 노래자랑 예비심사를 하였다. 김동만 연예협회 속초지부장과 함께 속초항을 출발하여 러시아의 자루비 노항을 경유하여 훈춘에 도착한 다음날 예심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훈춘문화관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25명의 본선참가자를 뽑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우리가 후일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금년까지 두번째로 행사를 치룬 가요제가 훈춘뿐만 아니라 인근의 조선족이 사는 길림시, 연길시, 용정시, 화룡현등 조선족자치주일대에 널리 소문이 퍼져 길림시

의 경우 이와같은 가요제를 자기네시에서도 하여줄 것을 공식 요청해 오기도 했으며 연길시의 관계자는 본 행사를 훈춘만이 아닌 연변조선족 전체를 상대로 한, 다시말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8개시, 현 대항 노래자랑으로 확대할 것을 정식 건의하기도 하여 연구하여 보자는 회신을 주고 돌아왔다.

우리들의 행사목적은 거창하거나 원대한 뜻을 가진, 다시 말해서 동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나 위대한 민족의 정기를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중국이라는 거대대륙의 한쪽 변방에서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껏 목말라하고 애타게 갈구하던 문화향수에 대한 나눔의 장이 되고 싶었고, 우리들 체질속에 흐르는 공통분모인 가무를 즐기는 낙천적 기질을 되살려 향후 그들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그저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25일 훈춘시 영극원(영화와 무대공연을 동시에 하는 다목적공연장)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매년 6월 25일로 행사 날짜를 잡은 것은 우리민족에게 6·25라는 비극적인 날의 특별한 의미를 그들에게 부각시켜주고 결코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날로 기억되며 향후 6·25라는 날은 우리 민족의 한마당 화합잔치가 되는 날로 기억이 되도록 일부러 날짜를 고정시켜 버렸다. 이것은 결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오직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싶은 암울한 과거사의 한 부분을 중국의 우리 후대는 이젠 홍겨운 날로 기억되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향후 2, 3년후엔 최소한 훈춘에 사는 조선족 사이에는 6·25라는 날은 조선전쟁 발발일이 아닌 훈춘 최대의 문화행사의 날로 기억되리라

는 것을.

음악속에서 이념도 없었다. 사상도 없었다. 그리고 지위고하나 빙부격차도 없었다. 오직 같이 어울려 같이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오랫만에 만난 이웃들과 한잔 기울이며 세상 얘기하며 자식걱정, 농사걱정, 입상한 사람들의 상품이야기 등으로 하루를 지새우곤 하는 것이다. 얼마나 목마른 만남들이었기에 저토록 좋아하는지 바라보는 나도 흐뭇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그동안 일부 우리 한국사람들이 연변에 조선족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들로 인하여 많은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다분했었으나, 이번 행사로 인하여 많은 조선족들이 그러한 시각을 바꾸었다는 데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민족이란 동질성을 전제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같은 민족끼지 서로의 편견이나 알력이 있다면 해소하고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알력들이 해소되고 이해될 때 비로서 동질의 참뜻이 성립되며 나아가서는 원대한 의미의 단일화라는 통일된 민족성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귀국선을 타면서 생각했다.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장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같은 언어권이라면 언제나 스스로 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나름대로의 억지같은 논리를 생각하며 분명코 그날은 올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향후 내년에도 이 행사는 계속될 것이며, 후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질적 문화는 해소 될 것이며, 좀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훈춘가요제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후년에도 끊임없는 후원을 바라는 바이다.

양양 낙산사 성보 조사 보고서

2001년 7월 ·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낙산사

최현식

(속초문화원 이사 ·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 '아미타삼존불좌상' (《속초문화》지 제 16호 78~88쪽 참고)과 양양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 을 2001년 11월 23일 -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상향하여 '보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심의를 문화재청에 의뢰하였다.

- 조사대상 : 낙산사 건칠관세음보살좌상(1구)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원통전
- 규격 : 전체높이 143cm
 불신높이 112cm(머리높이 41cm)
 무릎넓이 76cm (무릎높이 15cm)
- 재질 : 건칠(乾漆)
- 조성년대 : 조선 15세기 전반경

○ 현상

낙산사의 주전각인 원통전인 주존 관세음보살상으로서 높게 마련된 불단위에 자리하고 있다. 금속제 팔각대좌에 결가부좌한 채 아미타인 모양의 수인을 짓고 있으며, 머리에는 화염보주가 빙둘러지고 초화문(草花紋)이 화려하게 장식된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근처의 영혈사에서 모셔왔다고 전해오는 이상은 적당한 크기로서 손상없이 잘 보존되어 왔으며, 관리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편이다.

○ 양식적 특징

불신의 높이(112cm)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크기로서, 허리를 곧추세우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마치 굽어 살피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각침없이 둥글고 탄력적인 얼굴에 엄숙한 듯 단정한 눈·코·입, 삼도(三道)가 뚜렷한 목과 두드러진 가슴표현, 그리고 가냘프면서도 섬세한 손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주름 표현, 가슴밑을 수평으로 가로지른 내의 깃과 화려한 영락(瓔珞) 장식 등은 이 상이 고려 후반에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조선초기 작품임을 짐작케

해준다.

전반적으로 턱이 둥글둥글하여 원만한 느낌을 주는 얼굴 형태는 1466년 조성의 상원사 문수동자상(국보 221호)과도 유사해 보이나, 약간 근엄한 듯 네모꼴에 가까운 얼굴형태와 윤곽이 또렷한 눈·코·입의 표현은 1447년의 중수기가 발견되어 15세기 전반경 조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구 파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992호)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근엄하고 침잠한 표정의 파계사 상에 비해 낙산사 상은 군살없이 두툼한 아래턱과 통통한 뺨을 하여 볼륨감이 보다 뛰어나며, 굳게 다문 입 끝을 살짝 치켜올려 미소를 머금고 있음이 다르다.

높고 화려하기 이를데 없는 보관 역시 화염보주와 투각 초화문 장식은 파계사 상의 보관과 거의 흡사한 점이 돋보인다. 이와같은 유형의 보관은 1395년 하한의 영덕 장육사 건칠보상(보물 993호)으로부터 15세기 후반 추정의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991호)등에 이르기까지의 보살상들에게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4~15세기에 크게 유행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목과 당당한 어깨, 발달된 젓가슴의 표현은 이 상의 탄력적이면서도 건강한 신체를 나타내준다. 특히 가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은 고려시대 불상들로부터 조선시대 초기 상들에까지 보이는 한 요소로, 이것은 낙산사 상이 파계사 상보다 오히려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몸에 비해 다소 작아져 어린애 손과도 같은



낙산사 건칠(乾漆) 관세음보살좌상

부드러운 느낌을 줌과 동시에 손금까지 표현할 정도로 사실적이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두 손은, 1458년 조성의 영풍 흑석사(黑石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1466년에 조성된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 15세기 전반 추정의 파계사상 등 광 유사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손 등으로부터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가냘픈 듯 아름다운 곡선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탄력성 넘치는 얼굴과 함께 어우러져 마치 우아하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여인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적당한 넓이의 무릎으로 안정감이 돋보이는 이 상은 왼쪽 대퇴부 아래로 옷자락 끝이 흘러



건칠관세음보살좌상 후면상

내리고 있으며, 마치 옷자락이 대좌위를 덮고 있는 듯 드리워져 상현좌(裳縣座)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식적 특징은 대구 파계사 상에서도 보이고 있어 15세기 전반경 불상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양 어깨위로 드리워져 있는 굽슬거리는 보발(寶髮)가 컷불을 감싸고 있는 귀고리, 손목의 팔찌, 그리고 신체 앞면은 물론 뒷면에 이르기 까지 옷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영락장식 또한 파계사 상과 거의 흡사하여 낙산사 관음보살좌상의 조성시기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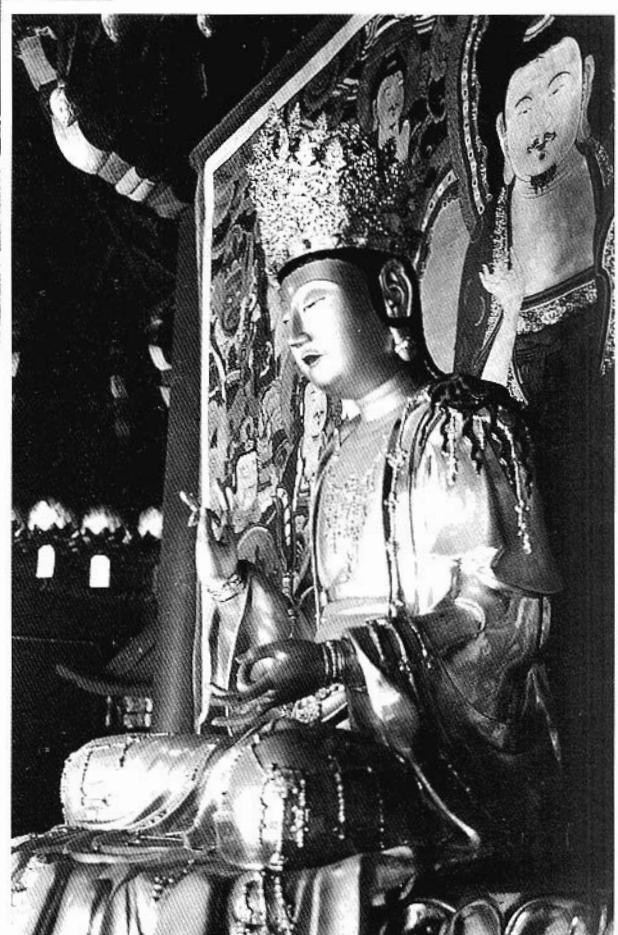
○ 검토의견

낙산사 원통적인 관음보살좌상은 매우 빼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성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바르고 단정한 자세에 안정감이 있으며, 사실적이면서 부피감 넘쳐나는 신체, 그리고 탄력적이면서도 원만한 얼굴과 근엄한 듯 자애로운 표정, 높고 화려한 투각 초화문 보관, 신체 전반에 걸쳐 옷 겉으로 드러난 영락장식, 상현좌 형식의 옷자락 표현,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손의 표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조선시대 15세기 전반 경에는 조성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낙산사상보다 오히려 뒤진 시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구 파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992호)과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991호)등이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건칠이라는 조성재료 또한 흔치 않은 점으로 볼 때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칠관세음보살좌상 향좌 측면상



건칠관세음보살좌상 향우 측면상

제12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제36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전

2001년 10월 12일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4인의 PROFILE

문화예술 부문 / 최용문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장현영

효행 부문 / 김현민 · 체육 부문 / 박성일



문화예술 · 최용문(崔龍文)

속초문화원 원장

1. 주요공적내용

- 3년여에 걸쳐 「속초향토자료전시관」 설립하는데 기여
- 향토문화학교를 개설, 9년 동안 연인원 1,7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여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되는데 기여
- 설악문화제 연구단장으로서 설악문화제 이념 설정과 발전 계기를 마련
- 향토자료집 및 향토문화지 「속초문화」를 연속 발간하여 향토자료의 지속적 수집과 토론의 장을 제공
- 속초민속단을 구성,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및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함으로서 지역 전통문화의 위상확립에 기여
- 정월대보름민속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환경을 개선
-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지역 문화 보급 및 전파에 일익 담당
-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 한아름교육기관으로 속초문화원이 선정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및 감성개발, 우리문화 이해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

2. 주요경력

- '66~'80 : 서울신문 사회부기자(속초 주재)
- '87~'89 : 속초고등학교 동창회장
- '87~현재 : 속초시번영회 부회장
- '93~현재 : 속초문화원장
- '95~현재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3. 수상경력

- '97 :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 '99년 : 민주평통 사무처장 공로상
- 2000년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그외 다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 장현영(張憲榮)

중앙동 노인회 회장

1. 주요공적내용

- '63년 시 승격에 따른 경찰서 속초시 이전신축에 기여
- 속초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력유치사업에 기여한 바 있으며,
- 투철한 애향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설악제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개최에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 속초경상전문대학 설립시 헌신적인 노력으로 적극 후원함으로서 지역발전 및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정착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 속초문화원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 문화능력 개발 및 향토문화예술발전과 전승발전에 기여
- '91년 시의회 초대의원 및 제2기 의장으로 봉직하면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음

2. 주요경력

- '72년 ~ : 속초문화원장 10년 역임
- '82년 ~ : 속초시 체육회 부회장 6년 역임
- '83년 ~ : 속초시 사회정화위원회 부위원장 2년 역임
- '91년 ~ : 속초시 초대의원 및 제2기 의장 역임
- '98년 : 금호동 개발위원장 역임

3. 수상경력

- '53년 : 화랑무공훈장 수상
- '78년 : 국회의장 감사장 수상
- '84년 : 설악산악회 설악대상 수상
- '82년 : 강원도지사 표창 그외 다수



효행 · 김현민(金顯敏)

조양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1. 주요공적내용

- '89년 조양동 무의탁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여 '90년부터 조양동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 '91년 속초시 무의탁노인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개최하였으며, '93년도에 고성군 2개 읍·면의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개최하였고,
- '96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인 무의탁노인을 지극히 보살피고 '97년도에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위안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 노인들을 보살폈으며,
- 개인적으로는 98세된 노모를 현재까지 지극히 봉양하고 있음.

2. 주요경력

- '92년 : 속초·고성·양양지구 영생복지국 부회장 역임
- '93년 ~ : 조양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역임
- '96년 ~ : 속초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역임

3. 수상경력

- '93년 : 경찰청장 표창
- '95년 : 강원도지사 표창
- '97년 : 내무부장관 표창 그외 다수



체육 · 박성일(朴成一)

속초시 아마추어 복싱연맹 부회장

1. 주요공적내용

- 박성일 씨는 '93. 11월 속초시 복싱연맹이 결성된 후, 현재까지 훈련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 '94년 도민체전 1위, '98년 도민체전 2위, 2000년 도민체전 1위, 2001년 도민체전 2위 등 우리 선수단이 줄곧 상위입상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 '93년도부터 현재까지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속초시 복싱연맹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 불우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주선 및 학비지원 등 선도활동에도 기여함.

2. 주요경력

- '93 ~ 현재 : 속초시 복싱연맹 훈련이사 및 부회장
- '96 ~ 현재 : 속초시 민방위 강사

3. 수상경력

- '91년 : 강원도지사 표창
- '96년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97년 : 속초시장 표창

곧은 나무에게



제32회 설악문화제 통일 염원의 밤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이성선 시인(97.10.2)

지난 5월 4일 유명을 달리한 이성선 시인의 추모의 정으로
박영도 이사(본자 편집인)의 평소 우정과 시인의 시세계를
더듬는 글을 실는다.

주·사무국

글·사진 / 박 영 도 이사·본자 편집인



등잔 앞에서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다.

누가 하늘까지
아픈 자상의 일을 시로 옮겨
사색 눈동자를 젓게 하는가

너무나 무거운 허공
산과 산이 눈뜨는 밤
핏물처럼 젖물처럼
내 육신을 적시며 뿌려지는
별의 무리

죽음의 눈동자보다 골짜기 깊다.

한 강물이 내려눕고
흔들리는 등잔 둘에
빈 산이 젓고 있다.

- 시 · '빈 산이 젓고 있다' 전문.

이성선(李聖善) 시인 -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다. 속초에서 가까운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속칭 '동루골'이다. 지금은 막국수(강원도의 향토 음식)로 유명세를 떨쳐 관광객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시인의 고향마을이다.

막국수를 먹을거리로 이곳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실개천이 흐르고 소나무가 장승처럼 지키고 서 있는 풍광의 마을 정서를 쉽게 느낄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시인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시상(詩想)을 싹틔우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밝혀 들 것이 있다. 시인과 나와의 인간 관계이다. 바로 학연으로 한 살 위인 나와는 또한 '자치동갑내기'이다. 연이란 묘한 데가 있어서 그와는 아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

들끼리 또한 동기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연은 물론이지만 시와 떠날 수 없었던 맥도 그와는 관계에서 판파할 수 없다. 5.60년대 등사판에 힘을 빌어 글을 발표하던 시절을 회상할 때 어찌다 소풍이나 갔다 오면 꼭 소풍에 대한 감상문이나 글을 쓰라는 독촉을 받았던 우리들이다. 그때 몇 편의 글이 문예반 회보에 실리는 기쁨 가운데서 서로를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생존시에 만나면 시 쓰기를 권하며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느니 자질을 갖추었느니, 더욱 나아가서는 시 문단에 곧 등단할 것이라는 말까지 날리며 강요 아닌 강요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던 사이다.

내가 그의 첫 시집을 쥐게 된 것이 74년 겨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해 10월 1일이 첫 시집 발행일이니 말이다. 지금 속초 경실련 최진철 공동대표와 협동 운동을 한답시고 속초 신용협동 조합의 일을 하던 때인데 불쑥 이성선 시인이 나타났다. 시집 몇 권을 내놓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확인하다. 받고 보니 【시인의 병풍】 - 현대문학사 간】 그의 첫 시집이다. 그때 그가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하였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그 첫 시집을 떴다. 새로운 감회가 훕쓸고 지나갔다. 어딘가 허전한 마음, 어디에 들 것인가,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았어" 뿐이다. 나는 책을 읽을 때면 먼저 후기를 읽는 못된 버릇이 있다. 나름대로 변명은 지은 이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성선 시집 『시인의 병풍』 후기로는 너무 짧은 글이라 처음인 독자로서는 시인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후기를 보자.

첫 시집을 만든다.
땀을 닦고 일어서니

나는 다시
밤의 한 복판에 서 있구나.

험준한 산악을 오르며
울부짖던 음성도

- 1974. 9. 5. 저자 -

첫 시집을 내기 위한 시인의 고단함이 글 속에 있다(이 시집은 세로쓰기로 된 것을 가로쓰리고 옮겼다). 그러나 서문에 이르면 시인의 시 세계(시상詩想)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70년 '문화 비평'지 여름호에 첫 시집의 제호이기도 한 '시인의 병풍' 외 4편의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 이어 장시(長詩) '움직이는 아침의 음악'을 발표하고 72년 4월에 '시문학'지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하기에 이른다. 옮기는 '시인의 병풍'은 짧다기에는 긴 편에 속한다.

밤마다 그는
반은 가리고 반은 드려난
처용 아내, 고운 가랑이
달 솟는 해협에
내려가

절망에 쓰라져
황혼을 수놓다가, 다시
오지의 풀밭에 나려
비밀히
일월의 출몰을 다스리던
그의 손도
지금, 악기 소리 뼈저이는 풀잎을 건너
내 가슴에 내려, 황홀히
문채의 비를 뿌리고

옹들이 천공 가득
포효하며 날오는
병풍 안
엄숙히 고개 숙인
그의 침묵 아래
처용 아내 고운 가랑이
해협에,
향그려운 파리 소리
달이 뜨고.

- 전문 -

병풍을 치고
신기스럽게 악기소리 열리는
병풍을 치고,

위에서 말한 바 있는 서문에서 시인의 시세계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일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문을 옮겨 보자.

꽃나무에 내려
꽃잎을 열고 들여다보면
밤중에 그는 미쳐 있을까

무의를 걸치고
나와 산중을 드나든다.
풀잎과 나무를 드나든다.

작절의 밤마다

내가 이성선 시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그가 살고 있는 속초에 갔을 때였다. 서체나 문면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 같았던, 편지에서 받은 인상 그대로의 그의 얼굴과 태도는 처음부터 그에게 호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좀더 읽기 시작한 뒤부터는 그 단순한 호감이 보다 큰 놀라움으로 변해 갔다. 그 놀라움은 그의 시의 능력 때문이었다.

고도의 상징적인 언어 조직으로 이루어진 그의 시는 그 어느 것이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감각적 서정적 지성적인 작품들과는 그 차원의 성질이 아주 다르다고 직관되었다. 그가 사용한 언어 속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속에 담겨져 온 의미의 축적이 숨여 있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그의 정신속에는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의 무게가 담겨져 있다. 아직도 그 연조가 얇은 젊은 시인의 언어에서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의 중량을 느끼게 되는 것은 희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시는 아주 새로우면서도 아주 고전적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시인은 많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지닌 시인은 드물다. 그 새로운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시인은 더욱 드물다. 이성선 씨는 더욱 더 드문 미래의 시인이다.

- 전문 · 1974년 9월 · 조연현 -

서문은 이성선 시인의 시세계를 가장 함축하는 명문장으로 오늘도 살아 있다.

“아직도 그 연조가 얇은 젊은 시인의…” 구절만 뽑으면 그의 시 전반에 흐르는 피와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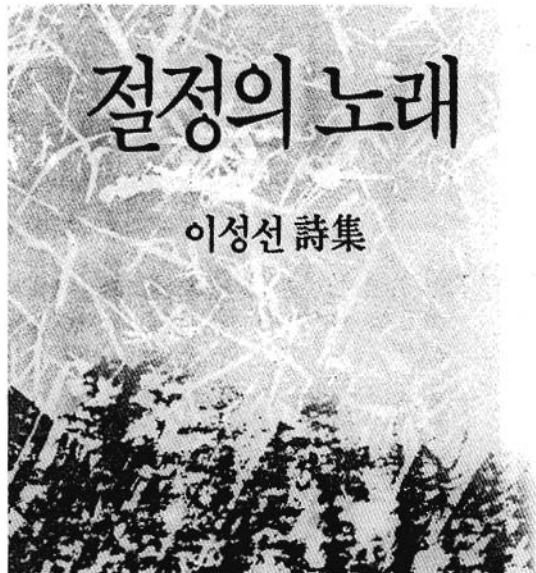
철없는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다가 시인이 된 지도 20여 년, 멀리는 못 나가고 집 뜰만 맴돌았다. 지치도록 산, 별, 나무, 달과 살았다. 이들로 옷 해 입고 놀빛 덮고 잤다. 북두 열쇠로 우주를 열려고 했다. 그렇게 소를 찾으며 나를 찾아 왔다.

살아서 시선집을 내게 되니 기쁘다. 더구나 이 값진 시집은 행운이다. 세상이 고맙다.

- 이성선 · 서문 전문 -



제32회 설악문화제에서 이성선 시인(왼쪽)과 필자(97년 10월 2일).
이 사진이 필자와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李聖善 시인

- 1941년 강원 고성 출생
고려대 농학과 및 동 대학원 국어교육과 졸업
- 1970년 「문화비평」에 「詩人의 屏風」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옴
- 1974년 첫시집 「詩人의 屏風」 간행
- 1977년 제2시집 「하늘문을 두드리며」 간행
- 1979년 제3시집 「몸은 지상에 묶여도」 간행
- 1982년 장시집 「밧줄」 간행
- 1985년 제4시집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 간행
- 1987년 제5시집 「별이 비치는 지붕」 간행
- 1988년 제6시집 「별까지 가면 된다」 간행
- 1989년 제7시집 「새벽꽃 향기」 간행
- 1990년 제22회 한국시인협회 수상
- 1991년 제8시집 「향기나는 밤」 간행

1991년 ‘미래사’가 이성선 시선집으로 그의 시 작품 《빈 산이 젖고 있다》의 제목을 그대로 빌어 발간, 그 서문에서 시인은 짧게 말하고 있다. – 바로 여기가 그의 시심을 열여 준 동루골 고향 마을로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어찌면 불가의 ‘심우도’를 연상케 하는 구도적인 자아의 발견이며 자연에 대한 사랑이고 시에 대한 애착과 열정의 집약이 아니겠는가.

그는 평소 산을 좋아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홀로 오르는 것이다. 산은 그에게 있어 연인이고 친구이자 시심을 닦는 도장이다. 오래 된 일이지만 최명길 시인과 함께 ‘물소리’ 시낭송회를 이끌던 시절로 그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끝이라 설악은 온통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천지를 이루었던 밤, 시낭송회가 끝나고 시인은 물론이고 일행이 설악에 올랐다. 지금 기억으로는 소공원이라고 생각한다. 눈과 벗하며 나뭇잎에 술을 따라 마시며 설악의 눈 속에서 노래와 춤으로 밤을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낭만을 가졌던 시인이다. 때때로 산에 올라서는 지그시 눈을 감고 통소를 불던 모습도 이제는 옛이로고, 그는 시를 위해 산 사람이었다.

외도라야 교사 정년 퇴임 후에 대학에서 시학을 강의한 것과 원주 박경리 ‘토지 박물관’에 몸을 담았던 것이 고작으로 ‘물소리’ 시낭송회를 100여 회 넘게 최명길 시인과 이끌어 왔다는 것이 그가 시를 위해 살았다는 좋은 표본일 터이다.

근래에는 환경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인 시인은 ‘영랑호 껴안기’ 행사에도 앞장 서며 “자연을 그대로 두라, 그대로 있을 때 자연이다.” 라며 뜻을 세우기도 했다. 중고생들도 가지는 흔히들 말하는 핸드폰과 자동차를 갖기를 거부하는 무소유의 청빈성을 지니고 있어 주위로부터 괴팍함으로 비치기도 했다. 이는 나 역시 그의 뜻에 공감한다.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는 것과 가질 수 없어 못 가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면이 가지는 제약은 물론이며 더 이상의 이야기는 고인을 위해서 달리 써여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줄인다. 이성선 시인이여! 우리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2000년 늦가을에.

글 / 정종천 (속초시 문화재 전문 위원)

사진 / 속초시 문화 공보실 제공

속초에 시립민속박물관이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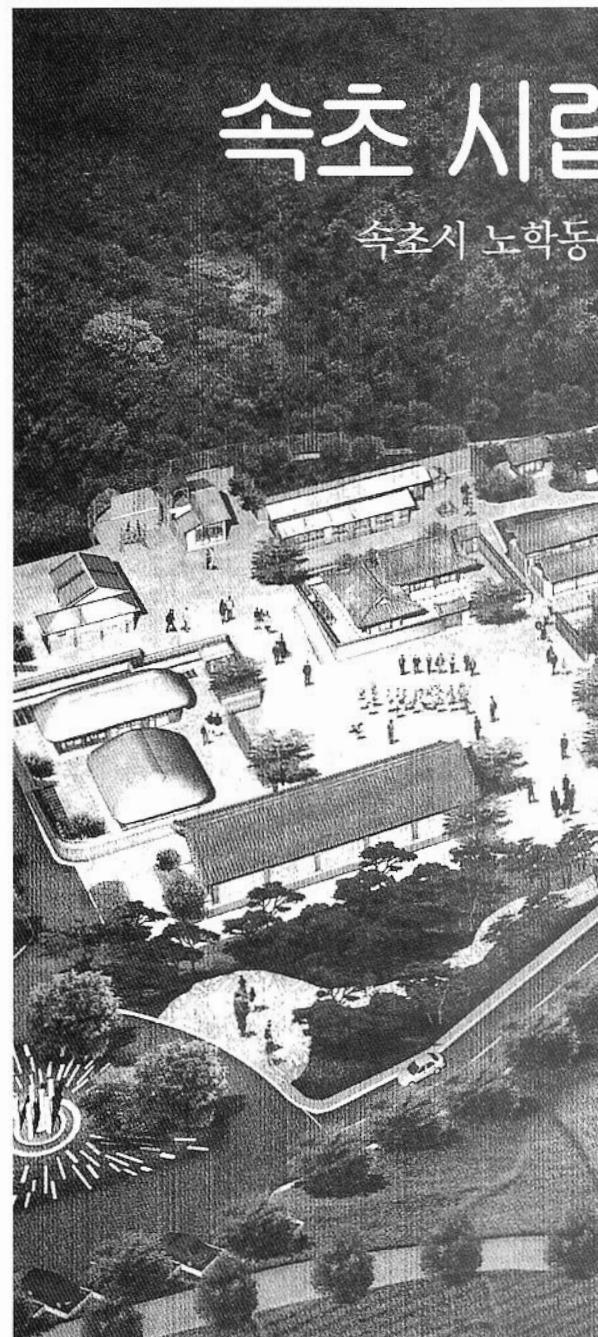
속초시는 총공사비 50억원을 들여 노학동 산 16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79m²(750평) 규모의 박물관을 명년 상반기에 착공 2004년에 완공한다.

조양동선사유적지, 신라화랑 영랑의 행적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고승 자장, 의상의 자취와 속초의 실향민문화 등을 집대성,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실은 역사실, 민속문화실, 기획전시실로 대별하며, 역사실에는 속초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전시될 것이며, 민속문화실에는 설악권, 호수권, 해양권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설악권은 심메마니, 농촌마을의 삶과 불교문화, 호수권과 해양권은 용의 승천, 하랑도의 마상무예와 각종 민속놀이의 재현과 어로활동, 풍어제 등을, 기획전시실에는 속초의 팔경을 중심으로 한 사진과 향토작가 초대전,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디오라마, 설악산 역사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전시기능과 함께 관람객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역사 유적 탐방, 민속체험, 북청사자놀음, 풍물한마당, 자연관찰, 학예사의 만남을 주선하여 박물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광도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박물관건립에 따라 속초문화와 설악산 등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유물을 공개 모집하는데 전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2002년 5월 착공 - 2004년 완공 목표

민속 박물관 건립

■
민족
박물관

지하 1층 · 지상 3층에 750평 규모

세계화 시대에 더욱 더 필요한
속초 문화의 정체성이 쟁여질
영북 제일의 매머드 민속 박물관의 탄생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김구 '나의 소원' 《백범 일지》에서.

2001년도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박 종 성 / 예총 사무국장

■ 눈꽃축제 기념 사진전

제6회 눈꽃축제 기념 사진협회전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속초시 종합운동장 2층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사협회원 18명이 50여점을 출품, 전시하였다.

■ 속초 시민노래자랑

연예협회 주관으로 1월 21일 14시에 제6회 눈꽃축제 기념 속초시민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수상 : 표1참조)

■ 제11회 학생예술상

2월 13일 ~ 16일, 지역 중·고교 졸업생 등 중 지난 1년간 예술문화 활동으로 학교 및 지역을 빛낸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 학생 예술상을 시상하였다.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이 주어졌다.

▶ 속초중학교 : 임 원 / ▶ 설악중학교 :

유육철 / ▶ 속초여자중학교 : 김민정 / ▶ 설악여자중학교 : 김다애 / ▶ 속초고등학교 : 김기환 / ▶ 속초여자고등학교 : 전난영 / ▶ 속초상업고등학교 : 이지혜

■ 제12차 예총 속초지부 정기총회

예총속초지부 제12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1월 31일 개최되었다.

지난해 예산결산 및 올해 예산심의 및 사업계획안이 상정되어 결의되었다.



〈표 1〉

수상내역	성 명	출연동	곡 명	시상자 및 부상
대상	김진우	청호동	비정	속초시장 - 30만
금상	고정애	금호동	서울의 밤	눈꽃축제위원장 - 25만
은상	박현호	교동	비의 랩소디	예총회장 - 20만
동상	정옥녀	교동	서귀포를 아시나요	연예협회지부장 - 15만
동상	유연희	조양동	그대 먼 곳에	" - 15만
인기	심현숙	영랑동	흔적	" - 10만
인기	문남숙	대포동	아리랑 처녀	" - 10만

■ 제12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4월 2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2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선전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중, 고교생 50여 팀이 대회에 참가, 본선진출팀 13개팀이 가려졌다.



■ 제18회 강원연극제 참가

속초연극협회 극단 굴렁쇠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개최된 제18회 강원연극제에 출전하였다. 이만희 작, 김귀선 연출, 작품명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를 무대에 올렸다. 연기상(김태영) 및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제28차 한국소설가협회 심포지움



5월 3 ~ 4일 삼성콘도 및 영랑정 등 시내 일원에서 속초문협 및 설악문우회 주관으로 제28차 한국소설가협회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향토문인 30여명과 한국소설가협회 소속 문

인 70여명등 총 100여명이 본 심포지움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중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대회' 행사를 가졌다. 속초를 작품화 소재로 유도하여 속초알리기에 일조하며, 향토작가와 중앙작가와의 만남의 장을 통한 창작정보의 장을 도모하는데 일조한 사업이었다.

■ 제9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

5월 12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제9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이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 초등, 피아노 중등, 성악, 관현악 부문에 97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2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2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회장 : 장규호)가 주최하고 예총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6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 박화),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 : 박영미) 연예협회(지부장 : 김동만)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희) 사진협회(회장 : 최용철)로, 총 18개 단일사업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 제1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5월 19일 엑스포 광장에서 사진협회 주관으로 제1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 대회가 개최되

었다. 금번 사진촬영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시켜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속초의 홍보는 물론 자연보호의 필요성 등을 일깨우고자 사진협회가 심혈을 기울여준비한 첫번째 대회였다.

소재의 배경은 설악한, 상징탑, 청초호수, 새모델은 부모님, 선생님, 동생, 친구(표정이나 모습, 행동 등 주위의 모든 사물)등으로 주어졌다. (수상 : 표 2 참조)

■ 제7회 주부 백일장

제7회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19일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대회에 시, 산문 부문에 지역 자모 및 주부

100여명 참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주부 시부】 <장원> 김미화(교동초 6-7 최민규 모) <차상> 김용주(영랑초 6-4 김소연 모) 전정화(영랑초 5-2 장광수 모) <차하> 정재득(조양초 6-3 이원빈 모) 한명옥(속초초 2-2 하성실 모) 오미경(영랑초 5-3 방소원 모) <장려> 고명신(청대초 4-1 오나원 모) 최순영(교동초 3-6 이우상 모)

【주부 산문부】 <장원> 이혜정(속초초 2-2 김라은 모) <차상> 장영숙(청대초 2-1 최아름 모) 곽옥자(속초여중 1-5 박태정 모) <차하> 김혜경(교동초 2-2 전소현 모) 김영란(청대초

〈표 2〉

부 문	시상구분	학 교 명	성 명	학년 / 반
초 등 부	금 상	교동초등학교	김보성	6-4
	은 상	조산초등학교	강유향	6-1
	"	영랑초등학교	김수현	3-3
	동 상	조산초등학교	김지희	6-1
	"	강현초등학교	최지애	6-1
	"	조산초등학교	정수민	6-1
	가 작	강현초등학교	김은지 외 4명	6-1
	입 선	강현초등학교	최지애 외 11명	6-1
중 등 부	금 상	설악중학교	이경석	1-2
	은 상	설악중학교	송율민	1-6
	"	설악중학교	이영우	1-6
	동 상	설악중학교	최재훈	2-7
	"	설악중학교	임태환	1-1
	"	설악중학교	지은진	1-1
	가 작	설악중학교	송창훈 외 4명	2-8
	입 선	속초여자중학교	차은혜 외 18명	2-8
고등부	금 상	속초여자고등학교	민현진	3-4
	입 선	속초여자고등학교	민현진	3-4

5-4 김다미 모) <장려> 송미경(중앙초 3-백합
전세진 모) 조경실(청대초 5-2 정우진 모)

<장원> 노향림(설여중 2-4) <차상> 노슬기
(설여중 1-8) 김은미(설여중 3-1)

■ 제12회 설악학생 백일장



제12회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19일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초등 저학년 시부】

<장원> 김현영(교동 3-9)
<차상> 정단별(속초 3-3) 최윤영(중앙 3-2)
총 322편 중 63편 입상

【초등 저학년 산문부】

<장원> 황정아(교동 3-9) <차상> 박혜인(교동 3-3) 이육상(교동 3-3)
총 79편 중 20편 입상

【초등 고학년 시부】

<장원> 박재경(청대초 4-4) <차상> 정민진(속초초 5-1) 유형섭(중앙초 5-2)
총 456편 중 91편 입상

【초등 고학년 산문부】

<장원> 김병진(온정초 6-1) <차상> 김윤경(교동 4-1) 장유희(중앙 5-1)
총 166편 중 33편 입상

【중학교 시부】

【중학교 산문부】

<장원> 김선경(속여중 1-1) <차상> 김수지(설여중 2-4) 신윤정(설여중 2-3)

【고등 시부】

<장원> 김정아(속여고 1-3) <차상> 우지혜(고성고 2-2) 이선아(속여고 1-3)

【고등 산문부】

<장원> 전소라(고성고 2-2) <차상> 김지혜(강릉여고 1-7) 조인화(고성고 1-4)

■ 제12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개최한 제12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19일 설악 한화프라자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 유치부 - 최우수

김혜민(중앙초등병설) 이준재(21세기미술)
이정훈(21세기미술) 송혜인(크레파스미술)
이초롱(조양종합)

◎ 초등 1부(1~2학년) - 최우수

여정구(조양1-1) 박영진(조양1-3) 최유진
(조산1) 조재민(청대2-4) 배용관(청대2-6)
전현지(교동1-8) 최현영(교동1-9) 권혁문(교
동1-2) 소수연(교동1-7) 김현석(속초2-4)

◎ 초등 2부(3~4학년) - 최우수
정예진(청대4-4) 김영배(청대4-2) 김상근
(교동3-5) 박정량(교동4-3) 김민수(교동3-8)

◎ 초등 3부(5~6학년) - 최우수
유현(교동6-3) 김은지(교동6-3) 조용진(교
동5-9) 권용주(속초6-4) 박지희(속초5-4)

◎ 중등부 - 최우수
안은진(설악여중 2) 조민정(설악여중 2)
이희은(설악여중 1) 박단비(속초여고 3) 강
혜인(속초여중 1)

◎ 고등부 - 최우수
민승기(속초여고 1) 이소영(속초여고 3)
이정명(속초여고 3) 남선미(속초여고 3) 한
윤정(속초여고 3)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 신동진 / 설악여자중
학교 교사 최은희 / 교동초등학교 교사 공호선
/ 속초초등학교 교사 홍정임 / 21세기미술학원
원장 안치홍

■ 제2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향토미술 발전에 일조
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데 힘입어, 성인 미
술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제2회 설악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학생대회와 같이 추진되었다.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50여명이 참가하였다.

◎ 최우수 - 이숙희

◎ 우 수 : 최미향 김미자

◎ 특선 : 신복녀 김순희 이경희(65-1047)
◎ 장려 : 김성희(교동초 5-8 김경칠 모) /
유은성(교동초 5-8 김현준 모) / 가이또
미애꼬(교동초 1-7 김가영 모)

■ 연극협회 정기공연

제18회 강원연극제 출품작으로 최우수 작품
상과 연기상(김태영) 수상작인 “누군가의 어깨
에 기대어”를 속초시민을 위해 무대에 올렸다.
5월 19일 20일 총 3회 공연으로 문화회관 대
극장에서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만희작, 김귀선 연출로 출연 박영미, 김태
영, 김귀선 등이 출연하였으며 50세 중반 인생
의 쓰디쓴 맛을 다 겪고 이혼하고 사는 두남자
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바리톤 이용찬이 부르는 임수철 창작 예술가곡 발표회

5월 25일 “바리톤 이용찬이 부르는 임수철
창작가곡 발표회”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
서 가졌다. 이날 공연 피아노 반주는 음협 회원
인 양은영씨가 맡았다. 명상곡 *念*, 대포동 연가
등의 곡들로 연주회가 구성되었다.

■ 제9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26일 문화회관 대 소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9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 관현악, 성악부문에 예선을 거친 진
출자들이 경연을 벌인 결과 아래와 같이 부문
별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속초예총

- TEL 631-8070 · FAX 632-8072
- www.artsookcho.com
- E-mail : art-217@hanmail.net

♠ 피아노부문

구 분	대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초 등 부	1-2학년	장유진(교동초2)	박규현(교동초2)	홍성아(교동초2)	강혜정(교동초2)
	3-4학년	박희민(교동초4)	이은수(교동초4) 곽나리(속초초4)	김수정(교동초3) 안우현(교동초4) 김예진(교동초3)	김윤정(교동초4) 석희민(교동초3)
	5-6학년	장유희(중앙5)	이예지(교동초5)	이아름(속초초5) 장혜진(교동초5)	
중등부		배현욱(설여중3) 【속초시장상】	이대우(설악중1)	강지현(양여중1) 서민정(설여중3)	김희진(정선중3)
고등부		김수경(속여고)	김현정 (강릉문성고3)	강현주(정선고2)	

♠ 성악부문

구 분	대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초 등 부	1-3학년	박다미(성덕초2)	방승하(중앙초3)	김성경(율곡초2)	
	4-6학년	오주연(속초초5)	박혜령(속초초5) 정새날(강릉경포6)	이선영(속초초5) 최영아-갈룡옥천6 이승혜(교동6)	윤병혁(교동5)
중등부		강병임(관동중3)	송은정(율곡중3)	최종안(율곡1)	
고등부		김유리아(강일협3) 【음협이사장】	장은숙(도계3)	박혜인(경포고2) 김소리(강릉여3)	허진주(문성3)

♠ 관현악부문

구 분	대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초 등 부	1-3학년	-	이수진(청대초2)	-	-
	4-6학년	-	조희진(교동초6)	-	-
중등부	-	이도영(설악중2)	정나래(속여중1)	-	-
고등부	-	송모니카(강일여2)	-	-	-

- ▶ 대 상 (1명) :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
- ▶ 금 상(12명) : 1명 속초시장상, 나머지는 속초예총 회장상
- ▶ 은 상(12명) : 음악협회 속초지부장상
- ▶ 동 상(16명) : 음악협회 속초지부장상
- ▶ 장려상 (6명) : 음악협회 속초지부장상

■ 제12회 설악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속초종합예술제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 가요제가 5월 27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2일 예심을 거친 13개 팀이 출전, 열띤 경연을 벌였다. (수상 : 표 3 참조)

■ 제26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6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29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한국화 - 김길자, 김명분, 백종숙, 옥명준,

이혜경

서양화 - 공재숙, 김광수, 김종학, 박동국,

박종칠, 박홍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정광섭, 정봉재,

최낙님, 허인순

조 소 - 강익희, 박영근, 정봉재

공 예 - 고주리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박종칠, 이

행섭, 전원철, 최홍영, 함연호

■ 제6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6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아울러 6월 4일 제12회 설악학생미술 실기 대회 시상을 마치고 바로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 제15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 해맞이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협회 회원 15명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최구현, 동문성, 장창영, 최용칠, 최홍영, 최춘영, 김성호, 황동석, 황병진, 최상후, 황광화, 강영진, 김형관, 장공순, 허인순 등이 출품하였다.

■ 최홍영 사진전

최홍영 사진 개인전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속초시 해맞이 공원에서 “시간”이란 부제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표 3〉

구분	시상자	학교	학년	이름	주소
대상	한국연예협회이사장 - 20만원	속초상고	3	신혜선	조양동 5/7 454-2
금상	속초시장 - 15만원	속초여고	2	김유림	교동 럭키2차 101-1106
은상	연예협회지부장상 - 10만원	동광동공고	3	박상욱	교동 780-169
동상	연예협회지부장상 - 10만원	속초고 속초여고	3 1	김성훈 설수정	교동 현대2차 203-1004
장려상	연예협회지부장상	속초여고	2	유수아	교동 로얄맨션 402호
인기상	연예협회지부장상	속초상고	1	김미희	동명동 중앙연립 다 304

작가 본인이 지난 기간 사진업을 하면서 작업한 풍경작품 40여점을 엄선, 금번 제1회 개인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최홍영씨는 반평생 동안 사진업에 종사하였으며, 속초예총 사진협회 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 제10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0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제5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5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6월 5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출연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 장유진(교동초등 2 - 피아노 : 금상)
- 이수진(청대초등 2 - 피아노 : 금상)
- 오주연(속초초등 5 - 성악 : 금상)
- 장유진(중앙초등5 - 피아노 : 금상)
- 이도영(설악중2 - 바이올린 : 금상)
- 송모니카(강일여고 2 - 첼로 : 금상)
- 김유리아(강일여고3 - 전체대상 : 성악)
- 박다미(성덕초등5 - 성악 : 금상)
- 박희민(교동초등4 - 피아노 : 금상)
- 조희진(교동초등 6 - 플루트 : 금상)
- 강병임(관동중3 - 성악 : 금상)
- 배현욱(설악여중3 - 피아노 : 금상)
- 김수경(속초여고3 - 금상 : 피아노)

■ 음악협회 산하 3개단체 연합대공연

음악협회산하 3개단체 콘서트가 6월 9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속초교사 리코더 앙상블 출연진 16명, 설악청소년 기타 앙상블 9명, 설악엔젤스 합창단 40명이 출연하여 한국민요, 동요, 외국곡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시민에게 선보였다.

■ 설악 엔젤스 합창단 공연

6월 23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설악 엔젤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엔젤스 합창단은 관내초·중등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공연에는 섬마을, 아침이슬, 폴란드민요 쿠쿠에치카, 멕시코민요 차파네카스 등을 무대에 올렸다.

■ 제2회 훈춘시 가요제

지난해 속초, 훈춘간 직항로 개설을 기념하여 개최한 훈춘시 가요제가 6월 25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극원에서 예총(회장 : 장규호)이 주최하고 연예협회(김동만 지부장) 주관으로 2회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제5회 강원무용제

제5회 강원무용제 및 제10회 전국무용제 강원예선 대회가 속초예총 후원하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7월 7일 개최되었다. 영예의 대상인 강원도지사상에는 춘천 「백영태 발레 류보브」에게로 돌아갔으며 속초시 「양숙희 무용단」은 속초예총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 클래식 기타 콘서트

8월 11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총 주최로 서울 클래식 기타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서울 기타 콘서트는 특히 비발디의 사계를 기타로 편곡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으

며, 이날 연주회에는 롤랄디엥의 함사, 알베니스의 카디스, 비발디의 사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미에게 선보였다.

■ 2001년 강원연극인 대회



8월 25 ~ 26일 '2001 강원 연극인 대회'가 문화회관 소강당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강원연극협회장인 김원림 회장의 "지역 연극이 지역 연극의 색깔로 지역연극을 표현하며 지역 연극으로 존재하려면"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어 전 춘천예총 최지순 회장의 "연극지원의 현재와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박완서 IATA 한국지부장의 "지역문화와 창의적인 연극경연"이란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 제5회 설악의 우리꽃 사진촬영대회

제5회 설악의 우리꽃 촬영대회가 시청관광과와 속초사협이 연계하여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50여명이 참가한 본 대회에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영예의 대상인 속초시장상은 조양동 이승호씨로 결정되었다.

■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

우리꽃 그리기 사생대회가 시청관광과와 미술협회가 연계하여 EXPO 대회장에서 10월 11일 개최되었으며 지역 학생 총 1,5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 2001 거리 시화전

제36회 설악문화제 기념으로 2001 거리 시화전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엑스포 광장 인 설악 문화제 행사장에서 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문협에서 협회소속 작가 20여명이 詩작품 50여점을 컴퓨터 스캔을 받아 베너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가졌다.

■ 제5회 설악서예 백일장

10월 14일 제36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5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1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초등부는 文化遺產 繼承發展, 고등부는 가람시조 첨마산협, 일반부는 윤선도의 오우가 중에서 등의 서체가 주어졌다.

■ 연극공연

10월 13일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제36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에서는 '2001 무대공연지원 작품으로 고성군에서 공연한바 있는 "평양에서 온 형사" 앙코르 공연을 개최하였다.

■ 속초 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제36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협회 정기 회원전이 10월 12 ~ 14일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사협회원 16명이 55점을 출품하였다.



■ 제4회 속초 리코더 양상블 공연

10월 31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4회 속초 리코더 양상블 정기공연이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출연자는 정준교 속초리코더 양상블 회장 등 10명이 출연하였으며 합주, 독주, 4중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무대에 올렸다. 찬조출연으로는 교동초등학교 하민지 외 30명이 출연하여 합주가 연주 되었으며 모차르트 오페라 「마적」중에서 등이 연주되어 관람객들이 박수를 이끌었다.

■ 제6회 속초시우회원전

11월 3~4일가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6회 속초시우회원전이 속초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회원 및 초대·찬조 출품작 50여점이 전시되었다.

■ 김성호·김형관 사진전

11월 5~7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김성호·김형관 개인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김성씨는 「얼」을 주제로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품 30여점을 선보였다.

작가는 현재 고성문화원 이사, 고성사진 동우회 회장, 속초사협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김형관씨는 「자연」이란 주제로 설악의 야생화와 새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작가는 속초사진협회 총무와 속초예총 간사로 활동중이다. 두 작가 모두 처음 여는 개인전이었다.

■ 중국회장

11월 9일 ~ 14일까지 속초예총회장(장규호)은 예총 강원도지회에서 주최한 2001 한·중 문예 인사교류 사업 일정으로 중국 심양 및 장춘에 다녀왔다.

■ 극단 굴렁쇠 제4차 워크샵

11월 16 ~ 17일 극단 굴렁쇠 연습실에서 제

4차 극단 굴렁쇠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연극 제대로 알기”란 부제로 강연 및 실기가 이어졌다.

■ 고순영 정영철 피아노 듀오 연주회

11월 18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고순영 정영철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고순영은 건국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재학중이며 정영철군은 속초 출신으로 한양대 피아노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텍사스 주립대 연수와 속초 갈릴리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이날 공연에는 E. Grieg Peer Gynt Suite No 1등을 연주하였다.

■ 임수철 창작가곡집 출판기념회

11월 30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임수철 창작 가곡집 출판기념식이 음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제2회 설악사진 동우회원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설악사진 동우 회원전이 개최되었다.

■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12월 15일 ~ 20일까지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이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예학술 강연회와 강원도 서예가협회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 제10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영북지역 음악인 연중 최대의 축제인 정기발표회가 12월 10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제11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1회 정기연주회가 12

월 12일 오후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설여중에 재학중인 배현욱, 바이올린 남영임, 첼로 김지영, 피아노 정영철, 소프라노 김혜선, 피아노 심영은, 플롯 전하나, 그리고 강은희씨가 지휘를 맞은 설악 엔젤스 콰이어가 출연하였다.

관람객은 총 450여명이었으며 특히 30명으로 구성된 설악엔젤스 콰이어는 관객을 사로잡은 매너로 앙코르곡을 2곡이나 부르는 등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12월 15일 ~ 20일까지 제22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서예작가들로 회원이 구성 총 회원수가 100여명에 이른다. 강원서예가 협회장은 김광희 속초미술 협회장이 맡고 있다.

금번 전시회에서는 65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하였다. 아울러 제9회 강원서예상 시상식도 병행되었다. 수상자로는 한국전각협회 이사로 활동중인 시백 안종중씨 받았다.

또한 서예전을 기념하여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에서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나석 순 병철 박사초청 서예학술 강연회로 「21세기 강원도 서예술의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 갈뫼 31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순수 문학지인 갈뫼 31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5일 오후 6시 관광엑스포 상징탑 옆 카페 아리랑에서 개최되었다.

회장(강호삼) 인사말과 회원 시낭송회, 강원대교수인 소설가 전상국씨의 문학강연 이동탁의 축가가 김종현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였

다. 2부 행사는 장선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등단 및 시집발간 축하 그리고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연극정기공연

밀레니엄 송년을 기념하여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에서는 12월 19일 ~ 20일 오후 4시, 7시 공연(총 4회공연)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근삼작 어떤 노배우의 마지막 연기(부제 :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다.

김귀선(서일), 김정희(시장택), 김태영(대광), 김홍래(아들), 김영식(청년), 정경숙(기자), 윤영은(여직원), 김영주(처녀)등이 출연하였다.

■ 속초예술지 2호 발간

속초예술 2호지가 발간되었다. 문협의 지상시전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연극시나리오 그리고 협회별 다양한 원고로 채워졌다.

A4형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예총 및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표지화는 고주리씨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 설악 엔젤스 콰이어 정기공연

설악 엔젤스 콰이어 정기공연이 12월 29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휘 강은희, 반주 심영은, 단원 30명이 출연하였으며 5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멋진 송년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내 맘의 강물 (이수인) Oh! Happy day(Edwin R.Hawkins : 중 솔로 이상민) Sing Sing Sing(Benny Goodman) 차파네카스(멕시코민요) 푸른하늘(멕시코민요 : 곡중 솔로 이소영) Hava Nageela(이스라엘민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01년도 속초민예총의 활동상

◆ 속초민예총

□ 재 중국동포 인상사진 무료제작 증정

· 2001. 4. 1 ~ 28

지난 3년간 「저소득층 노인 초상사진 무료제작 증정」 사업을 해온 사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5명의 사진위원회 소속의 중견사진작가가 직접 현지에서 촬영하여 국내에서 액자를 제작 증정하였다. 속초지역내에서의 문화 활동의 의미를 넓혀 속초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훈춘시 재중국동포(조선족)을 대상으로 초상사진 증정 사업을 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민예총과 속초민예총의 활동을 길립성 전체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고, 재 중국동포에게 따뜻한 동포애을 심는 뜻깊은 사업이었다.



□ 2001 속초민예총 민속예술제

속초의 민속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참여의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민족예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 2001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 4. 28 ~ 5. 1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사진위원회 소속작가 6명의 1년간 지속적

으로 작업한 속초 이미지의 사진을 전시함.

- 디지털 단편 프로젝트

· 5. 6 / 속초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3편의 디지털 단편영화를 상영.

- 느티나무 이야기

· 5. 10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놀이 패 한두레'를 초청하여 연극 공연.

□ 제5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 5. 5 / 전교조 속초지회가 주관하는 제5회 째 행사로써 회원이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에 참여 사진위원회에서는 올해에도 3명이 행사장에 참여하여 가족사진을 촬영 5×7크기로 인화하여 현장에서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인형극초청공연

· 6. 28 ~ 29

문화의 다양화를 위해 원주민예총 소속의 '한국인형극회(단장 : 양혜경)'를 초청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KBS홀과 동부노인회 회의실에서 총2회의 공연을 하였다.

특히 이 공연에서 일본 '호노보노' 인형극단도 참여하여 노인과 어린이에게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제6회 통일문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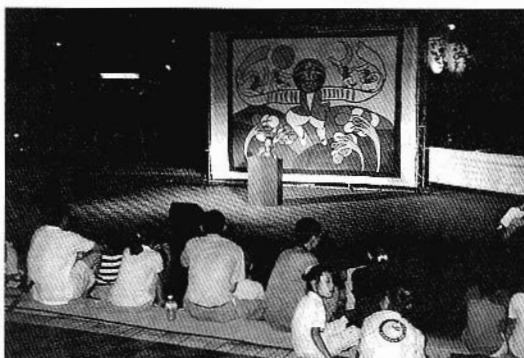
· 2001. 8. 15

· 엑스포 주제관 앞 야외공연장

강원민예총 통일문학제위원회(위원장 이상국)가 추진해 온 통일문학제가 제6회째를 맞아 통일을 열망하는 시낭송과 노래공연이 펼쳐 주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광장에는 3백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통일문학제를 열고 분단의 슬픔과 통일에의 열망을 표출하였다.

특히 북한 조선작가동맹중앙회 시인으로 활동하다 탈북해 지난 1999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문인 최진이씨가 나와 북한에서의 문학활동과 북한 주민들의 통일열만을 전하고 민중가수 김원중씨가 나와 '직녀에게', '아, 마음 속 38선이 무너져 내려야' 등을 들려 주었다.

이밖에 속초지역 민주 노래패인 '우등불'의 공연과 민족문학작가회의 '현기영' 이사장 초청 강연, 갯마당 풍물놀이 등이 펼쳐졌다.



□ 2001 민족공동행사

· 8. 15

6·15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민족공동행사가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어 시민 자전거 타기, 단일기 달기, 하나되는 민족공동행사 단체티셔츠 입기 등의 행사를 하였다.

□ 중국 훈춘촬영가협회 초청사진전

(10. 11 ~ 10. 14)

· 10. 11 ~ 14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제36회 설악문화제를 경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의 자매시인 중국 훈춘의 촬영가협회 회원의 사진을 초청해 전시회를 가졌다.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중국의 사진과 회원들(김광석 / 훈춘시 문체부 부국장, 김광훈 / 훈춘시 촬영가협회 회원, 오인철 / 훈춘시 촬영가협회 회원)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 문학위원회

□ 제4회 청소년 시낭송대회

· 10. 13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청소년 시낭송 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시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사라져 가는 시낭송 문화를 살려 건전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속초민예총 문학위원회가 매년 설악문화제를 기념해 개최하고 있다. 으뜸상과 베금상, 딸림상을 주는 이번 대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으뜸상 김지희(속초상고), 베금상 최정은(속초여고), 신혜정(속초여고), 딸림상 권연희(설악여중), 전병두(속초중), 손혜림(속초여고), 김초롱(속초여고), 박창민(속초고)



경축
제36회 설악문화제

중국 훈춘촬영가협회 초청사진전



왕 래 회



하 향 동



전 송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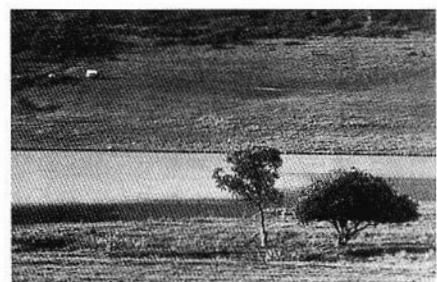
하 위



김 광 훈



장 건 위



리 군



전 춘 산

속초문화회관전시실

2001.10.11(목) ~ 10.14(일)

(초대일시 10월 11일 오후6시)

◆ 사진위원회

□ 「재중국동포 인상사진 무료제작사업」 훈춘 현지촬영

· 4. 1 ~ 28

중국 훈춘시의 재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초상사진 무료증정사업으로 속초민예총의 사진위원회 소속의 5명의 사진작가(엄상빈, 전태극, 김홍수, 이병현, 최성호)가 참여.

훈춘시 신안가 지역 50명, 정하가 지역 57명, 밀강 지역 50명, 경신 지역 50명, 총 207명의 인상사진을 무료 증정하였다.

□ 「재중국동포 인상사진 무료제작사업」 현지증정

중국 훈춘시에서 촬영한 초상사진을 국내에서 표구하여 전태극지부장이 훈춘시의 4개지역을 순회하며 표구액자를 증정하였다.



□ 2001 속초민예총 민속예술제 사진전 「2001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 4. 28 ~ 5. 1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엄상빈, 전태극, 김홍수, 이영훈, 최성호, 이병현, 김은정 총 34점

□ 제4회 사진워크샵

· 6. 23 ~ 24

· 양양 갈천수련원

사진 대중화를 사업으로 <사진편집, 스토리 구성 중심>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가졌고, 사진 촬영의 실제에 대한 슬라이드 감상 및 사진촬영실기로 진행되었다.



◆ 영화위원회

□ 디지털 단편 프로젝트 <웬 돼지털?>

· 5. 6(2001 속초민예총 민족예술제)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디지털영화에 대한 주제강연과 영화상영후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장진 감독 <극단적 하루>, 김지운 감독 <COMING OUT>, 유승완 감독 <다찌마와리>, 남기웅 감독 <대학로에서 매춘하다 토막살해 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

□ 찾아가는 영화학교

· 5월 ~ 11월

다가오는 영상문화의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대의 영상지킴이들을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영화학교 프로젝트」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와 뮤직비디오, 단편애니메이션 등의 상영과 영화제작에 관련한 영상워크샵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상 꿈나무로서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 한여름밤의 영화축제「夏夜夢 2001」

- 7. 20 ~ 8. 19 pm 9:30
- (매주 금,토,일 15일간)
- 엑스포 야외공연장

무더운 한여름밤, 시원한 야외 무대에서 애니메이션, 라이브콘서트 클립, 액션영화, 예술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제3회 설악아시아단편영화제

- 8. 13 ~ 15
- 엑스포 야외공연장

2001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굿로맨스(이송희일 감독)>를 비롯하여 <외계의 제19호 계획(민동현 감독)>, <치열한 전투(부성철 감독)>등 다양한 독립단편영화를 상영하였다.

□ <고성산불 그 후> 환경다큐멘터리 제작

2001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지난 96년 고성일대 산불이후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아픔을 담아내는 환경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순회상영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배포를 기획하고 있다.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

강원도 -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

2001년 12월 3일



속초문화원 부설 풍물패 ‘갯마당’이 12월 3일 강원도로부터 전문 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되었다(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우리 속초가 낳은 국제적인 풍물패 ‘갯마당’은 이제 튼실한 전문 전통예술인들로서 명실공히 거듭 태어났다.

지난 11월 26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에서 ‘갯마당’을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번째 지정 예술 단체로 ‘강릉제비리미술 인촌’, ‘춘천마임축제위원회’, ‘춘천미술관’과 같이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가지는 혜택 또한 막중하다. 첫째, 기부금품 공개 모집 허용. 둘째, 기부금의 손금의 인정. 셋째, 법인세 면제.

넷째,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연·전시 행사에 공공 공연장의 사용 편의 제공 등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 수 없다. 이들의 활동에 격려와 갈채가 필요함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혼불로 일궈 놓은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비상(飛上)의 자유를 느끼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신비를 탐구해야 한다.



양진 / 김 관형

是日也天朗氣清惠風和暢仰
觀宇宙之大俯察品類之盛所以娛
以遊目騁懷足以極視聽之娛所仰
信可樂也夫人之樂也天朗氣清惠風和暢
養珍金寬炯

上及中宮厯覽臺觀開步西城
之陰躊躇高閣之察厥下俯土
微覺有潤因而以杖導之有泉
隨而涌出乃承以石檻

秋峰金善珍題



추봉 / 김 선진



여해 / 박 주옥

終以文德懷遠人東越青丘
踰丹徼皆獻琛奉贊重譯來王
西暨輪臺北拒玄闕並地列州
縣人充編戶氣澍年和如海卦豐

▲▲ 墨香 / 속초문화원



화운 / 한정희

▲▲▲ 墨香 / 속초서예연구회



석천 / 장연주



▲▲▲ 墨香 / 속초서우회

識月風林外玉泉霧碓邊岩
蒸收氣色籬均積雪煙鍾動
隨伊渺香銷俗靄淡潛嗟古貿
達百山愛逃禪 滴湖金炳煥

만호 / 김병준



▲▲ 墨香 / 속초서우회

庭前吏散月華晶
樓下溪通極氣清
坐子思歸懷抱
意手端節晴賦秋聲

辛巳晚秋書容軒先生詩二首
石川金眞範



석천 / 김진범

麻賈關不鍾須者義與歸
誰猶自復焉米可圖寧也
櫛幸賢猶謀經彌爾歸律
寄吾明理士諾濟傾獨殊
辛巳仲秋金尚憲先生詩一首
藝泉朴鍾七



예천 / 박종 칠

- 나하나學院 院長
- 武陵書藝大展 入選
- 江原書藝大展 入選 2回 ('98, '99)
- 江原書藝大展 特選 2回 ('00, '01)
- 雪嶽文化祭 挥毫大會 大賞
- 武陵祭 挥毫大會 入選

▲▲▲ 墨香 / 속초서우회

滴細嶽西
投塵山言
龍補漣沙
淵驚彌首
高巒稽首
嶺前禮東
飛吹已微

書元曉大師詩一首
高峰崔煥主書



고봉 / 최 양구

2001년 속초문화원 ‘에필로그’

■ 졸업생을 위한 강연회 및 공연

- “체험 21C, 기분좋은 만남”
- 11월 26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속초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9백여명이 참석, 동문성 시장의 강연과 각 고등학교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공연 “힙합댄스”와 “락공연”이 있은 뒤 국내의 유명 언더그라운드 락 그룹인 “아프리카”的 공연이 이어져 대중음악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축하해 주었다.

■ 속초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 12월 4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 속초시, 강원도민일보
- 주관 : 속초문화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속초시민 및 청소년들이 참석한 국악관현악 공연은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공연이 되었다. 국악관현악의 협주곡이 국악가요, 경기민요, 통일의 소리 등 여러 테마별로 펼쳐져 어렵게만 느끼던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서예 및 꽃꽂이 전시회

- 12월 4일 ~ 6일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서예, 꽃꽂이 전시회가 문화학교 학생을 비롯한 1,000여명의 시민들의 관람으로 성황리에 치루었다. 이번 전시회는 서예 50여점, 꽃꽂이 13점 총 63점이 전시되었다.

■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12월 8일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이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문화학교장의 표창장과 향토문화학교 및 한국문화학교 수료증을 수여했다.

향토문화학교 학생들의 발표에는 장구초급, 장구중급, 노래, 사물놀이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으며, 문화사랑방에서는 전통요리 수강생들이 30여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선보여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학교 수강생 및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 무 처	자 택	
원 장	최용문 崔龍文	속초시 동명동 250-5 5/4	632-1231	633-3233	
부원장	이인철 李仁鐵	교동 동부APT 102-1306		633-2177	속초지구함북도민회 회장
	노광복 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대표
이 사	고재양 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광수 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김길정 金吉貞	조양동 721-2 13/2	635-1878	633-4756	강원도의회의원
	김병학 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원장
	김종규 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속초시의회과장(전)
	김창구 金昌九	교동 럭키설악타운2차101-1106	638-6577	632-8275	속초 현대 캐피탈 대표
	박상복 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2-3888	속초의료보험대표이사(전)
	박영도 朴永道	영랑동 양우@ C-805		632-4913	향토사연구위원
	어재석 魚在奭	중앙동 468-67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윤근 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대표
	윤숙자 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1014	설악유치원원장
	이영호 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임호성 林鎬成	노학동 159 1/2		633-2178	속초시의회의장(전)
	전복식 全福植	교동 삼환APT 108-1004	636-8790	631-7130	로얄파크 대표
	정래섭 鄭來燮	조양동 부영APT 302-501		633-3149	(주)설악관광장학재단이사
	최경순 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대표
	최현식 崔顯植	조양동 부영APT 303-604	672-2448	633-2632	낙산사기획실장
	허춘권 許春權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타	635-5767	019-376-2002	두산교육센터 원장
감 사	박정기 朴政基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대표
	정연태 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사무국	한정규 韓晶圭	교동 966-12	632-1231	635-5933	사무국장
	장은선 張銀善	교동 만천빌라 204호	632-1231	636-4344	간사
	최봉하 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5-8827	631-5298	향토사료전시관 기사

통학은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강원도 경찰청 지정

속초자동차 운전전문학원



↑
양양

출장면허시험장 약도

설악산 →

속초
↓

하도문리
↓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628-14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 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 및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TEL.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TEL. 635-3366, 3377, 3388, 3399



학원장 金光洙

매주 기능검정, 도로주행 검정시험 실시

雪嶽山新興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설악산 신흥사의 중심을 이루는 법당法堂 '극락 보전'¹⁾은 겹쳐마에 팔작八作지붕의 다포多包집으로 정면 세 칸間에 측면 세 칸으로 된 단층 절집이다.
안에는 주불主佛 '아미타불'²⁾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³⁾ 좌협시左夾侍(향우向右) '대세지 보살'⁴⁾ 우협시右夾侍(향좌向左) 봉안하고 있다.



설악산 신흥사 '극락 보전'의 '아미타 삼존불'

- 1) 極樂寶殿 아미타진阿彌陀殿 또는 무량수전無量壽殿이라고도 하며 안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협시 보살로 봉안한다.
- 2) 阿彌陀殿 대승 불교大乘佛教 정토교淨土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법장 비구法藏比丘로서의 수행 중에 중생 제도衆生濟度의 대원大願을 세웠고, 현재는 성불成佛하여 서방西方의 극락 정토에서 교화教化하고 있다고 한다.
- 3) 觀世音菩薩 괴로울 때 그의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하여 준다고 하는 보살로서 범어梵語(산스크리트Sanskrit)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 대비大悲·대비 관음大悲觀音·대비 보살大悲菩薩로 부르기도 한다.
- 4) 大勢至菩薩 삼불三佛의 하나로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으로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삼악도三惡道를 건지는 보살·대세지·세지 보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글/편집인. 사진/신흥사 제공.